민족과 나

통일의 한길에서

최덕신

민족과 나

통일의 한길에서

최덕신

三學社

출판사로부터

본책자는 〈배달신보〉사의 발행으로 된 최덕신씨의 저서 〈민족과 나〉(부제 〈통일의 한길에서〉)를 재판한 것입니다. 이북의 사회면모와 발전상, 그곳 민중의 생활세태를 이해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본서를 원문 그대로 내는 바입니다.

1984. 6

◇ 목 차 ◇

민 족 과 나 ○통일의 한길에서○

최 덕 신

第4장 힘의 수수께끼

第5장 민족과 영도

붓을 들면서

이 사람의 나이 벌써 일흔살에 이르렀다.

조국땅 북변, 그 호젓한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이 어제런듯한데 내 삶의 나날은 어언 다 저물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파란과 곡절 많은 한평생이었다.

철부지 나이에 고향땅을 떠나 낯설은 이역의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제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느라고도 했고 수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우국지사들을 만나도 보았으며 8.15후에는 지도자이노라고 자칭하는 몇사람들을 섬겨도 보았다. 또한 다시 고국을 떠나 미주와 구라파의 해외교포들과 흉금을 터놓고 마주앉아도 보았으며, 인생행로의 시발점으로 돌아가 이북의 고향땅에서 그곳의 현실도 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찾아 어린 시절부터 흰 머리마저 성기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헤매이었던가?

그것은 사람이 거기에 기대고 살 수 있는 정신의 언덕, 거짓없고 구김없는 삶의 이치였고 민족의 존엄과 중흥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데는 전생애를 요한다는 말이 있듯이 곡절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듯이 찾아 헤매이던 진리를 마침내는 발견했다고 자부하면서 이 진리를 나만의 가슴속에 묻어둘 수 없어 내 생의 저녁노을을 아침노을처럼 바라보며, 젊은 날의 그 기백을 되찾아 감히 오늘 붓을 들 용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제 더는 속이고도 속히우고도 싶지 않다. 얼마나 많은 어릿광대들과 허풍쟁이들의 요란한 외침과 화려한 장단에 춤추었으며, 또 자신은 얼마나 많이 무당처럼 공허한 북채만 흔들어댔으랴. 하지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도 꾸짖을 용기가 없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탓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더 소매치기가 권좌를 차지하고 창녀가 금방석에 앉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속에 샅샅이 침투된 범람하는 악덕의 소치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기왕지사를 논란하고 지나간 허물을 시비해서 무엇하랴. 아무리 어제를 되새긴다 한들 한번 놓아준 화살은 거두지를 못하고 흘러간 인생은 되돌아 오지 못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고 오늘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좌표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을 계속하는 내일이고 내일에 우리가 서있을 지점이다.

하기에 오늘을 놓고 심사하고 내일을 두고 숙고해야 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필경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에 직면한 민족의 상황이다.

민족의 핏줄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인들 민족적 운명의 울타리밖에 서있을 수 있으랴. 민족의 흥망속에서 나의 성쇠가 좌우되고 민족의 희비속에 우리의 애환이 있거늘 우리는 다만 민족의 대하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한방울의 물이상의 다른 것일 수 없다.

내가 이 민족과 더불어 불멸할 삶의 이치를 새삼스럽게 논의해 보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자기를 참회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지 않은들 내가 세운 공과 내가 저지른 죄가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구태여 누구를 훈계하려고도 하지 않거니와 더우기 편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 사람됨이 그러한 재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물과 같이 담담한 심정으로 이 책자를 읽어줄 독자들과 이마를 마주대고 앉아 오손도손 내가 알게 된 민족적 삶의 이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개관론정(蓋棺論定)이라고 사람은 관을 덮을 때 평가하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생은 말년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결산짓고 이제 내 민족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마음다진 나는 내가 찾은 이 길에 여생을 아낌없이 바치고저 할 뿐이다.

나의 이 소책자가 독자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음을 밝히면서 나는 민족의 한사람으로서 한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업에 바친 나의 선친과 독립운동자들, 항일애국선열들에게 깊이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오늘도 남쪽에서 민주구국항전에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배달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워 만방에 그 자랑을 떨치게 한 이북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83년 4월

최덕신

제 1 장

민족의 수난과 나의 운명

제 1 절

망 국 노

나는 이 세상에 망국노로 태어났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망국노로 운명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일합방이 된지 네해째 되는 해인 1914년에 고고지성을 올렸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인간이 세상밖에 나오면서 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고행에 대한 예감이라고 했다. 참으로 이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망국노의 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는 수난에 찬 형극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어린 넋을 맞이한 것은 빛없는 식민지의 하늘과 땅이었고 슬픔에 잠긴 산천이었으며 임오와 갑오년에 뿌려진 민중의 더운 피와 독립을 부르짖으며 쓰러진 의병들의 풀 길 없는 원한이었다. 뼈를 에이는 망국의 한에 몸부림하는 겨레의 머리위에 일본침략자들의 채찍은 날을 따라 가혹해만 갔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보금자리를 잃은 새들마냥 떼를 지어 현해탄을 건너가고 피눈물을 뿌리며 북간도 땅을 밟았다.

3.1의 거족적 봉기는 이러한 사태발전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것은 침략자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족적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억압을 박차고 나라를 찾으려는 민족정신의 누를 수 없는 분출이었다. 3.1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무력에 의하여 유혈적으로 진압되었으나 민족의 피가 헛되게 흐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항쟁을 통하여 민중은 굳세어졌으며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이리하여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에로 접어들고 있었으니 광범한 민중이 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하고 투쟁은 국내의 범위를 벗어나 광활한 대륙에로 그 무대가 확대되어 갔다. 뜻있는 인사들과 열혈청년들의 대군이 연이어 중국대륙에로 밀려들어갔다.

이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유년기의 나는 물론 감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파도는 우리 집을 에돌아가지는 않았다.

이미 독립운동에 나서신 나의 아버님은 이 시대의 파도를 타고 중국에로 넘어갔고 나도 또한 여덟살되던 해 즉 1921년에 아버님이 계시는 북경을 향하여 내 유년시절의 꿈이 깃들었던 고향(평안북도

의주군 월화면 용운리)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종호야, 잘 가라!" 하며, 눈물이 그렁해서 멀리까지 따라오던 막내이모의 모습이 어찌도 가슴을 허비던지. (어린 시절의 내 이름은 종호였다.) 나는 유년시절을 거의 외가에서 보냈다. 아버님은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외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막내이모는 나를 업어 키운 더 없이 살뜰한 존재였다. 나는 막내이모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따랐다. 그 인정미 흐르는 눈매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나는 한번도 잊은적이 없었다.

나의 부친 의산(義山) 최동오(崔東旿)는 천도교 제3세 교조의암 손병희(孫秉熙)선생이 설립한 천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강습소를 나온후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세웠다. 이 서당은 천도교 교인 자제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 부친의 독립운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가 싶다.

1919년 3.1운동때에는 의주 천도교 교구장 최성련선생(나의 외삼촌)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의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게 되었다. 출감후 곧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천도교대표로 계시면서 주로 국내독립운동자들과의 일을 맡아보시었다.

내가 북경으로 찾아간 당시 아버님은 거기서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 교포들 속에서 포교활동을 벌이는 한편 그들의 단결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었다고 나는 알고 있다.

이리하여 거기 북경에서부터 망국노의 슬픔과 쓰라린 고통으로 이어진 나의 이역살이는 막을 열게 되었다.

그때 중국정세도 복잡다단하였다. 조선을 병탐한 일본은 만주에 군대를 들이밀고 중국 본토까지 위협하였다. 하지만 일본침략군에 저항할 대신 중국의 민족내부는 사분오열되어 내분으로 끓었다. 만주에 있던 장작림군벌과 "북경"에 포진한 오패부장군은 "산해관"을 경계로 서로 싸웠다. 그러던 오패부는 그의 막료장이었던 풍옥상장군의 반란으로 망하고 다시 풍옥상군벌은 장개석씨가 북벌군을 인솔하고 북경에 입성하게 되자 그에게로 전향하고 말았다. 만주에서는 장작림이 폭사당한 후 그의 아들 장학량이 군벌통치를 하고 있었다. 상황은 실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를 방불케 하였다.

내 자신이 망국노이며 망국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북경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때였다.

어느날 바람벽에 커다랗게 써붙인 글발을 읽게 되였다. "망국노 불여 상가구"(亡國奴不如喪家狗) 망국노는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글자를 한자한자 읽으며 뜻을 새기던 나는 그만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집으로 달려왔다. 그 글은 분명 나를 조롱하기 위해 써붙인 것만 같았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버님께 이 사실을 말했더니 아버님은 그 글은 중국사람들이 만주에 침입한 일본군을 막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써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망국노였고 망국노의 슬픈 처지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 난 망국노가 싫어요. 그래 언제면 고향에 갑니까?"

아버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나라가 독립되면 곧 가지."

나는 다그쳐 물었다.

"그 독립이 언제쯤 옵니까?"

아버님은 나를 뻔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힘없이 대답하셨다.

"음…이제 한 5년후면 오지…"

이 대답은 철부지였던 나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내가 망국노의 운명을 절감하고 그로부터 오는 의분과 반항정신을 간직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인가 싶다. 나는 내앞에 가로놓인 험난한 길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아버님께서 만주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실 때 어머님을 고향으로 내보내시면서도 날더러 "풍파를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며 향산자유원에 들어가라고 할 때 묵묵히 아버님의 뜻을 좇았던 것이다.

북경의 향산자유원은 양자강하류지역에서 해마다 한해와 수해로 생기는 수많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설립한 고아원이였다. 나는 기이하게도 부모있는 고아로서 부모없는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이 또한 나라 잃은 처지에서 오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향산자유원에서 공부하던 나는 1930년 여름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길림성 "화전(樺甸)현"으로 떠났다.

번잡하던 기차에서 내려 화전현의 허허벌판을 홀로 마차에 몸을 싣고 달려가는 나의 마음은 울적하기만 하였다. 시골길을 달려가노라니 자연 고향의 산천이 눈앞에 떠올랐다. 외가와 이모가 그리웠

고 어머님이 보고 싶었다. 어머님은 고향에 나가신 후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도 북경에서 죽은 여동생을 생각하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짓고나 계시지 않는지.

고향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라가 독립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고향이라고 하던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때 마차위에서 이 한가지 생각에 골몰하여 있었다.

화전에 도착하니 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고향에 계실줄 알았던 어머님은 벌써 오래전에 화전에 와 계시었다. 어머님이 물기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이젠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하시던 일이 어제런듯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아버님은 민족운동자들이 독립군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인 "화성의숙"(華成義塾)의 숙장을 하시다가 내가 도착할 무렵엔 "의산약국" 간판을 걸고 길림지구의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연계를 맺고 교포들과의 일을 하고 계시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아버님이 〈화성의숙〉 숙장으로 계실 때 김성주학생(후에 김일성장군)이 그 학교에서 얼마동안 공부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화전에 얼마 머물러 있지 않고 길림으로 가서 "문광(文光)중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그 학교도 "육문(毓文)중학교"를 다니며 혁명활동을 벌인 김성주학생의 영향밑에 있었다고 하였다.

8.15후 아버님과 어머님이 화성의숙시절의 김일성장군에 대해 회상하시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잠간 뒤로 미루기로 한다.

문광중학교를 다니던 때에 〈9.18사변〉이 일어나 나는 또한번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당시 만주는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이 통치하고 있었다. 장작림은 "산해관"에서 "봉천"으로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황고둔"이라는 곳에서 일본놈들에 의해 폭사당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일본은 남만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관동군을 만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돌연히 "장학량군대가 관동군을 습격했다"는 거짓구실을 붙여 방비태세도 없는 봉천을 1931년 9월 18일에 점령해 버렸다. 그리고 뒤이어 단시일내에 길림성을 비롯해서 일

시에 만주 전역을 집어삼켰다. 그후 일본은 청나라 맨 마지막 황제의 아들 "부의"를 황제로 앉히고, 괴뢰만주국을 세우고는 중국 본토에 침공의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9.18사변>은 만주, 주로 간도지방에 있던 2백만의 우리 교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시련을 가져왔다.

일본군은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즉결 총살하였으며 교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민족주의운동지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만행을 피해 중국관내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금은 중국이 쫓기고 있으나 언젠가는 일본군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니 그때 중국과 합작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아버님도 이때 산해관내로 떠나가셨다.

어느날 나는 길림시내에 나갔다가 한 구멍가게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구멍가게안에 쭈크리고 앉아있던 한 청년이 비시시 웃으며 아는체를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그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더러 나의 아버님을 찾아다니던 다소 면목이 있는 청년이었다. 가게안을 들여다 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지러운 널침상위에 여러 사람이 누워서 백면(아편의 일종)을 피우고 있었다.

청년이 말을 떠듬거리며 변명했다.

"그저 이렇게 됐어… 일본이 만주까지 먹는데 중국사람들이 저항도 없이 투항하는걸 보니… 우리의 독립은 요원할 뿐 아니라 가망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먹고 살기는 해야겠구 해서 이런 장사라두…"

참으로 그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위세앞에 공포를 느끼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거나 타락변절하기도 했다. 여기 한 청년의 타락, 이것도 나라 잃은 민족이 겪는 고통의 한 단면이었다.

사태는 더욱 위험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교활한 일본놈들은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를 이간시켜 반일세력을 약화시켜 보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놈들은 중국인들 속에 "끄우리방즈가 선봉노릇 한다"는 모략선전을 벌였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데 조선사람들이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전후좌우로 협공하여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책동이었다. 형세는 너무도 급박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은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민족의 이 몸부림앞에서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듯 아팠다.

내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

대에 다시는 나와 같은 망국노의 운명을 질머지우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몸을 독립운동에 바치자.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노예로 사는 자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란 노예의 운명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자유인이 자유인을 낳고 노예의 운명에 순종하는 자는 노예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뿐 아니라 가정의 테두리안에서의 한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회적, 가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망국노로 사느니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이 해결된다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워 망국노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건져내자.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자.

이것은 나의 부모님들이 망명생활을 하시면서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고 내 자신 유년시절부터 소년시절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다.

제 2 절

방 황 하 는 애 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설움설움해도 배고픈 설움 이상 없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기에 속담에도 "사흘 굶은 범 이원을 가리랴" 하는 말이 있다. 사흘을 굶으면 안하는 생각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많이는 굶어보지 못했어도 배고픈 설움을 전혀 모르고 자란 것은 아니다. 밀가루 반근으로 하루를 살아야 했던 북경에서는 여동생이 영양부족으로 죽고 남경에서는 군관학교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10원으로 큰 식구가 연명해 나가야 하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북경에서 길림으로 부친을 찾아갔을 때 사발에 무드기 담아주던 그 쌀밥의 맛이다. 물론 먼길에서 몇끼를

굶어 허기증이 나기도 하였겠지만 철이 들어서 처음 먹어보는 쌀밥이었으니 내가 밥을 먹었는지, 밥이 나를 먹어치웠는지.

하지만 배고픈 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라 없는 설움에는 비길 수가 없다. 배고픈 설움이야 때에 따라 면할 수도 있지만 나라 없는 설움은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어떤 시인은 "이역땅을 헤매는 자에게는 낮은 층계도 오르기가 숨이 차고 입에 넣은 빵도 쓰겁기만 하다"고 했다지만 나라를 잃고 쫓겨난 백성은 밥을 먹어도 목이 메이고 노래를 불러도 눈물을 머금어야 하였다.

이 설움을 가시기 위해 나는 군인이 되기로 작정했다. 총을 들고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는 싸움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1934년 21살되던 해에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이름 "종호"를 "덕신"으로 바꾸어 달고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남경의 중앙군관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일본과 인욕(忍辱)외교를 펴고 있던 중국국민정부는 일본측이 "왜 불량선인들의 학생들을 불러들였느냐?"고 항의하자 그 압력에 못이겨 조선인 학생들이 군관학교에 입교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하였다.

나는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최종호"를 "최덕신"으로 바꾸었다. 중국 성씨에도 최씨 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덕신"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데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내 고향 검은골에는 시원히 솟아나는 맑고 찬 샘이 있었다. 그 샘을「덕수」라고 불렀다. 여름 한철이면 온 동네사람들이 밭에서 돌아와 덕수를 한바가지씩 떠마시고는 땀내를 가시며, 고달픈 삶을 한때나마 잊어버리곤 하였다. 그럴 쯤이면 나도 어른들을 따라 덕수주변에서 장난을 치며 놀곤 하였다. 덕수는 내 고향의 표상이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나도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였다. 이제 향토내음짙은 아명마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벅차오르는 서글픔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의「덕수」에서「덕」자 하나만이라도 이름자에 넣기로 하였다. 중국인으로 변성명하는 이 시각 나는 고향의 한조각이나마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중국 군관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있는 열성을 다하여 면학에 힘쓴 결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6년 6월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나는 중국군장교 최덕신으로 되

어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 소속인 번역처(독일문 번역)에 배속받았다.

이 시기 장개석국민정부는 「항외선안내」(抗外先安內)의 구호를 들었다. 즉 외부의 적에 대해 항거하려면 먼저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력을 항일이 아니라 반공작전에 의한 국내평정에 돌렸다.

일본군은 국민정부의 이 헛점을 틈타서 화북지역에 세력을 뻗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내륙을 향해 포진하고 있었다.

드디어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20일만에 북경을 점령하고 12월에는 국민정부 수도인 남경을 함락해 버렸다.

이때 상해에서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남경에 와있던 상해임시정부도 국민정부를 따라 호남성 「장사」를 거쳐 「중경」으로 왔다.

어느날 중경 시내를 지나다가 임시정부의 한 면식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은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옮겨온 후 청사를 얻지못해 고생했다고 하면서 이제야 겨우 낡은 집이나마 한채 빌렸다고 하였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고 초라한 2층 건물이 눈에 띄었다. 순간 나는 「저것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청사란 말이지」 하고 생각하니 금시 마음이 언짢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건물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깃발이라도 게양하면 명분이 설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쓸쓸한 표정이 되더니 국민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대륙에서의 자기 세력을 더욱 확장해 가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비록 백의숙제처럼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념만을 잃지 않고 있는 그분네들의 지조와 험한 세월을 끝까지 버티어가려는 그 의지앞에서 나는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 역시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임시정부가 처한 형편을 보고 듣고나니 이 넓은 천지에 우리가 안주(安住)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우리의 애국이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정착지는 없단 말인가. 하는 울적한 기분이 치밀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시기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군사위원회 번역처에서 신1군 제38사단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광복군 선전과장직을 맡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광복군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인이 된 장준하(張俊河)씨의 「돌베개」에서도 이야기되었고 또 다른 분들도 말한바 있으므로 나는 내가 체험한 몇가지만을 적으려고 한다.

광복군은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영상 문제까지 담당했고 고위 책임직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천장군이었으나 참모장은 물론 참모처와 총무처, 정훈처를 비롯한 중요직에는 중국인들이 앉아있었다. 다만 정훈처의 선전과장만은 한국인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국민정부 군사위원회가 나를 선전과장에 추천했었다.

나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인즉 「선전과장의 포부」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짓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끝에 「나는 한국사람이긴 하나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국어밖에는 모르는 형편이므로 선전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읍니다」라고 써서 제출했다. 그때 나는 광복군의 형편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었으므로 선전과장직을 맡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때 나까지 세 사람이 시험을 쳤다고 했는데 낙방이 될줄 알았던 내가 합격이 되었다.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아마 나는 중국측이 추천한 탓으로 합격이 되었던 모양이다.

선전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누구 하나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할 일도 없었다. 그저 허송세월하는 것이 광복군 총사령부였다고 말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중국군 복장에 중국군모표를 단 광복군은 군사훈련이나 정훈교육은 받은적도 없거니와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내가 광복군 선전과장 시절에 꼭 하나 한 일이 있다. 그것은 선전문을 중문으로 써서 이청천장군의 결재를 받아 중국정부의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는 선전문 하나 마음대로 내지 못했다. 군사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다시 우리 말로 번역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헌데 그렇게 올려보낸 선전문이 내가 선전과장직을 그만둘 때까지 결재되어 내려오지 않았었다.

나는 내가 전에 속해있던 신1군 제38사단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당시 신1군 제38사단은 버마 북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이 부대로 돌아가 대일항전의 일선에 직접 참가할 결심이었다.

이때 이범석씨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찾아갔더니 자기는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부지대장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혼자 처리할 일이 못되어 부친에게 문의하였다. 당시 아버님은 임시정부 의정원직과 조선혁명당의 주요직을 맡아보시면서 김규식, 유동렬, 김봉준, 홍진선생들과 함께 민족주의운동 내부를 단합시키는 일에 힘쓰고 계시었다.

부친은 나의 물음에 "너는 너대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래를 내다보아도 그렇고 실전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 네가 있던 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시었다.

그리하여 나는 광복군 선전과장직을 사임하고 신1군 제38사단으로 떠났다. 우리의 숙적 일본군과 직접 싸우게 되리라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심장은 뛰었다.

망국노의 설움을 가지고 내 민족의 독립을 찾으리라 결심하고 향산자유원을 거쳐 군관학교를 마친 후 장차 나라와 민족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장교가 되었건만 젊은 심장을 어디에 바쳐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나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전선, 어느 부대에 있건 일본군을 패망시키는 전장에 한몸을 바쳐 싸운다면 그것이 독립에 기여하는 길이요 애국의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젊은 심장이 이끄는대로 중국군 사단참모로, 교관으로, 대대장으로 반일항전의 마당에서 낮과 밤을 보냈다.

운남성 보급로 탈환작전에서는 화씨 12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서 나무를 찍고 포바퀴를 밀면서 태고의 원시림인 야인산(野人山)을 한달이 넘도록 헤쳐야 했고 남감(南坎)에서는 백병전을 벌이고 라쇼우전투에서는 범람하는 강물에 목숨걸고 뛰어들어 일본군과 싸웠다.

인도와 버마 국경지대에서 보낸 2년 가까운 전투행동속에서 나는 일선 군인의 자부도 느꼈고 일본군을 소멸하는 민족적 보복의 통쾌감도 맛보았다.

그해 1945년의 여름은 무던히도 더웠다. 우리 부대는 광서성의 남녕에 집결하여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고 광동성으로 진군하게 되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여 휴식하고 밤에는 쉼없이 행군했다.

그러던 어느날 행군도중 문득, 참말로 문득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조국땅에서 수십만리 떨어진 대륙의 한끝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는 나는 기쁘면

서도 가슴속 한구석에 엉켜드는 서느러운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조국은 너무도 멀리에 있었고 함께 춤추고 만세를 불러야 할 내 겨레는 곁에 없었다. 항일전쟁에서 생사를 함께 해온 부대 장병들만이 「너희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이러한 감정은 그후 광주시에 입성할 때에도 느꼈다.

나는 광동성의 일본군의 투항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이것은 참으로 가슴 흐뭇하고 통쾌한 일이었다. 나는 힘든줄을 모르고 뛰어다녔다. 일본군 부대들을 무장해제시키고는 포로수용소에 넣었다. 나는 승리자였다.

나는 개선장군마냥 호주산 말을 타고 광주시내로 들어갔다. 나의 뒤에는 항일혈전을 함께 벌여온 대대가 대열을 지어 뒤따르고 있었다. 환영군중속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교포들도 있어 감격은 더욱 컸다.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의 대대 장병들이 얼굴에 담북 웃음을 띄고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낯익은 중국청년들이었다.

순간 나는 저 수많은 환영군중들은 나도 중국사람인줄로 알겠지 하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떠올랐다. 그러자 웬일인지 내 자신이 국적 없이 떠도는 한마리의 갈매기처럼 느껴졌다.

「…불쌍한 외갈매기야, 너는 어디서 누구를 위해 그리도 힘겨웁게 날개를 퍼덕이었더냐?!……」

하지만 해방이라는 두 글자는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여유도 주지 않고 나를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들뜨게 하였다.

제 3 절
반공의 일선에서

1946년 4월 16일, 나에게 있어서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대륙에서도 봄빛이 짙어가고 있었다.

여덟살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떠났다가 설흔두살의 청년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그 봄날에 중국 광동에서 5천톤급 일본화물선에 올랐다.

인생항로에서 출발점의 방향각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 생긴 한치의 방향상 편차가 종당에는 인간을 뜻하지 아니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출발선의 방향각적 오류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기를 바라마지 않는가 싶다.

하지만 무슨 일이나 지내 놓고 보면 그리도 명백한 것이 출발점에선 왜 그다지도 분명치를 않고 애매하며, 모호한 것일까. 그것이 어떤 체육이나 오락이라면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기회를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길에서는 한번 지나놓고 보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원점(原点)으로 되돌아가 재출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간에 인생은 순간마다가 다 결론인 것이다.

이로부터 실패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간에게는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민족에게는 노숙한 영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인생의 오늘에 대해 느낄 때마다 출발선에서의 방향각적 오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광동에서의 그 봄날이 나에게는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느껴진다. 엄밀히 따지면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간 그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4월의 그날은 지나간 반생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남은 반생에로 내딛는 재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그날은 내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선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각적 오류는 바로 그 광동의 출발선에서 시작되었던가? 어려운 설문이다. 그러니 성급하게 대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먼저 내 지나온 나날을 더듬어 그것을 결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해방된 조국은 이미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으며 남북은 이념과 제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지향하여 나가고 있었다. 고달픈 이역살이의 먼지를 털고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해외교포들 앞에는 따라서 두 갈랫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38도선으로 분단된 조국의 남쪽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이 방향각적 오류의

기점이었든지 아니었든지를 조급하게 단정하는 것을 나는 삼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여 그때 나는 두 갈랫길앞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본 기억이 없다. 우선 그때의 상황하에서 나는 내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여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 갈랫길이 있었던 것은 그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의식하고 확인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하나의 길, 이남에로의 길밖에 다른 길을 나는 보지 않았으며, 또 보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 운명지어진 길이었다. 그것은 그 순간까지 내가 지나온 세월, 내가 체험한 생활, 내가 태어나고 또한 자라면서 보고듣고 알게 된 모든 것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론된 길이었다.

귀국선은 조국을 향해 닻을 올렸다. 낡은 화물선이긴 했으나 귀국의 뱃길은 감개무량한 것이었다.

배에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끌려가서 일본군대살이를 강요당한 청년들과 강제노동에 복무한 노무대, 그리고 소위 〈정신대〉로 인간적 곤욕을 치른 3천여명의 남녀동포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중국군 대령으로서 이 집단의 총대장으로 있다가 그들을 인솔하고 배에 올라 귀국하게 된 것이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산 설고 물 설고 마을조차 설은 이국땅에서 보낸 나는 이제 그 땅을 떠난다. 나라 잃은 망국노의 애잡짤한 눈물로 이어진 애환의 반생을 안고 지금 나는 조국에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갑판에 허리를 짚고 서니 일망무제한 바다가 다 내 것이요 끝없이 펼쳐진 미래가 다 희망의 꽃물결로 안겨오는 것만 같았다.

지나간 추억이 머리를 쳐들 틈바구니가 없다. 눈앞에는 해방된 조국, 이제부터 펼쳐질 앞날의 생활만이 얼른거릴 뿐이다.

조국은 나에게 묻는다.

너는 내앞에 부끄럼없이 살았더냐?

물론.

너는 나의 고통을 잊은적이 없었더냐?

한 순간도.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구요? 중국 대륙을 동분서주했고 마지막으로 광동성에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했읍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중국측과 교섭해서 일본군 포로병들 속에서 골라낸 것이 누구인줄 압니까.

그리고 중국, 버마 국경선에 있는 야인산을 압니까? 그 산속에 쌓여 있던 백골을 보았읍니까? 그 정글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백골이 되었읍니다.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도 못나오는 산, 그것이 야인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군을 치기 위해 그 산을 넘었읍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우리란 누구들이냐?

중국군입니다.

이 마지막 대답은 어쩐지 힘이 약하다. 나는 자기 변명을 해본다. 그래도 나는 대일전쟁 일선에서 총을 잡고 싸우지 않았더냐. 나는 그것이 제일 자랑스럽다.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남의 눈치나 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장하냐? 어쨌든 나는 싸웠다. 싸우자니 그 상황속에서 그 길밖에 딴 길이 없지 않았던가.

그때 나는 선상에서 생각했다. 조국이 나를 반겨맞으리라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이제 조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였다.

하루는 광동시 교민회장으로 있다가 함께 배를 타고 오던 김씨가 귀국후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부산에서 수비사령관이나 하겠읍니다. 그래서 일본을 막겠읍니다.」

반일의식만은 어릴 때부터 집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대답은 이렇게 했으나 속으로는 보다 큰일을 하고 싶었다. 다만 김씨가 친일을 하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어느날 배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승선 인원가운데 노무대에서 간수노릇을 한 사람이 발견되어 노무대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놈의 앞잡이라 하여 처단해 버리려고 하였다. 당연한 일이다. 일본놈의 앞잡이노릇을 하며 나쁜 짓을 했으니 그 값을 치르어야 한다. 헌데 이런 간수가 여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일본놈의 앞잡이는 응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일본놈의 간수노릇을 하면서 노무대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갖은 행패질을 한 이들의 죄는 크다. 이제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민족반역자들을 처리하는 법이 나오고 재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간수들을 여기서 죽이진 말라.」

나의 말은 정당하였으며,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 나는 실지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의 이 기대, 이 생각이 어떻게 순식간에 허물어져버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없었다. 조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순간 나는 자신이 사상누각위에 서있음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 배가 중국을 떠난지 16일만인 1946년 5월 1일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배안에 호열자가 발생하여 18일간이나 더 바다위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5월 18일 미군 당국이 총대장인 나를 저들의 사무실로 불렀다. 괴이한 일이었다. 해방된지도 일년 가까이나 되고 더우기 자기 조국에 돌아왔는데 나를 맞이한 것은 동포가 아니라 외국군이었다. 조국은 이미 38선으로 분단되고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있었다. 나를 부른 것은 바로 그 미군의 군정기관이었다. 분단 비극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또다시 수난의 파도에 떠있을 나의 운명은 이렇게 불쾌한 신호로 예고되었다.
미군 항만사령관실에서 나를 맞아준 사람은 항만사령관은 물론 아니고 더우기 장교도 아닌 미군 상사였다. 그것도 미국사람이 아닌 일본계 2세였으니 대령의 신분으로 그와 면접한다는 것이 그때의 나로서는 몹시 불쾌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서곡에 불과하였다. 미군 상사는 오만하게도 손가락으로 자기 책상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그것은 앉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나는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분기를 참을 수 없었으나 하회를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미군 상사는 이것저것 물었다. 그것은 면접이 아니라 신원조사였다. 한시간동안 그러고나서 상사는 해외에서 귀환하는 교포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난민으로서의 개인자격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는 미군정당국의 지시를 전달해 주었다. 나는 그제야 말로만 들어오던 미군정의 실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권총과 중국에서 여비로 가지고 온 미화 5백 달러를 압수당했다. 중국 군복과 계급장은 그대로 두었는데 아마 중국 군복이나 계급은 근본적으로 승인조차 안하고 무시한다는 태도였던가 싶다.
항만사령관실에서 나와 귀국선에 돌아와 보니 3천여명의 귀환자들은 이미 하선하여 흩어져버리고 빈 배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한 귀환동포가 사정을 알려주었다.
「총대장이 하선한 직후에 미군이 몰려와서 한사람당 돈 천원씩을 주며 하선시키고는 흩어지게 했읍니다.」

모든 것이 미군정 당국의 조직적인 술책이었다.

나는 억울하고 통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선창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나는 개선장교가 아니라 패하고 돌아온 병졸이었다. 조국이 그렇게 푸대접하였다. 아니 미군정 당국이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다. 해방된 나의 조국에 정치권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미군정외에 더는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집약된 표현이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긴다고 그토록 희열에 끓던 3천여명의 귀환동포들, 서울에 올라가서 장안이 들썩하게 행진을 하자던 그 젊은 모습들이 눈앞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허탈감에 빠져 부산의 밤거리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사람 믿지 말자,
일본사람 다시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자.

저 노래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이 남땅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패전국에 진주한 점령군처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인정치 않고 멸시하며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몸서리가 쳐지게 느꼈다.

서울에 올라와보니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미군정의 통치밑에 있었다.

이범석씨에 대한 소식은 더욱 한심하였다. 그는 8.15직후 미군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미군 군용기를 빌려타고 미군 정보장교(대령)와 함께 여의도비행장에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38선 이남을 관할하기로 예정된 미군사령관 하지장군이 그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우기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패전한 일본군에게 치안유지를 위임하고 그 패잔병들을 시켜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만약 그때 이범석씨가 이놈들 내 나라 땅에 내가 왔는데 왜, 앞을 막느뇨 하고 호령하며 버티었다면 그 소식이 서울장안에 퍼지고 사태가 역전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광복군 총참모장이란 사람이 이미 항복한 일본군에게 몰리워 다시 비행기에 올라 상해로 돌아갔다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나, 나나 다 용렬한 인간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해야 하는 신생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의 광복을 찾기 위해 피어린 투쟁을 한 민족해방세력이 주체가 되어 그 투쟁전통과 이념을 받들어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 38선 이남에는 오직 미군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적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그 횡포한 처사에 맞설만한 용단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괴로운 심정을 안고 날과 달을 보냈다. 무엇인가 해야 했다. 그저 놀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귀국하신 아버님을 도와 정치활동을 할까, 아니면 중국에서 쌓은 군대의 경험을 가지고 창군에 앞장설까, 하고 궁리만 거듭하다가 결국 나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육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되었다. 미군정은 일본군이나 위만군 장교노릇하던 사람들은 일본군 혹은 위만군(僞滿軍)이 주었던 최후 계급 그대로 임관시켜주면서도 유독 중국군 출신자들만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하도록 하였다. 그러니 중국군대령이던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될 때 일본군이나 위만군 대위들은 이미 대령으로 승진되어 있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었다. 패전투항한 적군에서 복무하던 자들, 자기 민족을 반역하여 외적에게 충성을 다하던 전범자(戰犯者)로서 처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그처럼 우대하면서 오히려 연합국의 한 성원이었던 중국군 복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진정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계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지도 받음이 없이 얼굴을 들고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었다. 해방이 되면 친일을 하던 민족반역자들이 징벌을 받으리라고 믿었는데 도리어 반일을 한 사람들이 냉대를 받는 것이다. 나는 귀국선에서 간수들을 처단하자고 흥분하여 떠들던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는 이 울분과 불만을 가슴에 묻어둔채 소용돌이치는 생활의 물결속에 휘말려 들어갔다. 어느덧 그 모순에 찬 생활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군인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반공일선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것

이다.

나는 이미 중국국민군에 복무하면서 반공세뇌과정을 거쳤으며, 귀국할 때에도 국민군 장교의 계급장과 군복만이 아니라 그 반공정신까지도 고스란히 안고왔던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다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상식에 물젖어 있었다.

8.15광복후에 나는 남북간의 대립관계가 점차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휘몰아치는 반공의 회오리바람속에 자신을 내맡기었다. 거기에「조선의 레닌」이라고 자처하던 박헌영은 한국이 앞으로 러시아식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로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소련의 가맹공화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날이 감에 따라 나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상반된다는 관념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 울며 지나던 길도 추억속에선 웃으며 돌이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불미한 일이었을지라도「내 그때 그만 그런 실수를 했지」하고 무탈하게 웃어넘기면 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전혀 그것과는 반대로 된다. 옛시절에 웃으며 지나가던 길도 오늘은 추억속에서 고통스럽게 더듬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픈 추억을 자꾸 들추어내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 글에서 내가 반공일선에 섰던 일을 몇마디는 해야겠다.

내가 한국동란소식을 들은 것은 미국에서였다.

그때 미국 보병학교 고등반을 졸업한 나와 최홍희대령은 미국구경을 해볼 양으로 버스로 미국 남부에서 동서로 횡단하는 길을 택하였다. 도중 텍사스주산 안토니아시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6월 25일 아침 라디오에서「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신문에는「38선 부근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씌어있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가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여행 수단과 일정을 바꾸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7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미군용기를 얻어 타고 7월 14일 대전에 도착했으나 육군본부는 벌써 대구로 옮겨가고 없었다. 다시 대구로 찾아가서야 귀환

보고를 하였다.
내가 처음 전투행동에 참가한 것은 동해안의 제3사단 23연대를 지도하여 영덕계선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나는 제3사단장이었으므로 23연대는 나의 예하 부대였다. 그런데 이때 23연대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는 부대의 작전지휘를 직접 지도하게 된 것이다. 두번째는 안동에 가서 제1군단참모장으로서 군단을 낙동강남안으로 도강시킨 후 진지를 구축하고 낙동강계선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두 전투가 다 참패로 끝났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나는 이때 북의 인민군의 전투실력을 결코 허술하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규군으로 창군된지 2년 남짓한데다가 현대전의 실전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민군이었다.
그런데 이편은 패전을 모른다는 백전노장의 5성장군 맥아더원수가 지휘하는 정예의 미군사단들과 미국식으로 훈련받은 한국군이었다. 장비와 병력에 있어서 대비도 안되는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군은 개전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남으로 남으로 패주하고 있었다. 참으로 당시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역사가 귀띔해 주는 교훈에 무감각하였으며, 내친 걸음 그대로 내닫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사단장, 휴전담판의 한국군대표로 그리고 육군본부 기획부장에서 다시 군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런 직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본다. 60년대에 이르러 외무장관시절에는 유엔총회에 출석하여 북을 반대하는 열변을 토하기도 했고 그후 반공연맹 이사, 유신학술원 원장, 국토통일원 고문으로 있으면서 반공을 국시 제1주의로 내세운 제3공화국의 승공통일시책에 따라 활동하였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나는 다만 내가 지나온 그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나는「반공」이 의미하는 일반적 개념만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뉘우치거나 스스로 고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상과 신앙의 자유는 그 어떤 물리적 힘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니만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공감(共感)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이념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처한 여건에서는 그 반공이 같은 핏줄을 가진 동족의 한 부분을 적대시하고 길을 가로막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거기에 있다. 나는 이 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이다. 내 일생에서 그 시절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져버렸다. 세상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니 그래서 인생은 참되고 곧바르게 촌보의 드팀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듯 옛 사람들이 간곡히 타일러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제 4 절

두 번 째 망 명

나는 대대로 동학을 신봉하는 천도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영향밑에서 자랐다. 때문에 민족주의는 어릴 때부터 나의 이념으로 되었다.

나는 이 이념을 실현하는 길에서 단 한번이라도 벗어나려고는 생각해 본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또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란 민족의 존엄과 민족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의 이념이며 의지이다.

나는 이남에서 군부와 행정의 요직을 역임한바 있었으며, 종교계의 중추적 지위에도 있었다.

헌데 문제는 내가 이러한 요직들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념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었던가 하는데 있으며, 만약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그럴수밖에 없었던 근원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자기의 민족주의이념에 충실할 수 없었으며, 이남에는 민족주의자의 이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치풍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혹 어떤 사람들은 국군의 군단장이고 한국정부의 외무부장관이었으며 국토통일원의 고문이었던 나에게서 내가 본 이남권력층내의 온갖 흑막과 추문, 모략과 음모의 일단이 공개되기를 기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당시에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로 보아 적당한 과제도 아니고 가능한 과제도 아니며, 또한 긴한 문제도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의 처신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요직들에 취임하면서 내나름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려고 기대도 하고 다짐도 했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제딴에는 없는 지혜도 짜내고 용기도 발휘해 보았다. 대륙에서 풍상고초를 겪으면서 잠시도 잊은적이 없던 내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는 열정인들 왜 없었으랴. 그러나 나는 결국엔 희망과 포부를 좌절당하고 다시금 두번째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결행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는 일과 내가 속한 정부와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언제부터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어느 시기를 짚어서 말할 수는 없다. 복잡하고 곡절많았던 수십년 세월을 통하여 두번째 망명을 불가피하게 한 요인들이 서서히 축적되어 가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6.25동란시기에 인민군에게 쫓기어 후퇴하면서 그리고 상승불패라던 미군이 하는 수 없이 휴전협약에 조인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나의 머리는 결코 개운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휴전담판회의장에서 북과 마주 앉았을 때 상대측의 대표는 언제나 우리 동족이었으나 남측을 대표한 것은 미군이었으며 더우기 국군을 대표한 본인에게는 아무런 언권도 결의권도 없었던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군의 협의대상으로도 아니었다. 나는 매번 회의장에 나가면서도 그날 거기에서 토의될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나가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북측대표의 당당한 담판자세를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남측의 말석을 차지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었던 최덕신의 초라한 모습을 회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신을 비웃게 된다. 미군수석대표조차 이승만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저「승만리」라고 부르면서 북측수석대표에 대해서는 그가 없는 곳에서도「제너럴남일」하고 존대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휴전담판장에서 결국 주인은「유엔」의 깃발을 든 미국인이었으며, 한국인의 의사와 의지는 완전히 봉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미국의 이익, 미국의 의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었으며, 그가 원하는대로

그가 명령하는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여야 할 의무만이 한국인에게 주어져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때 거기서 미국인의 노복이며, 허수아비였다. 그러나 어리석고도 놀랍게도 그때는 그것을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다만 휴전담판장에서만 국한된 현상이였겠는가?

아니었다. 국정 전반에 걸쳐 한국정부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 나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장성들이 미국장교앞에서조차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휘발유 1갤런을 소비하기 위해서도 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말해서 무엇하랴. 그때나 지금이나 통수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한 군대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이 다만 얼마만이라도 있을리가 없었다.

내가 5.16쿠데타후 박정권의 외무부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후 얼마동안은 미국의 태도가 몹시 냉랭하였다. 박정희가 1948년 여순(麗順)반란사건 관련자라는 사실, 그가 불법으로 장면정권을 뒤집어엎었다는 사실, 그리고 집권후 민족주의 구호를 내들었다는 점 등으로 해서 미국정부가 박정권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짐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천진하다 할 정도로 단순한 나의 판단이었다. 정치의 실제는 표면에서가 아니라 막후에서 전개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박정희가 애당초에 미국의 지령과 협조 밑에 거사를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미중앙정보부(CIA) 책임자였던 알렌 델레스씨는 그가 재임중 가장 성공한 것은 한국에서의 군사쿠데타였다고 공언함으로써 그 내막을 백일하에 드러내놓았던 것이다.

나는 박정권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박정권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미국은 박정권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조종자였다. 크게는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대소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대사관이 간섭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미국으로부터 청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의 그 어떤 주요 결정도 채택되어 본적이 없었으며 일단 미대사관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그 어떤 고위관리도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한 대통령이기에 다소 가혹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박정희는 한

국의 대통령이기보다는 그 사실상의 역할로 보아 미국의 이익을 한국에서 대표하는 미국의 한국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1961년 미국방문시에 박정희가 케네디 미대통령앞에서 반공의 일선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국에 군사비를 더 증가해 주십사고 애걸하던 그 처량한 모습이다. 가련하게도 그때 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응당한 일로 생각하는 그의 동조자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였기에 내각회의에서 언제나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상정될 때에는 그것이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데로 귀착되는 것이였으며, 매개 중앙부서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미국주한관리들의 얼굴표정이었다. 한심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었다. 구경 미국대사나 미군사령관의 동의없이는 한국정부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실례를 들려고 한다.

내가 외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서 서독대사로 가있을 때 박정희가 이나라를 공식방문한 일이 있었다. 양 정부 사이에서 발표할 코뮤니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독측으로부터 한국의 통일에 대한 사항을 한마디 넣자고 제의하여 왔다. 그런데 박정희가 몹시 당황해 하는 것을 보고 서독측에서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한참 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정부의 사전 양해를 받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때 서독 수뇌급인사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조소의 표정을 나는 오늘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사태가 바로 이러하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외무부가 겪는 고통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였으며 참기 어려운 치욕에 직면한 적이 결코 한두번만이 아니었다.

한번은 내가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얼마전에 친선사절단을 인솔하고 박정희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상 멘지스는 우리 대표단을 접견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나무람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노릇이긴 했지만 나는 거듭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계가 「한국대표단이 맨지스한테서 냉대를 받고 문전에도 들어서지 못한채 쫓겨났다」고 당장에 떠들어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

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 전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간 만나보고 인사나 하고 가겠다는 조건부로 겨우 면접승낙을 받았다.

맨지스수상은 첫마디부터「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소?」하고 질책과 멸시하는 어조였다. 실로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루 아침에 총칼로 합헌적(合憲的)인 정권을 뒤집어엎고 권력을 점탈한 박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수교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외교사절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구구히 변명을 하던 자신의 가련한 행색에 앞서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 해외로 떠돌아 다니면서 망국노의 천대를 받은 것은 나라를 빼앗긴 탓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의 간판을 들고 나갔는데도 이처럼 환영 못할 대표단으로 국제사회의 멸시를 받은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나는 여기서 구구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자주적인 정부의 외교사절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나 그러한 대접을 받는 법이 없다는 것을 외교관례에 비추어 확언해 두려고 할 뿐이다.

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정희가 집권직후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나는 이때 박정희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또한 한일관계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박정희의 미국방문을 외무장관으로서 수행하게 되었다. 본래 계획은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박정희가 굳이 일본에 들려 가겠다고 하였다. 천황을 만나보고 이께다(池田)수상과 회담할 일이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결국 일본에 들렸는데 천황은 일본측이 반대해서 만나보지 못하고 이께다수상과 회담을 하였다. 공식적인 말이 오고간 후에 박정희가 이께다수상과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의해서 모두 일어나 자리를 떴다.

그들간에 무슨 모의가 있었는지 모른다. 의전관례를 무시하고 통역도 없이 일본어실력을 보였으니 무슨 밀담이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께다수상이 박정희의 팔을 끼고 나오다가 한손을 들어보이며「잘됐읍니다. 방금 회담에서 모든 것이 잘됐읍니다」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어떻게 잘되었는지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때 벌써 한일국교 정상화문제를 밀약했다고 한다. 그가 어떤 자세에서 약속했는지는 그후의 일로 미루어 보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박정희의 대일굴욕자세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코메디가 있다.

이께다수상과 회담이 있은 다음 연회가 있었는데 축배도 오가고 시간도 일정하게 흘러서 자리를 파할 때가 되었다. 그래 모두 돌아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술잔을 들고 불쑥 일어났다. 모두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는 제일 말석에 앉은 백발노인에게로 다가가서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술잔을 권했다. 관직소개도 없는걸 봐선 별치 않은 노인 같은데 한 나라의 수반이란 사람이 체면도 지킬줄 모르고 왜 저리도 굽신거릴까? 하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후에 알고보니 그 노인이 바로 박정희가 만주국사관학교 생도시절의 교장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때 일본은 박정희의 「황국 신민정신」을 재검토해 보려고 그런 연극을 마련한 모양인데 박정희는 왕년의 「오까모도중위」의 연기를 솜씨있게 해치운 셈이다.

박정희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종필을 통해 일본과 비밀흥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외상 오히라(大平)와 김종필간의 메모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다.

또한 후에 폭로된 일이지만 당시 주일대사로 있던 배의환은 일본외교부에 문건을 전하면서 「이 문건은 외교관례로 보내는 것이니 그냥 받아 두시오. 이것은 형식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김종필루트로 오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1962년 3월 10일에 나는 「한일예비회담」이라는 명분을 띄고 일본에 가서 당시 외상 고사까와 회담하였다. 그때 서로 주장이 제일 날카롭게 엇갈린 문제가 대일청구권문제였다. 쌍방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내가 아무리 사리를 다하고 성의를 다해 설득에 노력하였지만 상대측에게는 그것은 한낱 마이동풍격이었다. 김종필선을 통하여 딴 교섭이 오가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세인의 이목을 기만하기 위한 이 가짜담판장에서 청구권문제에 대하여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나는 실로 희극적인 존재였다.

「예비회담」으로 하여 내가 받은 보상은 상당히 비싼 것이었으니 나는 미구에 외무장관자리를 내놓아야 하였던 것이다.

이미 미국에 예속되고 있었던 한국은 이제는 박정희에 의하여 일본에 재차 예속되는 기막힌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예속되고 지배당하는 불행한 역사

가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지금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남에서는 분명히 민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민족적 존엄과 민족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없었고 민족경제도 없었으며, 민족문화는 양풍과 왜색 속에서 퇴폐화되어 가고 있었다. 민족적인 모든 것이 된서리를 맞고 시들어가며 추방당하고 있었다.

내가 국토통일원 고문직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통일원에서 통일방안을 가지고 브리핑 한다고 해서 30여명되는 고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장관이 「오늘 이 방안은 전임장관 김용식씨가 있을 때에 일본말로 작성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하고 인사말을 끝내자 불이 꺼지고 환등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한대로 온통 일본말로 된 것이었다. 최근 일본외무성의 모관리가 한국의 통일방안을 작성했다더니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침 전기가 고장나서 중단된 기회에 항의했다.

「장관, 이게 무슨 일이오? 어떻게 일본말로 된 문건을 가지고 할 수 있소? 하늘이 무섭지 않소?」

그러자 잇달아 몇사람이 의견을 말해서 결국 그날 모임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내 나라 통일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는 통일원에서 일본인이 만든 통일방안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민족정신에 위배되는 정부의 시책들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영화와 장기집권에 집착하면서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길로 나아가는 박정권의 움직임을 더욱 피부로 실감한 것은 서독대사를 사임하고 천도교 교령을 할 때부터이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책자에서 동학이야기를 비치며, 민족정기를 운운했고 정읍동학기념식에 가서는 「나의 선친이 동학의 접주로서 활동하다가 관헌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해서……(그는 이 대목에서 어물어물 혀아래소리를 하였다) 풀려나와 나같은 불초자식을 낳았읍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처음엔 그가 동학의 후예인줄로 알았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진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의 애비 박성빈은 동학관계자로 체포되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밀고한 덕으로 살아나가서 영월군수까지 지낸 민족반역자요, 동학의 배신자였다. 그때 동학관계로 잡힌 사람들 중에 살아서 풀려나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독 박성빈만이 더러운 목숨을 배신의 피 묻은 보자기로 싸안고 나왔다. 그래서 박정희는 연설에서 이 대목을 어물어물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니 우리 동학의 중흥을 바랄리가 없다.

천도교의 포교활동이 넓어지고 동학의 「보국안민」, 「척양척외」 정신이 퍼져갈수록 그네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자기들의 반민족적인 정체를 가리운 베일이 벗겨질 위험을 감촉하고 불안해 하였다.

천도교 1세 교조 수운대신사가 득도(得道)하던 경주 구미용담에 성지가 꾸려지고 동학군의 피가 스민 공주 우금재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서고 새로 건축한 수운회관에 동학연구에 뜻을 두고 찾아오는 청년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자 박정권은 천도교에 대한 박해를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위력을 가하는 한편 천도교 내부에 중앙정보부 정보원들을 침투시켜 혼란을 조성하였다. 어느날은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기 그냥 있으면 신변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자리를 뜨는게 어떠냐」고 협박까지 해왔다. 박정권과 그 추종세력은 나를 모함하고 중상하는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헛소문을 퍼드려 나를 박해하려고 들었다. 그네들이 말살하려는 것은 결코 자연인으로서의 나 자체가 아니라 나의 민족주의이념이었다.

나는 모든 민족적인 것이 말살되고 있는 그러한 정치체제와는 타협할 수 없었고 더는 그 체제하에서 움직일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음을 통절히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과연 독립국인가? 모두 내 가슴속에서 이런 의문이 세차게 머리를 쳐들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이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지나쳐왔던 모든 일들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일시에 되살아 올랐으며, 어렴풋이 느꼈던 모든 일들이 선명한 윤곽을 가지고 새롭게 회상되었다.

기억속에서 되살아난 모든 것들이 고발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정부가 아니었으며 이 대한민국은 본질에 있어서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세상에 자기의 주권과 자기 민족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응당 재통합되어야 할 단일민족을 그들의 「두개 코리어」 노선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정부, 그러한 나라가 무슨 자주정부이고 독립국가란 말인가?

나는 불행하게도 식민지민족시대와 분단민족시대의 두 민족 수난기에 살고 있다.

8.15를 기점으로 하여 보면 그전시기의 민족문제는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는 것이고 후시기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 나라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민족적 과제였다.

조국의 식민지화가 외세로 인해 제기된 문제였던 것처럼 조국분단 역시 외세에 의해 초래된 민족문제이다. 분열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요구가 아니었다. 때문에 8.15후 민족주의운동은 이 문제의 해결에로 지향하고 있었다. 1948년에 북에서 소집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김구, 김규식선생과 함께 나의 선친이 미군정의 방해를 뿌리치고 38선을 넘은 것도 이때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깊은 뜻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맥아더사령부는 이미 포고 제1호에서 오랜 망명끝에 중국에서 돌아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나 미군 진주전에 여운형씨를 비롯한 건준(建準)세력이 세운 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38도선 이남에서는 오직 미군정만을 인정한다고 선포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남에서는 민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민족주의운동은 또다시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거기에 정계의 지도자라고 나선 이승만씨는 해방전에 한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임통치를 진정했다가 상해임정의 규탄을 받은바 있고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혈통을 끊으려고 만행한 일본군 장교출신이었으니 이런 사대적 또는 민족반역적인 정권밑에서 민족문제가 해결될리가 없다.

비굴한 엽전(葉錢)사상 사대굴종사상은 민족의 자주정신을 좀먹게 한 병폐의 근본 원인이었다.

신라가 신성한 우리 강토에 당나라를 끌어들인 때로부터 외세의존사상은 잡초처럼 씨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을사오적은 더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후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각각 조직된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은 국내에서 적용될 수도 없는「사회주의」와「소비에트」정부노선을 내놓고 러시아의 원조를 얻으려 했고 민족진영의 각 당파들은 대개가 구미세력 아니면 중국국민정부의 힘을 빌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또한 8.15후 미군에게 눈치껏 비위를 맞추며 한몫 보던「통역정치」가 박정권시대에 와서는 일본인을 끌어들여 한몫 보려고 서로 다투어 기생을 섬겨바치는「요정정치」로 탈바꿈을 했다. 민족주체성을 운운하는 그네들이 실상은 우리 민족을 못난 민족으로 묘사하면서 민족말살의 길로, 외세의존적 망국의 길로, 반통일의 길로 나갔다는 것이 과연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정치풍토에서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가 해결될리가 없다. 나는 때늦게나마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동학혁명군 위령탑 제막식때 뜻있는 몇분이 울분을 토하던 일이 지금 문득 내 뇌리에 떠오른다. 그때 동학군이 우금재를 넘어 공주성을 차지한 후 서울로 북상했다면 동학혁명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우금재에서 관군과 왜군 협공에 의해 괴멸됐던 것이다. 만약 그때 외세만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하는 울분이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끓고 있는 것이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임을 역사는 피어린 교훈으로 남겨놓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외세를 배격해야 하며 사대매국적인 정권이 아니라 민족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나의 일생의 결산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나는 생애를 통하여 미흡한 일도 많았고 과실도 많았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생활을 통하여 또한 스스로의 교훈도 찾게 되었으니 내 수난의 일생은 너무도 단순한 요인에 의해 규정된 비극적인 노정이었던 것이다.

그 요인이란 다름아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이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것이다. 8.15전에는 일본에 의한 것이었고 8.15후에는 미국에 의한 것이다. 8.15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6.25동란이라는 민족적 곤욕의 시기를 거쳐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이 미국정부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을 수 없게 무언중에 제도화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노정은 바로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아니라는 모든 증거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불행한 노정이었다. 이 노정속에서 나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찾아헤매었으나 끝내 찾지 못한 것이다.

나는 마침내 두번째 망명을 결심하였다.

첫번째 망명이 망국노의 운명에 기인하였다면 두번째 망명 역시 신판 망국노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일본 오사까에서 열리는 종교관계자회담은 박정희정권과 결별하기로 한 나의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는 1976년 2월 17일 서울을 떠나 오사까로 향하였다.

기구하게도 나는 배반당한 민족주의자로서 두번째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현해탄을 넘으며 출렁이는 남해를 굽어보니 울적한 심사를 달랠 길이 없었다. 8.15광복후 희망에 부풀어 돌아왔다가 설흔해가 지난 오늘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떠나는 길엔 바래어주는 사람도 맞아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조국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국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너의 잘못이니라.

내 잘못이라뇨?

나(조국)를 위해 바친 것이 없을진대 내 또한 너에게 줄 것이 없느니라.

나는 항일전에 나선 이래 오늘까지 일생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거늘 어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지만 나의 고통을 덜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한생을 헛되이 살았나이까.

그러하도다.

참으로 준절한 타이름이었다. 나는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부산항에 오르던 때로부터 흘러간 30년세월이 엎치락 뒤치락 눈앞으로 밀려들었다. 거기서 나는 내가 두번째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모든 요인을 다시한번 곱씹으며 되새겨보았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일본 오사까에 간 나는 곧 대북을 거쳐 워싱턴에 건너가 있다가 1977년 11월 다시 도꾜에 가서 반박정권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 성명에서 박정권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반민족적이며 외세의존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사실을 성토하면서 박정권의 퇴진과 진실로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민족정권수립을 주장했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할 당위성을 밝힌 후 미력하나마 민족의 자주권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성명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내 인생의 나머지 앞길에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에는 미처 알지도 못한채 망명객의 통탄과 울분을 안고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제 2 장

체 제 는　달 라 도

제 1 절

새로운 민족의 길을 찾아

이북 방문, 그 전야

미국에서의 나의 망명생활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성업에 바쳐보겠노라 새로운 결심을 한 바였으나 기실 그것은 막연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인생 만년(晩年)에 이르러 또다시 겪게 되는 망명생활, 그것은 어릴적에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어달려 압록강을 건너던 때나,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중국 대륙을 전전하던 혈기방장하던 때와는 유가 다른 것이었다. 창해(滄海)에 던져진 하나의 조약돌처럼 외롭고 허전한 여수(旅愁)가 노구(老軀)에 스며들기만 하여 가슴쓰라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리 딩굴고 저리 부딪치다 못해 이제 영영 쓸모없는 폐물로 되고 마는가 생각하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운명이 너무도 야속하고 분통스럽기만 하였다.

나는 허탈감에 빠져들어가려는 자신의 나약한 심기(心氣)를 꾸짖으며, 재미교포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민주민족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저 힘썼다. 「배달민족회」는 내가 새로운 결심을 실천에 옮겨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한편 내가 미국에 온 이후 조국을 둘러싼 내외정세는 더욱 착잡하게 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한때 주한미군철수를 공약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박정희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급격히 늘이기 시작하는 카아터 미행정부의 움직임, 그에 힘을 얻고 더욱 무분별하게 민주세력과 야당에 대한 탄압을 일삼다가 「10.26사건」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한 박정권, 그에 뒤이은 전두환살인정권의 출현과 저 광주의 대참살사건 등 급변하는 정세에서 받은 나의 충격에 대하여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자세히 언급할 생각은 없다. 역전(逆轉)일로를 걷기만 하는 조국의 형편을 놓고 언제면 우리 배달민족이 겪는 이 수난의 역사가 끝장나겠는가고 나는 통탄할 뿐이었다.

조국을 멀리 떨어져 미국에서의 나의 생활은 비교적 평정한 마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내외 정국(政局)의 추이도 객관적으로 관망하면서 그에 대응한 내 견해를 정리하고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태는 더욱 명백해졌다. 전두환파쇼정권의 출현과 광주대학살사건이 보여준 바와 같이 조국의 남쪽땅에서 민족의 삶을 영위하고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완전히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그렇게 된 근본원인은 대아시아전략수행의 교두보로서 한국을 영원히 틀어쥐고 지배하려는 미국정부의 야망에 있다는 것이 더없이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길은 영영 없단 말인가? 이런 모대김속에 빠져있는 나의 시선이 언제부터인가 조국의 북쪽을 향해서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이남의 정치풍토에서는 민족의 길을 더는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박정희정권과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와 상극이라고 믿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북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운 세계였다. 하지만 우리가 민족의 재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통일이라면 그것은 싫건 좋건간에 공산주의 이북과 손을 맞잡는 길이 아니겠는가?

국련(國聯)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많이 집결되어 있고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각이한 정보가 날아드는 미국에서 살면서 나는 종전에 남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북의 형편에 대한 새소식에도 종종 접하게 되었다. 이것이 또한 조국 북반부에 대한 나의 관심을 자극한 객관적 요인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때인 1980년 가을 나는 최홍희총재가 전해준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최홍희총재는 그 무렵 태권도시범단을 인솔하고 이북에 갔다 왔는데 그로부터 오랫동안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던 본인의 선친이 이북에서 여생을 평안히 보내시다가 이북 당국의 각별한 관심아래 「애국지사」라는 높은 호칭까지 지니시고 잘 안장되어 있다는것을 전달받은것이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과거지사를 불문에 붙이고 성의로 대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남에 있을 때 군(軍)생활을 오래도록 같이 하고 미국유학도 함께 하여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근하며 믿고 지내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같이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최총재의 우

의에 넘치는 다정한 전갈은 나에게 있어서 미지의 앞날에 대한 그 어떤 계시(啓示)처럼 안겨졌다.

최총재의 말을 듣고 보니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의 북변땅 그 어느 곳엔가 지하에서 영면(永眠)하고 계실 선친의 모습이 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원래 나의 아버님은 민족운동에 일생을 바친 분이지만 고루하고 협애한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 천도교 가문에서 자라난 아버님의 신앙이 그리고 너그럽고 원만한 그 천성이 그를 배타적인 극우익의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었다. 아버님이 8.15전 상해임시정부에 계시면서 주로 민족진영의 단합을 위해 힘쓰신 것도 8.15후 남북의 협상과 화해에 힘을 기울이신 것도 바로 그러한 정치적 입장의 표현이었으리라.

그러기에 해방후 서울서 아버님은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으나 언젠가는 회오(悔悟)하는 날이 있으리라고 믿으시었던지 말씀 한마디 한 일이 없으시었다. 그러시던 아버님이 「덕신아, 지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선친의 묘소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남에서 민족의 길이 막혔다면 이북에서라도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설사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그것이 민족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나의 신념과 명분을 걸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회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온 것이다. 궁하면 통하고 찾는 자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언(俚言)이 공연한 소리인 것 같지는 않다. 뜻하지 않게 나에게는 한장의 서신이 날아들었으니 이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에서 조선노동당 6차대회가 제기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이남의 제 인사들과 해외인사들에게 서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의한 내용의 서한이 본인에게도 보내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북방문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서한에 접하자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고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민족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통일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 우선 감사하였다. 사실상 그것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시들어가는 고목에 새로운 생명수를 안겨주는 것과 같은 고마운 손길이었다.

나는 새로운 생기를 얻었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북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다. 아뭏든 나는 이 새로운 길잡이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나의 이북방문은 이렇게 하여 마음 다져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심한다는 것과,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과의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마음속 한모퉁이에 뿌리깊이 잠재해 있는 이북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이북관이란 한마디로 의혹의 장막속에 싸인 미지의 사회, 민족적인 것과는 상반되는 이질적인 사회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러한 이북관에서 오는 반작용이라 할까, 이북땅, 이북사람들이 이 늙은 낭인(浪人)을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위구심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8.15후 서로가 너무도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오랫동안 이남의 중요 직책에 관여해 왔던만큼 이북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였다.

물론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점이고 또 괴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괴로움에서 도피할 수 없었으며, 또 굳이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치욕으로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날의 그 욕된 자신의 행적에 발뒤꿈치를 잡히고 싶지 않았으며,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처사는 이북사람들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의 이북방문 계획에 대한 제동적 작용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나의 이북방문을 백안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러저러한 위협, 협박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나와 비교적 면식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마치 내가 그 무슨「범의 굴」속에라도 가는듯이「위험하니 재고려해 보라」는 권고가 왔다.

나는 1948년, 나라의 분단위험을 막으려는 일념을 안고 평양으로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나는 38도선을 베고 쓰러

지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한 백범선생의 용단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고무하였다.

본인이 이북방문의 길을 떠나기 몇달전, 정확히는 1981년 3월, 이남의 재향군인협회 이맹기회장으로부터 그해 10월에 있을 「국군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받았다. 나의 이북방문을 저지하려고 전두환정권이 내게 던지는 추파가 틀림없었다. 이에 대해 나는 모멸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최덕신이 뭔 깃발을 들고 그 무엇을 구걸하러 그곳에 다시 찾아가겠는가」라고.

본인은 이남에서 쫓겨난것도 아니며, 그 무엇을 배반하고 변절한 것도 아니다. 나는 결코 민족을 떠난 것도 아니며, 조국을 저버린 것도 아니다.

나는 민족을 욕되게 하는 길을 더는 지속할 수 없어 내 스스로 뛰쳐나온 것이고 뒤늦게나마 나라와 민족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 하던 나는 민족을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내가 가보려고 하는 이북땅 거기에도 내 겨레가 살고 있는 내 조국땅이 아닌가.

문제는 내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는데 있다.

「백번 듣기가 한번 보기만 못하다」(百聞不如一見)했으니 내스스로 그곳에 가보자, 가보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나는 이북방문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밝음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던 내 마음을 보낼 것이니라」(不知明之所在어든遂余心於其地)하라는 천도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운명의 길에 자기 몸을 던졌다.

첫 인상

본인이 처음 평양 공항에 도착한 것은 1981년 6월 22일이었다. 공항은 서방의 한 도시의 비행장에 비길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동승해온 많은 외국손님들이 기체에서 내릴 차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눌러앉아 그들이 다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다음 행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노라 부심하고 있었

다. 어쩐지 갈마들기만 하는 긴장감을 덜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최덕신선생이 아니십니까? 먼저 내리실 차비를 해주십시오.」

많은 외국손님들의 눈길이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저으기 당황하였다.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내자를 따라「트랩」을 내리었다.

그런데 또하나 뜻하지 않은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하여 여러 인사들이 마중나와 서있는 것이었다. 그들 한분 한분이 다가와 차례로 나의 손을 친절히 잡아주었다. 그리고 귀엽게 생긴 소녀가 달려오더니 인사를 하고 화원에서 방금 따온 것 같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겨 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마중 나온 인사들 가운데는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임춘추씨(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기도 하다.), 정무원 부총리 정준기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허정숙씨 등 고위간부들이 있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왜냐 하니 본인으로 말하면 한낱 망명객에 지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으로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나에 대한 이들의 마중은 어느 외국의 급높은 대표단을 마중하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닌가? 기실 이날 동승해온 외국손님들 가운데는 외국의 공식 외교대표단도 적지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이남에 있을 때 다년간 외교관으로 일한적이 있기 때문에 의전 관례에 몸배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우기는 미지의 이북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인지라 될수록 자기「체모」도 지켜보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았을 때 어쩌면 서먹서먹한 감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것은 미국이나 서독 혹은 일본이나 호주의 공항들에서 잡은 외교적인 이방인의 손길이 아닌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우기 꽃다발을 안고 달려나온 어린소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 내 손자 손녀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져 가슴 뭉클해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의 참의미가 심장 가득히 스며드는 것 같았다.

비행장에서 평양시내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였다. 달리는 차안에서 연도따라 펼쳐지는 가지런히 가꾸어진 논밭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으나 나의 심중(心中)은 방금전 공항에서 받은 충격에 의연히 사로잡히고 있었다. 얼마후 연도 양켠에 빨간 진주알이 무더기로 피어난듯한 앵두나무가 줄줄이 늘어선 것을 보고 나는 너무도 희한하여 동승한 안내자를 향하여 말문을 열었다.

「저것 앵두가 아닙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두는가요?」

안내자는 말했다.

「저것들은 부근 학교 아이들이 제손으로 가꾼 것이랍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따금씩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앵두나무숲은 모두 합하면 자그만치 십리 거리는 잘 되는상 싶었다. 그 숲에 잇달아 평양시가가 펼쳐지는 것이다.

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러저러하게 얻어들은바 있기는 하지만 역시 첫눈에 안겨온 것은 전쟁때에 잿더미로 화했던 폐허를 헤치고 용케도 일어섰다는 것이었고 언제 전쟁이 있었던가 싶게 온 시가에 수림이 우거지고 있는 것이었다. 구태여 전쟁의 자취를 눈여겨 찾아본다면 건물들의 건축연령이 모두 젊고 도로나 도시구획이 큼직큼직 규모있게 설계되어 있는 신흥도시의 색채가 강하게 풍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전후 28년이라는 세월, 그것은 분단의 역사로 치면 지루하고 긴 세월로 되지만 건설의 역사로 치면 한세대도 못되는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새삼스럽게 인간의 힘의 위대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전쟁보다 평화와 건설의 힘이 더 위력하다는 그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상 싶었다. 그럴수록 나는 군인출신으로서 전쟁당시 미군의 초토화전술을 잘 알고 있었고 이북땅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하던 미군장성들의 말이 상기되어 쓴웃음을 지었다.

특히 나의 주목을 끈 것은 평양이 내가 상상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매우 조용하고 안정된 도시라는 것이었다.

사실 당시까지 내가 품고 있던 평양에 대한 표상이란 사회주의이북의 수도이니만큼 「혁명의 북소리울리는 붉은 도시」로서 마르크스나 레닌의 사진이 여기저기에 나붙고 있으리라. 그리고 거리는 모름지기 곡괭이나 삽을 든 노동부대로 소란스럽게 들썩할 것이라는 것

등등이었다.

그러나 평양은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러시아식 풍경이란 눈을 닦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서울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거리에 나붙은 간판들이 모두 우리 말로 되어 있고 여인들의 한복차림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가 고작이라고 꼬집는 말도 들은바 있어 눈여겨보았으나 그들은 각가지 색깔의 옷차림으로 현대적 멋을 띠고 있음이 완연하였다. 이따금 붉은 넥타이를 걸친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노래부르며 수양버들 늘어진 보도를 지나는 것이 「공산주의적 붉은 도시」의 색다른 풍경으로 안겨졌을 뿐이다.

수양버들, 확실히 평양은 수양버들의 고장이다.

고구려의 옛 도읍이었으며 예로부터 버들이 많다 하여 일명유경(柳京)으로도 일컬어진 옛 정취를 풍기기라도 하듯 푸르싱싱한 수양버들이 연도따라 실실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쪽에서 많이 보는 향취 높은 은행나무들이 새로운 가로수로 등장하여 유서깊은 이 도시의 풍경을 한층 돋구어주고 있었다. 여기저기 로타리 한가운데 소담하게 꾸려진 화단들이며 아파트 창가마다에 피어나는 갖가지 화초들도 공해가 심한 서방 도시들에서는 보기드문 현상이다.

나의 마음은 어지간히 가라앉았다. 아니 나의 마음은 무엇이라 형언하기 어려운 감흥으로 하여 저으기 설레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저녁 나는 나의 평양도착을 환영하는 첫 인사차로 마련하였다는 연회에 초대되었다. 장소는 대동강반에 우리 민족고유의 정각처럼 꾸려진 "옥류관"이란 곳이었는데 대중용 국수집이기도 한 이 식당은 구슬처럼 맑게 흐르는 대동강가에 세워진 것이라 하여 "옥류관"이라 한다 하였다. 그럼직한 이름이었다.

낮에 공항에 마중나왔던 분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제는 구면인듯 더욱 자연스럽게 맞아주었다.

이 사람의 이북방문을 환영한다는 열렬한 환영사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잔을 나누면서 감회를 새로이 하였다. 오가는 이야기는 범상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좁아져간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옛친지를 오래간만에 만난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로 잡혀가는 느낌이었다.

우리의 첫 인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담이 될지 모르나 자고로 이름 높고 북미주에 사는 평안도 출신

동포들이 못내 자랑하던 "평양냉면"이며 "대동강 숭어요리"의 진미를 맛보게 된 것도 이날이 처음이었다.

나에게 마련된 숙소는 녹음우거진 모란봉기슭, 청류벽을 감돌며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였다.

이날 저녁 나는 자리에 누웠으나 오래도록 잠들지를 못하였다. 이북방문 첫날에 받은 인상이 뇌리(腦裡)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그럴수록 한편으로 잊혀지지 않는 욕된 과거지사가 상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허두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이역만리에서 갖은 풍상을 겪다가 조국의 광복을 맞고 마치 개선용사처럼 부산항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 당한 치욕스런 〈대접〉에 대한 회상이 모두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풀죽어 모대기던 노병(老兵)이 내디딘 새 길위에서 받은 첫날의 흥분에 언제까지나 포근히 잠겨있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두손 모아 한울님에게 이북방문이 보람있게 끝나게 되기를 마음으로 빌었다.(心告)

제 2 절

혈 연 의 정

동 포 애

나는 1982년 봄에 다시 이북을 방문하였다. 그러므로 두차례에 걸쳐 이북에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종합해서 그곳의 실정과 그에 대한 나의 소감을 피력하려고 한다.

먼저 말하고 넘어갈 것은 이북사람들이 무척이나 친절하게 나를 대해준 것이다.

나는 이북을 방문하면서 그 어떤 대접에 대하여 기대한 적도 없으며 또 그런 것을 바랄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관심한 것은 이북사람들이 이 최덕신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이북사람들의 대접이란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어떤 「물질적인 대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이 보여준 인정세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는 두차례에 걸치는 이북방문 기간에 탁아소, 유치원으로부터 각급 학교와 공장, 농촌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어린이로부터 노동자, 농민, 가정주부, 공무원, 학자, 고위인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심장의 교류였으며 마음의 교감이었다.
유치원을 찾으면 철없이 뛰놀던 어린것들이 「와—」 하고 달려와 이 사람의 두팔에 서로들 안기며「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매어달리었고 학교를 찾으면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경례하고 꽃묶음을 안겨주었으며 노래와 춤으로 이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려 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건강에 대해 물었고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가족형편에 대해 형제처럼 염려해 주었다. 마치 그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돌아온 의사(義士)나 지사(志士)에 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북사람들의 남다른 친절성에 대하여 어떤 외국사람은 그것을 조상전래의 유교적 전통의식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이북 특유의 집단주의교양의 짜임새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려 하기도 하는 것을 나는 들은바 있다. 전자나 후자나 외국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본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시각으로서는 나와 같은 불운아에 베풀어진 이북사람들의 인정세계의 진의(眞意)와 그 본원(本源)을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도 처음 며칠동안은 이북사람들의 호의와 친밀성에 대하여 그저 「과분한 대접」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리고 더러는 내심(內心) 어디서인가 의심쩍은 감마저 들기도 했었다. 말하자면 「최덕신을 삶아 놓기 위한?」, 「최덕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순간 나는 내 자신을 저주하며 몸서리를 쳤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천도교인으로서 차마 생각할 수 없는 패덕한의 심사로 되기 때문이다.
이 못난 최덕신에게 무엇이 있는가?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아닌가, 그런즉 이 사람에게 무슨 이용가치가 있단 말인가? 스스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의 막바지 고비에서 폐물로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그 무슨 가

치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는가? 혹시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속죄할 수 있고 미력하나마 여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답게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바라고 있으며 또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뭏든 나는 며칠 가지 않아서 이북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혈육의 정, 동기(同氣)의 우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감득(感得)할 수 있었다.

참으로 인생 고희(古稀)에 이르러 난생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동포애에 넘치는 살뜰한 마음씨에 이 노병은 몇번이고 뜨거운 것을 삼켰는지 모른다.

그것은 어릴적부터 겨레의 품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 이방인들 속에서 외롭게 방랑하였고 오늘 역시 쓰거운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서 오는 그 어떤 감상적(感傷的)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이북사람들이 너 나의 간격을 두지 않는 그런 순후하고 뜨거운 마음씨들에서 무엇으로써도 지울 수 없는 피의 유대, 한 조상의 핏줄을 이은 단일민족의 연계, 동포라는 것이 발산하는 일체감을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읽을 수 있었다.

어느 한 일요일, 나는 이미 친숙해진 허정숙서기국장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한담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두번째로 이북에 갔을 때 허정숙여사는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승진되어 일하고 있었다.)

허정숙여사는 일제시기 신간회(新幹會) 운동때부터 8.15후에 이르기까지 서울정계에 널리 알려진 허헌(許憲)씨의 따님이다. 나이 일흔이 넘었으나 곱게 늙어 매우 건강해 보이고 젊은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엿보이는 단정한 용모였다. 일찌기 청춘시절에 신여성운동에 투신하여 8.15전에는 한때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해방후 평양에 돌아와 오늘까지 정계의 요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여사의 간단한 경력이다.

그러니 우리의 한담은 자연히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의 고달픔과 설움, 겨레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문제를 다치다가 민족의식 또는 동족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데로 화제가 옮겨졌다.

「그것은 논리 이전의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에 바탕을 둔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저두 해외에 있을 때 자주 체험한 일이지만 어쩌다 조국에서 온 동포를 만나면 무턱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구,

막 반갑기만 하더군요.」

동족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을 어떻게 이치로만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허정숙여사의 의견이다. 하지만 동족의식은 단순히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공동생활과정에 인간의 이성(理性)이 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의식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고 여사는 덧붙여 말하였다.

나는 말없이 머리만 끄덕이었다.

이북사람들의 친절성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한 핏줄을 이어온 동포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동포애란 다름아닌 자기의 부모처자와 형제자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어우러진 것임을 가슴 후덥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의 등차란 없다.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고이 기르고 참되게 이끌려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다. 예로부터 한 조상, 한 핏줄을 이은 우리 겨레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 그 어디에 있건 그리고 비록 주의주장이 같지 않고 살고 있는 사회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머니 한품안의 한 형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북사람들의 혈연의 정을 나는 내 선친의 묘소를 찾으면서 그리고 고향 방문에서 더욱 생동하는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

성 묘

선친의 묘소를 찾는 문제는 첫 이북방문의 중요목적의 하나였던 것만큼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선친의 묘소부터 찾고 싶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이북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묘부터 하겠다고 제기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예로부터 매사는 간주인이라 했으니 주인측의 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평양 도착 다음날, 안내자가 찾아들어 먼 여행에서 피곤하겠지만 선친의 성묘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나의 내심을 그토록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고마왔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선친의 성묘부터 먼저 하도록 일정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다는 김일성주석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내측에서 알렸는지 생전에 선친이 일하시던 「재북평화통일촉진

협의회」에서 몇몇 분들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선친의 묘는 평양시 동북쪽 교외인 용성구역에 있었다. 양지바른 남향에 큰 노송과 다박솔이 어울려 우거진 산허리였다. 전망도 거치는 것이 없이 환하게 트이고 누가 보아도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자리임이 분명하였다. 크게 봉분(封墳)한 묘를 중심으로 시멘트말뚝 울타리가 빙 둘러 있는데 잡초 한대 없이 곱게 다듬어진 잔디가 푸른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이미 최홍희총재로부터 전문한바 있기는 했지만 선친의 묘소가 이처럼 훌륭히 꾸려지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더우기 높이가 1m도 넘는 번듯한 비석에 「애국지사 최동오」라고 새겨져 있는 묘비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발길을 멈추었다.

애국지사! 이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인가. 이런 호칭은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것도 아니며, 또 그 어떤 개인이 수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릴적부터 빼앗긴 나라를 찾자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선친을 애국자로 숭앙했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천도교인이었고 민족주의자였다.

그런데 아버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공산주의이북당국으로부터 애국지사라는 가장 고상한 영예를 받아안으신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만일 선친께서 이남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훌륭한 호칭으로 여생을 빛내일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반일독립운동에도 참여하셨고 상해임시정부에도 관여한 바 있는 선친께서 8.15후 귀국하여 겪으신 고초와 모멸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선생, 여운형선생을 비롯하여 가깝게는 장준하씨에 이르기까지의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비명횡사한 사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차원에서 애국자를 가려보는 이북당국의 처사가 더없이 고마와 머리가 수그러졌다.

원래 본인은 천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천도교식으로 깨끗한 놋그릇에 청수 한사발을 떠놓고 제를 지낼 염이었으나 이북 당국에서는 나의 성묘를 정성껏 도와주었다. 동행한 분들이 큰 돗자리를 펴고 제상을 차렸는데 갖추어진 제물도 훌륭하거니와 그 제물들을 차리는 솜씨가 범절을 따지는 지난날 봉건유가들의 솜씨를 방불케 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어릴적부터 떠돌아 다니는 몸이었고 천

도교를 믿는다 하여 그런 유가적 범절에 대해서는 거의 무식에 가까운 편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눈여겨 보았다.

천도교식으로 하겠다는 나의 의견도 있었기에 큰 놋합에 이름난 약수라는 청수를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선친의 묘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갖가지 회억들이 가슴을 쓰리게 하였고 불효막심한 자신이 뉘우쳐져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선친과 헤어진 것은 32년전인 1949년이었다. 그때 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작별인사를 올린 것이 아버님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본인이 이남에 돌아갔을 때 이미 아버님께서는 이북으로 가신 뒤였는데 떠도는 말인즉 납치되어 가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김규식선생과 함께 이북에서 모셔간 것이라고 귓속말로 타이르듯 말씀했고 아내 역시 아버님께서 갈아 입을 옷가지를 가져오라는 기별을 하셨기에 차도 없어 걸어가노라니 이미 아버님께서는 김규식선생과 함께 길을 떠나신 뒤였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어느 말이나 오십보, 백보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온 뒤 그분들은 대개는 이북측과 협조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 표명한 분들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태의 귀결은 달리는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나의 어머님이 귓속말로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북으로 넘어가신 선친께서는 그후 별세하기 얼마전에 「덕신이 못된 놈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옳은 길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아버님께서는 이 못난 자식을 그토록 믿고 기다리며 계셨던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효막심한 죄덕신이다. 만일 내가 좀더 일찍 선친의 뜻을 따랐던들 선친께서는 더 오래 생존해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선친의 영전에서 어릴적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매를 맞으며 꾸중을 듣던 때의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

장인 유동렬선생의 묘도 선친의 묘가까이에 있었고 김규식, 안재홍

등 6.25때 월북한 제 선생들의 묘도 나란히 있었다. 묘들에는 선친의 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애국지사」라는 묘비가 큼직히 세워져 있었다.

나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노인네들이 죽어도 광복된 조국땅에 뼈가 묻혀질 것을 바라던 그 절절한 심정을 어려서부터 너무도 많이 들어온 터이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 나이 많은 분들 역시 통일된 조국땅에 묻혀질 그날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민족의 넋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애절한 소원이 바로 여기 이북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의주장, 정견을 가리지 않으며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다같이 한품에 안아주는 것 이것은 흔히 말하는 「관용」과는 차원이 다른 혈연에 기초한 의리이고 사랑이라고 나는 믿는다.

수십만 재일교포가운데서 대부분이 이남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도 대거 이북으로 귀국했고 또 귀국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사랑의 품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아뭏든 이 사람은 선친의 묘소를 찾는 과정에 넓고 넓은 이 겨레의 품을 현실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건, 민족주의건 그것이 민족을 위한 애국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이의 간격이란 결코 뛰어 넘을 수 없는 심연(深淵)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서로 상통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민족과 조국은 다같이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준다는 그것이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서는 나를 바래우면서 이곳 묘지 관리인이 나직이 말하였다.

「앞으로도 염려마십시오. 이남이나 해외에서 성묘를 못오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한식이나 추석에도 우리가 계속 잘 돌봐드리겠읍니다. 통일이 되어 형제분들과 자제분들이 다같이 성묘하게 되는 날까지 성의껏 돌보아 드리겠으니 마음 놓으십시오.」

나는 뜨겁게 그의 손을 잡으면서 머리 숙여 감사하였다.

50년 만에

본시 이 사람은 이북에 가면서 고향방문 같은 것은 계획하지도 않

았었다. 옛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거나 찾아보고 싶은 일가 친척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50여년간이나 떠도는 생활, 그 어느 날에도 잊어본적이 없는 고향이다. 옛 집터라도 한번 다시 보고싶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을 사람들의 묘지라도 찾고싶었다. 이제는 칠순도 훨씬 넘은 막내이모님에 대해서도 생사를 알고 싶었고 그 자손들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고향방문을 굳이 제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자는 범을 깨워놓고 피해를 입는 격의 망령을 삼가하자」는데 있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난날 북과 적대되는 길을 걸어온 이 사람으로서는 고향땅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이러나 저러나 화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었고 요행 본인과의 인척관계를 숨기거나 모르고 편히 사는 경우에는 구태여 사실을 노출시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북 체류기간 그곳 물정을 어지간히 알게 되자부터 고향마을을 찾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다.

나는 여러번 망설이던 끝에 옛날 내가 살던 고향마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는 뜻을 한번 슬며시 비쳐보았다.

「아, 그러면 가 보셔야지요」라고 안내자는 어렵지 않게 대답하였다. 오히려 그쪽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안되었다는 뜻의 말도 하였다. 여러번 생각하고 재어보면서 어렵게 발설한 문제가 너무도 쉽게 풀리니 오히려 내편에서 당황할 지경이었다.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취해지고 별반 준비할 것도 없어서 나는 손쉽게 50여년만의 고향길에 오르게 되었다.

본인이 태어난 곳은 평북 의주읍에서도 약 70리가량 들어간 고작해서 인가라고는 서너채밖에 없던 외진 산골 검은골이다. 여기에서 아버님은 서당을 세우고 은거하시면서 나라를 찾기 위한 구국의 뜻을 키우신 것이다.

이미 내나이 70고개를 바라보는 노구(老軀)이지만 기구한 운명의 길을 헤매다가 50여년만에 옛고향을 찾게 된다고 생각하니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 설레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긴장한 일정 사정을 고려하여 당국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헬리콥터로 날으니 눈아래에 펼쳐지는 산과 강, 가없이 푸른 하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야, 조국의 모든 보배로움이 한가슴에 안겨지

는상 싶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헬리콥터가 내려앉은 곳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던 바로 그 서당골이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초라한 몇채의 집들은 헐리워지고 주위가 새롭게 다듬어졌으나 눈에 익은 그 지형이야 어디 가랴. 거기는 틀림없는 서당골이었다.

나는 옛날 서당이었던 집터로 뛰다시피 달렸다. 그리고 옛집터 그 흙을 두손으로 긁어안고 코에 대고 볼에 대고 부비고 또 부비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솟고 또 솟았다.

아버님, 어머님의 젊은 꿈이 스며있고 내가 나서 태를 가른 고향의 전야, 망국의 설움안고 기약없이 떠나면서 눈물 뿌린 그 흙내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단순한 향수(鄕愁)가 아니였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에 대한 민족적 비원이었으며, 자기 향토에 대한 서민적 애착이었다.

나는 평생토록 맺히고 서렸던 그 모든 마음의 한(恨)을 이 흙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눈물로써 씻었던 것이다.

동행한 분들이 달래이듯 나를 일깨웠다.

샘터가 생각나서 물으니 가리켜주었다. 덕수탕이었다. 천도교인으로서 청수를 귀히 여기시던 아버님이 이 깨끗한 샘물을 「덕수」라고 불렀는데 예나 다름없이 샘은 쉬임없이 맑게 솟고 있었다.

샘터가 정결하게 꾸려지고 있는 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알뜰한 손길을 말해 주는 것이리라. 샘물을 한곱뿌 떠 마셨다. 옛맛 그대로 이빨이 시릴 정도이다. 동행한 분들도 함께 마셔주었다.

덕수 샘터 바위에 걸터앉아 있노라니 어렸을 때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오솔길을 헤치고 바위짬을 빠져다니던 남창동 외가집이 못내 그리워졌다.

남창동은 걸어가면 한나절은 실히 걸리는 길이었으나 다시 헬리콥터로 날으니 5분만에 남창동 상공에 이르렀다. 훌륭하게 재건되어 몰라보게 변모했으나 역시 남창동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낯익은 남창천기슭에 내려 옛 기억을 더듬으며, 남창동마을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언제 벌써 기별이 있었는지 멀리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두 젊은이의 손에 이끌리어 허둥지둥 달려온 늙은 여인 한분이 내 앞에 다가섰다.

막내이모가 틀림없었다.

어렸을 때 손목잡고 남창천 냇가에서 소꿉놀이도 함께 하고 걷다가도 발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 업어주곤 하던 그 이모 혹시 서당

에서 훈장에게 종아리를 맞고 돌아온 때면 그 매맞은 자리에 침을 발라주며 달래주던 바로 그 그리운 막내이모였다.

어린 시절의 갖가지 추억을 담은 그 막내이모가 방금 내 앞에 다가선 것이다. 신통히도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이모였다.

「이모님, 나 종호올시다. 알아 보겠읍니까?」종호는 나의 아명이다.

「종호라니, 어디 보자, 어디………」

이모님은 주적거리며 와락 나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느끼신다. 이 사람도 말문을 열지 못한채 이모님의 손을 꽉 잡고 흐느끼기만 했다.

한동안 지나서야 소개가 되었다. 이종 사촌동생, 외육촌, 제수, 조카들이었다. 처음엔 좀 서먹서먹해 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맥맥한 혈육의 정은 곧 형님, 동생, 제수, 아주버님으로 정의(情意)가 통했다.

내가 오래 사니 조카를 다 만나본다면서 어미 빼는 어디 두고 혼자 왔느냐? 손자애들이라도 데리고 올 것이지 자식들은 몇이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라고 하시는 이모님의 말씀은 푸념 절반 노여움 절반 끝이 없었다.

얼마동안 걸어서야 외가집 자리에 당도했다. 눈에 익은 연자방앗간 자리에는 밑돌만이 남아있고 그 저쪽옆에 수시로 퍼마시던 샘물이 의연하였다.

꿈 많고 장난 많은 유년시절을 보내던 갖가지 옛 추억이 가슴에 파고 들었다.

의주에서 3.1만세 운동에 참가하고는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하여 여기 남창동에 잠시 와 계시다가 중국땅으로 떠나시던 아버님의 모습, 매일 아침 집뒤에 있는 밤나무밑에 가서 밤송이에 찔리면서 밤을 주어 아버님께 보내드리겠다고 하던 일, 밤이면 자주 나타난다는 호랑이를 잡겠다고 을러메던 철없던 시절… 추억은 해일처럼 밀려들며, 맴돌이쳤다.

나는 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는양 그때처럼 샘물을 퍼마셔도 보고 어릴적 즐거운 놀이터였던 넙적바위에 걸터앉아 눈앞의 도암산이며 뒤켠 삿갓봉도 훑어보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거늘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어찌 변한 것이 한두가지겠는가.

실개천옆의 소바퀴길이 널찍한 차도로 변했고 인간이 그립다던 이곳에 아담한「문화주택」이 줄지어 들어섰으며 마을 한복판엔 학교와 진료소(병원), 상점들이 자리잡고 있다. 농촌마을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꾸려진 산간휴양지같았다. 그 옛날 실개천에 지나지 않던 남창천은 큰 수로(水路)로 변하였다. 관개용수로 이용된다고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여러군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있었다. 여기저기서 트랙터엔진소리가 메아리친다. 이런 산간벽지에도 기계가 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외육촌 집에서 점심이 차려졌다. 소박했으나 정성들인 성찬이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셈이다.

이종사촌 맏이는 노동당 신의주시당 지도원이라 했고 둘째는 신의주신발공장 노동자라 했다. 육촌동생 한사람은 대학을 나와 학생소년궁전의 무용지도원으로 일하고 다른 한사람 역시 대학을 나오고 의학박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육촌 되는 맏이는 그곳 농장 농산분조장이고 작은이는 과수분조장이라는데 모두 통신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늠름하고 의젓하였다.

나는 다시한번 겨레의 품, 그것의 은혜로움을 생각하였다. 그럴수록 내가 그들을 두고 「적성가족」(敵性家族)으로서의 「화」를 염려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통절히 느꼈다.

나는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곧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 앉은 이모님은「조카가 먹다 남기면 내가 먹겠으니 어서 들라」고 연방 음식 그릇을 당겨놓으며 극성스레 권했다.

입쌀 한줌 울궈서 팔촌까지 나누어 먹는다던 그런 고장에서 지금은 부러움없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외육촌 작은 제수가 보이지 않기에 물으니 평양에 있는 친정에 갔다가 해산하러 산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한한 일이다.

50년만의 고향길, 그것은 눈부시게 재건된 고향땅의 변화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혈육의 품, 동포의 품, 조국의 품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제 3 절

전통은 살아 있다

핏줄과 민족어

앞에서 본인은 선친의 묘소를 돌아보고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에 이북사회에서 어머니품과 같은 혈연의 정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북사회는 그리도 민족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사회는 정치의 소산이고 정치는 이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북사회를 낳은 정치적 이념, 즉 그들의 민족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남사회나 해외교포사회에서는 흔히 이북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관에 있어서도 마르크스주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도 마르크스주의적 민족관이 어떻다는 것을 잘은 모르면서도 아뭏든 막연하게 민족적 연관을 홀시하며 민족적인 것을 배격한다는 그런 유의 인식에 동조하고 있었던 터이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허정숙여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구라파식 견해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스탈린의 유명한 저서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한 심리적 공통성이 민족을 형성하는 필수요건이라는 것이며, 이들 네가지 요소가운데 어느 한가지가 결여되어도 민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정숙여사는 이 견해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경제생활의 공통성이며 혈통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즉 그런 견해에 따르게 되면 우선 민족형성의 역사적 시점이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하여 문화생활 특히 경제생활의 통일성이 실현되는 시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구라파의 제 민족이 발달해온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일리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늘까지도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실현하지 못한 많은 후진 민족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들은 상금도 완전한 민족이 아니라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 민족의 경우도 사정은 같은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런 견해에 따르게 되면 망국의 설움과 분단의 비운으로 일본이나 미주, 구라파 등 각지 해외에 널려있는 해외교포들은 더 말할 것 없고 남북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상황하에 있는 북과 남 역시 하나의 민족으로 될 수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실로 가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허정숙여사는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족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혈통과 언어의 공통성이 기본핵으로 된다는 주체적인 사상을 내놓으셨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불멸의 생명원(生命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자랑찬 유구성과 고유성은 다름아닌 혈통과 언어의 단일성에 있으며 그것을 생명으로 고수한데 있다. 일제식민지 통치자들이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그토록 발악했지만 끝까지 앗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핏줄과 말과 글이었다.

이북사람들의 뜨거운 동포애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자주적 기혼(氣魂)의 응당한 발현이며 우리 민족의 본연(本然)의 민족상의 부활,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에게는 이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남사회에서 날로 이즈러져가고 있는 민족의 피와 언어 현상에 대하여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 40년에 가까운 미군 주류(駐留)로 말미암아 혼혈사생아가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제와서는 「국제결혼」이라는 것까지 버젓이 합법칙성을 띠고 날로 성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는 영어, 일어 등 잡어(雜語)투성이로 되고 있으니 이 통탄스러운 사태

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명원을 좀먹고 파괴하는 전율할 민족이질화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남의 역대 집권층은 저희가 민족의 정통성(正統性)을 지키고 있고 이북에서 민족의 동질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 논거는 체제의 이질화이다. 즉 이북에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고유한 모습이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혈통과 언어의 공통성을 민족표징의 핵으로 보고 경제, 문화 생활의 공통성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표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남의 집권층은 그보다도 체제문제를 우위에 놓고 있으니 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남의 집권층이야말로 구라파식 견해, 찍어말하면 스탈린식의 민족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민족적 공통성의 여러 징표가운데서 핏줄의 공통성을 민족을 연결시키는 선차적인 유대로 간주하고 있는 혈통에 대한 이북의 주장은 지난 시기 「피의 순결성」을 부르짖은 나치스독일의 인종론적 견해따위와는 인연이 없다. 물론 이북에서는 이남에서 대량 출생하고 있는 혼혈아와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핏줄의 공통성문제가 그러한 단순한 혼혈방지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는 보았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동족에 대한 깊은 애착과 배달사람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문제에 귀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배타주의적인 협소하고 옹졸한 이념은 아니다.

이북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만큼 다른 민족의 혈통을 존중한다. 그들 속에서는 외국인 특히 흑인을 멸시하거나 깔보는 현상이 전혀 없다. 이북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유다른 친선관계를 이런 문맥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백인종에 대하여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존경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다만 대등하게 친선을 도모하는 입장이다. 최근연간에 서독, 불란서, 이태리와 북구라파의 각국에서 이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사람들은 그들이 부러워서 코를 높이 만들거나 유방을 크게 하는

수술에 염치없이 달라붙는 그런 놀음은 꿈에도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구경 혈통론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핏줄을 이은 배달사람들은 다 내 동포이며 그가 어디에 살건 모든 배달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라는 인식이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이북을 방문한 재일교포들과 만나는 장면을 찍은 기록영화들을 보았다. 그들 특히 청년학도들은 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발을 동동 구르며 감격에 목이 메어 흐느껴 울고 주석께서는 들먹이는 그들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눈굽에 손수건을 가져가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북에서 강조되는 핏줄의 공통성 이론의 생활적인 단면이 아닌가고 나는 생각하였다.

1982년 4월 15일 김주석의 탄생 70돌을 맞는 날에 있었던 일이다.

거리와 공원들에는 갖가지 꽃이 일제히 활짝 피어나고 무거운 겨울옷을 벗어던진 시민들이 화려한 봄날 옷차림으로 거리를 물결쳐가는 평양의 4월은 과연 아름다왔다. 이날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한 모란봉기슭에 있는 경기장에는 10수만의 군중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들었다. 세계 118개 나라에서 온 고위급 축하단이 또한 여기에 참석하였다. 잠시후에 5만명의 학생들이 출연하는 대규모의 마스게임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이날 나는 체육행사를 관람하려고 경기장에 가있었다. 김주석께서 10수명의 외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함께 정면관람대에 등단하시자 유량한 나팔소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국내 각지와 재일동포들의 주석께 드리는 축하문을 안고 평양까지 계주로 달려온 청년들이 김주석께 그 축하문을 봉정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경기장에 입장한 계주대열이 주석께서 계시는 정면단상앞에 이르자 멎어섰다. 매개 단위의 책임자가 주석께 편지를 드리고 주석을 축하하였으며 주석께서는 악수와 포옹으로 그들에게 답례하시었다. 그런데 유다른 복장을 한 한쌍의 청년남녀가 주석앞에 섰다. 안내자가 나에게 70만 재일교포의 이름으로 보낸 대표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그들은 주석의 손을 잡고 놓을줄을 몰랐으며 격렬하게 들먹이는 어깨로 보아 세차게 흐느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주석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들을 포옹하시면서 치미는 격정을 가까스로 참는듯 하시었다. 주석의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프리카 기니공화국의 세코우 토우렌대통령이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나 역시 감동되어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민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리고 이처럼 눈물로써 끌어당기고 끌리우는 힘이 조만간에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동력으로 되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언어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특히 강조하자는 것은 우리 말을 지키고 빛내려는 이북형제들의 입장과 자세이다.
우선 말해야 할 것은 이북사람들이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의 침윤을 막고 우리의 고유어를 살려쓰기 위해 극력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 사람은 두차례에 걸친 이북방문기간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여러 출판물과 학교 교과서들에서 외래어가 자취를 감추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말이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말에는 지난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인한 중국식 한자말과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은 일본식 말이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언어정화사업이 해방직후부터 일제잔재의 숙청과 사대주의양풍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줄곧 강력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유어를 적극 찾아내고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쳐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긴 이북에서도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한자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영어나 불어, 노어 등 외국어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생활과는 별도인 과학기술분야로 될 뿐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케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북에서도 우리 글자가 네모난 글자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고 쓰기도 불편하며 타자와 인쇄기술발전에도 불리한 점이 적지 않다하여 한때 문자개혁문제가 언어학자들 가운데서 대두된 바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게 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엄격히 지적하시고 그 원칙은 정당하지만

그런 것은 통일후의 일로 미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북에서는 민족적 혈통과 함께 민족어도 또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그 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언어문제를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대문제로 보고 있는 이북동포들의 그 확고한 시점에 나는 십분 공감이 갔다.

전통의식

혈통과 언어에 대한 이북사람들의 입장이 이처럼 투철할진대 민족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또한 어떠하겠는가를 나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 걸쳐 이북에서 민족적 전통이 튼튼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의 넋을 보는 것 같아 그때마다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먼저 말하여 둘 것은 그들이 민족적 전통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과거의 것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수구(守舊)성향 내지는 복고(復古)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을 계승하되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발전풍부화시켜 나간다는 거기에 이북사람들 특유의 전통의식이 있는 것이다. 하기는 나도 그것이 옳다고 수긍되었는데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만약 옛날 것 그대로만 답습해 나간다면 사회의 발달은 정지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분야에서부터 보기로 하자.
나는 「만수대예술극장」 혹은 「2.8문화회관」 등에서 진행된 음악무용종합공연에 더러 초대되었다. 여기에서 나의 주의를 끈 것은 관현악에서 양악기와 함께 민족악기가 그 비율로 볼 때 절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민족악기는 민족악기로서의 고유한 음색과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음각에 맞게 개조되고 있었다. 노래와 춤에도 전통적인 민족적 선율과 가락, 율동과 동작이 충분히 계승되어 있으면서도 그것 역시 현대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요를 즐겨부르는데 남도 「판소리」의 탁성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여자의 탁성은 현대인의 음악에서 이미 부자연스럽게 울

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미술박물관에도 안내되었다. 휴전직후에 지은 건물이지만 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나 되는 웅장한 건물로서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내가 본 선진국의 그것들과 대비하여 별로 손색이 없었다.

미술박물관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린 미술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그 부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는 해설자가 국보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면서 하는 설명을 충분히 새겨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고려 공민왕이 그렸다는 「사냥」, 이조시기 화가 김홍도의 그림 「표피도」, 추사 김정희의 글씨 등 몇가지만은 지금도 기억난다.

미술박물관에는 현대조각과 현대화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이남이나 서방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림과는 분명히 수법이 다른 독특한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해설자의 말에서 그것이 「조선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묵화는 어디 갔느냐고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물으니 그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미학적 감각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조선화에서 전통적인 기법은 계승하되 묵화가 아니라 채색화에로 전환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술분야에서도 민족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시대의 추향에 맞게 발달시키는 원칙이 확고히 고수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안목으로 보니 그 「조선화」에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세련된 민족적 체취가 풍겨오는가 싶었다.

어디에서나 민족적 바탕, 민족적 양식, 민족적 정서가 강조되고 있었다.

건축분야에서도 민족적 전통을 충실히 살리고 있었다. 극장이나 도서관, 식당 같은 건물도 그 대부분은 전통적인 조선식 건축양식을 채용하면서 내부시설은 현대화되고 있다. 반대로 다층주택들은 외부는 현대적인 양식이지만 내부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과 감정을 존중하여 온돌식으로 꾸려져 있는 것이다.

전통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상전래의 풍속에 관한 문제이다. 흔히 이남에서나 해외교포사회에서는 공산치하의 이북에서는 조상도 몰라보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이며 문화유물 같은 것은 집어던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선친의 묘소를 성묘하고 돌아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이북에서는 한식이나 추석 같은 때가 되면 가가호호가 온 식솔을 거느리고 성묘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같은 때는 당국에서 성묘 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차량을 총동원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 준다고 하였다.

안내자는 「내남없이 생활이 좋아지니 지난날 고생타가 돌아간 조상들이 마음에 걸려 더 그런 것 같다」고 첨가해서 말하였다.

나는 실지 그런 광경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민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이북의 사회풍조로 보아 능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풍습을 지켜갈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였다.

이북에서도 관혼상제같은 것을 보다 간소화해야 하겠다는 일부 사회적 의견이 이미부터 제기된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규범, 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나친 낭비를 하지 말 것을 각자의 자각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하루 현대생활에 맞지 않는 낡은 인습은 대담하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는가고 말한바 있다.

그랬더니 안내자는 하긴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조상전래의 생활양식과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것이 결코 사회주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감정에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색적인 외풍의 침습을 막는데 있으며 남북간의 민족적 공통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나는 이북 체류기간 주로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나 이따금 지하철을 탄 일도 있다. 그럴 때면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의례히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나에게만 베푸는 친절성이 아니다. 애기어머니, 늙은이들이 누구나가 지니는 「특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원지와 유보도를 산책할 때, 젊은이들이 내 앞을 지날 때면 의례히 머리를 다소곳 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람이 최덕신인줄 알리 없고 또 알았던들 어떠하랴. 간단한 일 같지

만 결코 스쳐볼 일이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민족적 전통에 대한 이북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에서 내가 느낀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체제는 사회주의체제로 달라졌지만 민족은 옛 그대로의 우리 민족이고 민족의 얼이 살아 약동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점이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매우 기쁘기도 한 일이었다.

선조의 역사

평양미술박물관 앞은 탁트인 광장이고 그 광장을 지나 맞은 편에는 건축 양식과 규모에 있어서 미술박물관과 꼭 같은 또 한채의 건물이 서있다. 「중앙역사박물관」이라고 하였다.
역사박물관 정문에서 이곳 관장인 김신숙박사가 우리를 마중하였다. 쉰이 좀 넘어 보이는 유순한 인상을 주는 여인인데 한때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장으로도 있었다 한다.
안내해설은 처음에 미혼여성으로 보이는 젊은 해설원이 맡아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도중에 흥미를 끄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캐어 묻기 시작했더니 같이 다니고 있던 관장 김박사가 직접 나서서 해박한 지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리하여 김박사는 이후부터 자신이 계속 해설원의 역을 해주었다.
박물관에는 원시사회로부터 봉건사회에 이르는 역사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수는 수천점에 달한다고 한다.
진열품가운데는 백제, 신라의 유물도 많이 있는 것 같았으나 역시 고구려의 유물을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북부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더더우기 이북 학자들이 해방후 새로 발굴했다고 하는 유물과 유적은 모두다 38선 이북지역에서 발굴된 것 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의 흥미를 끈 몇가지 유물의 예를 들어본다.
황해남도 안악과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고분(古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고구려벽화앞에서 나는 자주 걸음을 멈추었다. 중세 회화사상(繪畵史上)에서 단연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벽화라고 김박사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서 발굴했다고 하는 석등(石燈)과 발해시기의 백자기며 유약을 바른 질그릇 등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고 발달시킨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였다.

이와 함께 유명한 고려자기와 고려의 옛도읍, 개성 만월대에서 나왔다는 금속활자며 몇해전에 금강산에서 나왔다는 금부처와 금동부처 그리고 오동향로 같은 유물들도 신기하였다.

진열된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유물들로 말하면야 이남이 이북보다 더 풍부할 수 있으며 유적발굴사업 또한 이남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가 분단되어 37년, 남에서는 북에서 발굴되는 역사유물을 알지 못하고 북에서는 남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보지 못하니 원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던 우리의 역사를 통일적으로 연구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마침 김박사가 경주 첨성대를 모조한 진열품을 가리키며 색채가 실물에 비해 어떠냐고 나에게 물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며 나는 민족분단의 상처를 여기 역사박물관에서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렸다.

역사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이 사람이 받은 깊은 인상은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입증(立證)하고 민족의 자랑을 빛내이려고 하는 이북사람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였다.

나는 그들이 새로 발굴했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시원(始源)을 말해주는 유적과 유물을 보고 특히 그런 감동을 받았다. 박물관에는 평양근교 상원군에서 발굴했다고 하는 타제석기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60만년전의 것이라 그들은 추정(推定)했다. 그리고 역시 평양시의 변두리인 역포구역에서 나왔다는 고인(古人)의 뼈와 승호구역에서 발견했다는 신인(新人)의 뼈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유물로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으며 이 땅에서 인류진화의 발전과정이 줄기차게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즉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시원이 북쪽에서 남하하여 왔거나 또는 남쪽에서 북상하여 온 그 어떤 종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땅에 고착되어 살아온 선조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첫 조상을 가진 고유한 단일민족임을 증시하는 것이라고 이북의 학자들은 보고 있었다.

유물들의 고고학적 고증의 신빙성 여하는 딴 문제이다. 그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과 고유성을 돋구려는 그 입장에 나는 스스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이날 박물관 참관을 마치면서 이런 귀중한 역사유물들을 6.25동란시에 보존할 수 있었느냐? 하는 나의 물음에 김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시기에 다른 것은 다 파괴되었지만 역사유물들만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읍니다.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주석을 이북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부르고 있다.)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벌써 예견성있게 모든 진열품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 보관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셨읍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많은 투자를 하여 유적발굴사업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여 주셨읍니다. 우리 박물관이 오늘처럼 꾸려진 것은 이러한 국가적 관심과 조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역사유적발굴과 유물보존사업을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이북 당국의 노력에 대하여 말하면서 김박사는 휴전직후의 어려웠던 시기에 사학자들과 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생들 연 2,000여명이 중국에 파견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낸 사실을 감명깊게 회고하였다.

며칠 후에 나는 민속박물관도 돌아보았는데 거기서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생동하게 재생시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고적들도 찾아가 보았다. 모란봉에 올라가 보면 관서팔경의 하나인 부벽루를 비롯하여 을밀대, 청류정, 칠성문 등이 옛자태 그대로 단청(丹靑)까지 새로 하여 보전되어 있고 대동강변에는 대동문과 연광정, 보통강기슭에는 보통문이 옛모양 그대로 서있으며 대성산에는 고구려의 옛 성벽과 남문이 옛모습 그대로 복구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적 명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곳들도 허다하였다. 임진왜란때 꾀를 써서,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 휘하의 한 장수를 처단한 평양기생 계월향의 집이 있었던 근처를 월향의 이름을 따서 해방후에 「월향동」이라 이름짓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또한 대성산에는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한 연개소문의 이름을 딴 「소문봉」이 있는가 하면 을지문덕장군의 이

름을 가진 「을지봉」이 있고 고구려장수왕의 이름을 가진 「장수봉」이 있다. 모두가 다 옛 선열들을 잊지 않고 애국명인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봉우리 이름을 애국명인들의 이름으로 명명(命名)한 것도 휴전후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이상의 견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대하여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북의 사회주의가 결코 민족의 전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전승(傳承)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제 4 절

민 족 의 존 엄

모스코에서의 소감

자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전통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민족은 자기의 존엄을 지킬줄 아는 법이다.

민족의 존엄이란 민족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소여 민족의 권위이고 위신이며, 민족이 민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근본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존엄은 원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주장하는 자존(自尊)의 터전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주독립이란 다름아닌 바로 민족적 존엄을 지키고 빛내기 위한 민족의 존재방식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남에 있을 때 이북은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말을 예사로 들어왔다. 그리고 일부 식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남이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북 또한 소련이나 중공의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본인 역시 달리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긴 이 사람으로 말하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북정치는 듣던 바와는 다르다」는 소문을 들은바 있으나 그것으로 이북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는 없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북은 공산권에 속해 있다. 지금은 비록 이전처럼 코민테른과 같은 것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동구공산권나라들에서 보는 것처럼 소련 중심주의가 여전하지 않겠는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북은 물론 동구사회주의나라들과는 다르게 큰 나라와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련과 같은 초대국의 압력과 지휘봉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중공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같은 유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중소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두 나라의 틈바구니속에서 이북이 과연 어떻게 줄타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이북방문에서 중요하게 관심한 문제의 하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의혹에 찬 관심은 이북방문도중에 벌써 궤도 수정을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나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이북으로 가는 도중 모스코에 있는 이북대사관에 들렸을 때였다. 소련의 수도 한복판에 넓은 대지를 차지하고 지상 5층짜리 대사관 본청사와 20층짜리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채의 빌딩이 웅장하게 서있는 것이 아닌가. 모스코에 있는 많은 외국공관들 가운데서도 제일 크다는 것이다.

본인이 한때 이남정권의 서독대사로 있을 때 쓰던 낡고 초췌한 3층짜리 건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도 없는 그 건물은 개인이 쓰던 주택이었던 것이다.

더우기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이북대사관 경내에는 한명의 소련사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남의 해외공관들에는 대사의 비서와 운전수들은 주재국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다.

그런데 이북 대사관은 건물의 틀로부터 내부의 인원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판이했다. 그들이 주재국과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 길이 없어도 아뭏든 「겉보기 속」이라고 작은 나라로서는 대단한 위풍

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였다.

물론 대사관 건물이나 거기에 주재국 국민이 고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대사관의 활동, 따라서 그 나라의 대외활동의 자세를 점친다는 것은 경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그마한 나라가 초대국의 수도 한복판에 다른 대사관들보다도 월등하게 위풍있는 건물을 세우고 주재국 국민을 한 사람도 대사관 경내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작은 나라로서 남에게 얕보이지 않으려는 자존의 기풍만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내게는 생각되였다.

나는 이 글 첫머리에서 평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승한 여러 외국 손님들을 제쳐놓고 이 사람을 맨 먼저 마중해 준 사실을 쓴바 있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도 뜻밖이고 또 생각되는바가 있어 어느날 안내자에게 조용히 물은 일이 있다.

「그날 숱한 외국손님들 중에는 국가적 대표단도 있던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유다른 우대를 받은데 대하여 그네들이 혹시 어떻게 달리 생각하지나 않았을까요?」

안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가장 귀중한 손님입니다. 외국사람들이야 어디까지나 남이 아닙니까. 우리는 외국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외교를 한다 해서 우리를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뜻깊은 말이였다. 잘나도 내 겨레요 못나도 내 겨레다. 내 권속이 나에게 가장 살뜰하고 내 겨레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민족애, 조국애가 있고 민족주체, 민족존엄의 힘있는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낮추고 남을 덜어놓고 돋보는 것은 사대주의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는 바로 이 사대주의에 연유하였다는 것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누가 더 외국사람에게 신임을 얻는가에 따라 권세와 치부(致富)의 몫이 좌우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아부하고 외국인에게 빌붙는 이남사회의 망국풍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대(事大)를 불사르다

내가 이북을 방문해서 가장 감명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이북사람들에게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북 체류기간에 각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보았는데 그들에게서 한결같은 것은 민족적 자부와 긍지였다. 남을 무조건 돋보거나 남의 것을 덮어놓고 돋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경향이라도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대병(事大病)으로 거기서는 취급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계율(戒律)과 같은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내것이 제일이다」라는 것이다.

내것 남의 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덮어놓고 내것만이 제일 좋고 내것만이 훌륭하다는「우물안 개구리」식 자세가 아니라 비록 내것이 남의 것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는 제일 소중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 내 밑천으로 살아간다는 산악처럼 굳건한 그들의 신조를 표시하는 말이다.

어떤 사물현상이던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란 없다. 더우기 큰 나라들 사이에 끼워있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뿌리 깊은 병폐로 되고 있던 사대주의를 없앤다는 것이 어찌 간단한 일이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북사람들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자주, 자존의식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만한 일이었다.

사실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이북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해방직후부터였으나 50년대에 들어서까지만 하여도 사대주의경향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가령 어떤 농촌 같은 데서는 이북 자체의 경제발전 계획도표보다 다른 나라 경제도표가 더 크게 나붙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휴양소같은데서는 우리 나라 애국명인들의 사진이나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풍경화가 아니라 외국의 풍경화나 외국명인들의 사진이 나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표면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 나타난 현상밑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자세가 문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런 사실에 깊이 유의하시게 되어 민족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를 뿌리뽑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정신혁명이 아닌가, 나는 이것이 이북방문에서 얻은 가장 값높은 발견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북사람들은 말한다.

「작은 나라일수록 더 민족주체를 세우고 자기 존엄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지휘봉이나 간섭,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어떤 큰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한 상호성의 원칙, 즉 1대 1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 이북의 자세이며 배짱이다.

이북이 자기 존엄을 지키는데서 얼마나 반석같은 입장에 서있는가는 「푸에블로」호사건때의 일이 좋은 예로 될 것이다. 1968년에 이북이 자기 영해권안에 침입한 미군정탐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을 때 미국의 존슨행정부는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원산 앞바다에까지 몰고 가서 「배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폭격하겠다」고 을러멨었다. 그런데 이북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맞서겠다고 응수해 나섬으로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때 남들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자기 배가 붙잡혔을 경우 복수하지 않은적이 없다.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배를 놔주라고 이북에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북당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침입한 도둑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너무 근심말라」는 식으로 딱 잡아떼었다는 것이다.

나는 놀라움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척양척왜(斥洋斥倭)의 동학정신이 이북에서 발현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오늘 이북에는 「우리 식」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고 있다.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고 써붙인 표어를 자주 보게 된다. 뜻인즉 남이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민중의 이익, 자기 민족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처리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나는 위에서 이미 이북은 겉보기부터 동구 사회주의나라들과는 달리 소련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쓴바 있지만 내실적(內實的)으로도

외국에서 수입한 모방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완연하였다.

이 사람은 이북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는 모른다 하지만 이북 사회주의가 체제속에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속에 체제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자주사회주의라 하던지 주체의 사회주의라 해야 옳겠다는 안식만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을 지키고 자기 존엄을 지킬줄 아는 민족은 살고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 존엄을 지킬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시하는 진리이다.

나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이북의 도도한 민족주체적 기상을 보고 우리 민족의 믿음직한 장래를 내다볼 수 있었으며 오늘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북을 그토록 숭앙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제 3 장

이 북 의 사 회 상

제 1 절

별 세 상

나는 이북을 방문하여 될수록 많은 것을 직접 내눈으로 보려고 했으며 또 실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이러한 나의 노력은 단순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더우기는 남의 나라의 현실을 꼬집어 보는데 버릇이 된 서방 저널리스트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이북의 체제나 정책을 관찰하고 평가해보려는 비평가적인 태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나는 이북땅이 체제는 다르지만 같은 겨레가 살고 있는 조국의 절반 땅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밑에 민족적 시점에서 이북의 현실, 이북의 사회주의를 될수록 이해해 보려고 하였다.

내가 이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체제는 달라도 민족은 역시 살아있구나 하고 감탄한 나의 첫인상을 이미 앞에서 서술한만큼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이북의 사회상이 어떻게 그려지겠는가는 독자들에게도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인 말처럼 먼저 한다면 나는 두 차례의 이북방문을 통하여 이때까지 나의 뇌리에 새겨져 있던 낡은 이북관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이북관이 서게 되었다. 나는 이북의 사회주의현실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그려오던 이상사회로 가는 길이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겠는가를 이북의 생생한 현실속에서 터득하게 되었다.

몇해전에 북미주에 사는 한 교포가 이북을 다녀왔을 때 누구인가

「그곳은 지옥이던가? 천당이던가?」고 질문을 하니 답인즉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더라」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오니 위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질문을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세상에 갔다 왔읍니다. 지상천국에 다녀온 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듣고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북을 그렇게도 찬양합니까?」
「내가 말한 것이 찬양이라면 아무래도 찬양할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끝날 수도 없는 것이다.
나는 끊어졌던 그분네들과의 대화를 더 계속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거지와 도둑의 행처

이북에는 거지가 없다. 제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산에 간다고 다 범을 보고 오는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참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로써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말하는 측에서는 없는 것을 내눈으로 확인했다고 하고 듣는 측에서는 그래도 그 넓은 천지를 다 들추면 한둘이라도 있겠지 아무려면 전혀 없을라구 할 것이다. 하긴 나도 이북의 모든 곳을 샅샅이 돌아본건 아니니 아무데도 없더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북방문기간 나는 여러차례 극장구경을 갔다.
어느날 나는 평양대극장구경을 마치고 나오다가 저도 몰래 걸음을 멈추고 삼삼오오 흩어져가는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차정류소로 반달음 치는 성급한 젊은 패들이 있는가 하면 깔깔거리며 무리지어가는 청춘남녀들과 점잖은 신사풍의 늙은이들이 네온등의 불빛을 받으며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한생을 살아온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낯선 광경에 저도 몰래 취해 버렸던 것이다.
「선생님, 무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나와 동행한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선생이 물었다.
「극장주변의 야경을 보고 있읍니다. 내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의 절반만을 볼 수 있는 이 광경을 말입니다.」

「절반이라니요?」

그는 영문을 몰라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아무것도 보일리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 생활에 습관되었기 때문이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때를 기다린듯 남루한 옷을 걸친 아이들과 불구자들, 보호자가 없는 불쌍한 늙은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손을 내밀며 손님들의 발길을 막는다. 한푼이라도 동냥하려는 그들의 무리에서 어서 빠져 나가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사회의 극장주변 야경이었다. 헌데 그런 것에 습관되었던 나는 평양대극장의 야경이 너무도 이상하게만 보였다. 극장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손님들은 있어도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없지 않는가. 단 하나도………

때마침 젊은 여인과 여남은살 되어보이는 소녀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소녀가 여인에게 무엇인가 자꾸 조르고 있었다. 보매 소녀는 무엇을 좀 달라고 보채고 여인은 소녀의 요구를 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얘야, 뭘 달라고 그러냐? 응?」

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 보았다.

「내가 줄게 뭐가 요구되니? 어서 나한테 말해보렴.」

그러자 여인은 웃음을 띠며 말하였다.

「구럭을 자기가 들겠다고 이 성화예요, 글쎄.」

소녀가 여인의 뒤에 숨어버렸다.

나는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찬거리를 사넣은 구럭을 보며 힘없이 웃어 버렸다. 나는 그 소녀애가 자기 어머니에게 빵이라도 사달라고 떼를 쓰는줄 짐작했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얘야, 넌 거지라는 말을 들어 봤니?」

실은 거지를 봤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실례가 될것 같았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만 쳐다보며 대답을 망설였다.

「거 왜 신문에서랑 보지 않았니 남조선 거리들에서 돈 좀 주세요 하는………」

여인이 이렇게 실마리를 튕겨 주었다.

그러자 소녀가 정색해서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건 남녘땅의 불쌍한 어린 동무들이예요.」

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소녀의 대답은 한마디였으나 그 말뜻은 실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어린 소녀까지도 거지는 개인의 팔자나 불찰이 아니라 사회적 불행이라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구태여 이북에 거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였다.

「선생님은 혹시 우리 나라에 거지가 있나 해서 그러는건 아닙니까?」

「아……아닙니다.」

나는 다시는 거지란 말을 입밖에 내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몇해전에 미국의 한 기자가 평양에 뚫고 들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적성국가라 하여 지금껏 출입하지 못하던 나라(물론 이것은 이북당국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른 것이다.)에 입국하는 것만큼 기자적인 호기심에서였던지 혹은 그 어떤 자료를 얻고자해서였던지 이북에 거지가 없다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는 호텔에서 자정이 넘어 남이 다 자는 시간에 홀로 거리에 빠져나와 공원과 다리밑, 크고 작은 건물주변, 비교적 어두운 구석들을 뒤졌다. 아마 저 이남사회는 더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여기 내가 주거하는 워싱턴에서였다면 그는 그처럼 밤새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도 거지를 쉽게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없는 거지가 미국 손님을 위해 나타날리 없었다.

나는 이북사회에 한명의 거지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이북땅에서는 거지가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북에서 특별히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잘산다는 것은 이북을 보고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의식주의 위협을 받는 민중층이 없는 이상 거지가 있을리 없다.

거지가 없으니 도둑이 또한 있을리 없다. 거지와 도둑은 사촌간이라는 말이 있다. 문전걸식하는 것이 빈자의 무저항주의적 행동이라면 절도나 강도는 그의 반발적 폭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북에 가보니 어디를 가나 소홀히 되어 있는 것이 자물쇠였다. 내

가 들었던 숙소에는 돈냥이나 가는 물건들이 적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안에서 걸거나 밖에서 잠그는 법을 몰랐다. 시내의 아파트들에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더러 자물쇠 같은 것이 걸려있는 집도 있었지만 그것은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것이지 열자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허술한 것이었다. 이북사회에서는 낮이면 내외가 다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집을 비우는 가구(家口)가 많은데 이 많은 빈집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고향땅에 가보니 농촌집들에서는 애당초 문을 열어놓은채 전야에 나가 일하고 들아오군 한다 하였다. 문이란 비바람과 추위를 막는데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북에서 들은 한가지 이야기이다.

얼마전에 있은 일이다.

일본에 있는 한 할머니가 두해전에 귀국한 둘째아들도 찾아볼겸 조국방문단 단원으로 이북을 방문하였다. 둘째를 귀국시킬 때 노인은 가정살림도구와 세공품들, 돈냥 같은 것도 마련할만큼 마련하여 보냈다. 그동안 둘째 손자까지 태어났으니 노인의 마음은 여간 기쁘지 않았다.

아들집을 찾은 늙은 어머니는 정성껏 포장한 핸드백만한 것을 내놓았다. 풀어보니 무슨 전자계산기 비슷한 것이 나왔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특수자물쇠라는 것이었다. 노인이 사용설명서까지 내놓았을 때 자식들은 물론 모였던 이웃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하였다. 도대체 저 물건은 어디에 쓰라는 것일까? 도둑이 없는 이북 세상에서 자물쇠란 집에 사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임을 그 노파가 깨달은 것은 이북 여러 곳을 돌아본 후였다고 한다. 자물쇠 제조공업이 발전한 곳에 절도, 강도 등 범죄가 많다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범죄수법이 발달하고 강도, 절도가 성행하니 그 방비수단도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도둑이 없다는 한가지 현상이 백가지를 말해 준다.

이북사회에 깡패가 없고 도둑이 없는 것은 경찰의 기능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다. 남의 것을 훔쳐내고 빼앗아낼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회적 바탕이 없다는 것을 볼줄 모른다면 자물쇠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주 풀지 못할 것이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매우 교훈적이라고 느껴진다.

나는 여기서 방범(防犯)이론을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도 마음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 한마디 한 것이다.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절도, 강도, 깽이 살판치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서방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집을 방비하는데 부심한다.

어지간히 돈냥이나 있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보다 담장을 더 높이 쌓고 있다.

뿐이랴, 담장 위와 안에는 여러 마리의 셰퍼드가 항시적으로 불청객을 노리며 버티고 있다.

외부 세계와는 가시철조망으로 보강된 높은 담장을 쌓고 외인은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자유인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자승자박하는 하나의 감옥이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옥생활을 하는 셈이다.

미국의 어느 시 의회는 도둑을 막을 방도를 토의하던 끝에 그 시에 사는 매개 가정에서 총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한바 있다. 또 다른 한편 미연방국회는 무시로 일어나는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때문에 미국시민은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는 의안을 토의하다가 「총기협회」의 반대에 부딪쳐 폐기시키고 만 일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환성을 올린 것은 무기제조업자들이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더 늘여야 한다는 논리로 된다.

도둑을 막으려고 스스로 감옥살이를 하는 세상, 그런 전전긍긍하는 것을 오히려 뽐내는 사회나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살인흉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자유세계」라고 한다면 도둑도 자물쇠도 그리고 철조망도 울타리도 없는 이북사회를 기독자들이 말하는 천당이나 우리 천도교인들이 그리는 지상천국이라 말한다고 그다지 놀랄 것이 못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생은 없다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몇마디의 흥미있는 조크를 들었다. 조크라고 하지만 진담인 것 같다. 아래에 적어보려고 한다.

평양에 와있는 어느 나라 외교관(그들은 나라명을 밝히지 않았다.)이 흔히 주말이면 홍콩에 가곤하였다.
어느날 그 외교관이 공항에 나타나자 공항역원이
「홍콩으로 가시겠죠?」하고 물었다.
외교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채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쉿, 내가 홍콩에 다녔다는건 절대 비밀이요. 이젠 가지도 않을테니까…」
「응? 무슨 뜻인지?」
「오늘 항공편으로 마누라가 본국에서 오거든.」
항공역원은 그제야 짐작이 가는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일본에서 귀국한 여인 몇이 모여서 조국에서는 누가 제일 살기 좋은가고 말을 주고 받았다. 한 여인이 노동자라고 하자 다른 여인은 농민이라고 하고 또 한 여인은 과학자라고 하였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나이 지긋한 여인이 머리를 흔들더니
「조국에서는 여성들이 제일 살기 좋은거야요」라고 결론하듯 뚝 찍어 말하였다.
「여성이라구요?」
「그럼 뭐야요? 일본에 있을 땐 남편들이 술마시고 바람 피울까봐 하룬들 마음 놓았어? 하지만 조국에야 기생이 있나 창녀가 있나 남편문제야 다 풀렸지 무어야요.」
「정말!」
모두 박수까지 쳤다.
남편들이 알았으면 기가 막힐 노릇.

남북회담때 휴게실에서 벌어진 일.
이북대표: 「그러니깐 통일을 하기전에 경제합작이라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후락:「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먼저 금강산에 관광호텔을 하나 지어놓고 공동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겁니다.」
이북대표:「어떤 관광호텔말입니까?」
이후락:「저, 이를테면 나이트클럽이나 기생파티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북대표 :「기생이라구요?」

이후락 :「그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 염려마십시오.」

이북대표 :「아하 그래요? 혹시 이부장님의 부인도 거기에 보낼 용의가 있는건 아닙니까?」

이후락 :「제 아내요?」

이북에 기생이나 매춘부가 없다는 것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서방사회의 어디에서나 만나게 되며 동구권 사회주의나라에서도 보게 되는 매춘부가 이북에서만은 없다는 것이 정말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북에서만은 여성의 인권이 완전무결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의 평등권이 확고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수십만을 헤아린다는 이남의 매춘부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사회의 부패상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차례진 〈기생〉이라는 직업아닌 직업은 가난의 소산이고 특히는 반민족, 반민중적인 사회정치의 산물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인들을 남자의 노리개로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모독하는데서 이남사회는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자유당때까지는 그래도 은폐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박정희때부터는 이 중세기적인 인육시장이 버젓이 기업화되기까지 하였다.

일본의 〈요정정치〉 이론을 열치기로 삼키어 박정희도 김종필이도 감투쓴 자들 모두가 자기의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젊은 여인들을 끌어다놓는 것으로서 요정정치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매일과 같이 밤에 낮을 이어 비밀요정에서는 수만금이 탕진되는 가운데 권력과 금력을 둘러싼 정치모의가 거듭되고 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추잡한 행위가 계속되었다.

요정정치는 대외정책에까지 뻗쳐져 미인외교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으며 도꾜 한복판에까지 일본정계인물들을 유인매수할 사명을 지닌 전문요정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었던 이남당국자들의 미국정객들에 대한 뇌물비행가운데「여자를 안겨주는 작전」이 중요항목이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유신」통치를 매국정치로 단죄했던 사람들이 들고나온 문제의 하나가 기생관광정책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동포여인들을 구걸외교의 공납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소극적이고 소규모적인 형태였다. 이남의 정치불한당들은 외화획득이란 이름아래 애당초「기생관광」을 정부시책으로 권장하면서 이남 전역을 인육시장화하고 말았으니 이는 여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일 뿐 아니라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유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으로부터 37년전에 중국에서 귀국할 때에 내가 인솔한 배에 탔던 소위「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마당에 끌려가 왜놈군대에게 갖은 욕을 다 치른 동포여인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가운데는 너무도 시달리고 지쳐서 그리운 고향땅을 눈앞에 두고 배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여인들도 있었다.

나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모욕과 희생 가운데서도 그들 〈정신대〉 여인들이 겪은 설움과 고통이 가장 쓰라린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이남사회에서는〈양공주〉로 불리우는 다른 종류의 〈정신대〉로 우리 여인들을 괴롭히다가 그위에「매춘관광」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신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말하는 황금만능이란 이처럼 여인들의 정조까지도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황금이면 인간의 존엄도 민족의 존엄도 사고 파는 사회에서만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이북사회가 수정처럼 맑고 샘물처럼 신선하게 안겨졌다.

생각컨대 이북사회의 특성과 생리로 보아 거기에 매춘부와 같은 민족적, 사회적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북에서도 외화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인간의 자유, 민족의 존엄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북의 입장임을 보았다.

이북에서는 〈달러〉나 〈엔〉이 아니라 전세계의 황금을 몽땅 준다고 하더라도 인권과 민족의 존엄은 털끝만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매음현상을 오직 이북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찬양한다고 하여 시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세금문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자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존재하자면 역시 국가수입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그 주되는 재원(財源)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논의할 여지도 없는 상식으로 되고 있는줄 안다.

그런 것만큼 그 누가 세금이 없는 세상을 보았다거나 들었다고 말하면 꿈같은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내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거겠느냐고 고집하면 어딘가 탈세의 특정인들만 있는 데를 가보고 와서 그런 농담을 하려는 것이냐고 또다시 면박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전국민이 제도적 보장으로 세금없이 사는 특정인이 된 사회, 이북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탄 승용차는 서평양의 어느 한 아파트앞에서 멎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보실까요?」

안내자가 물었다.

「아무 집이나 잠간 들여다 보고 갑시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한 현관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중년부인이 나왔다. 안내자가 나를 소개하였다. 그러자 희색만면하여 어서 들어오라고 하였다. 남편되는 분이 친절히 나를 맞아주었다. 부엌에서는 저녁준비를 하는지 음식냄새가 풍겼다. 나는 집안부터 둘러보았다. 두칸짜리 온돌방에 목욕탕이 달린 화장실이 있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찬장이 알뜰하게 놓여 있었다. 요란하게 크지는 않아도 아늑하고 산뜻한 기운이 풍기고 방안에는 여러가지 가구와 텔레비전 수상기 등 필요한건 대체로 갖추어져 있었다.

남편은 신발공장 노동자이고 부인은 도시 녹화(綠化)사업소 사무원이라고 하였다.

식구는 어머니와 두 자녀까지 해서 다섯식구였다.

수입은 남편과 부인이 합해서 대개 180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헌데 이것 저것 대답을 잘하던 남편이 쌀값을 묻자 어물어물 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집세는 한달에 얼맙니까?」

그러자 또 대답은 않고 어물거린다.

그러면서 부인의 얼굴만 쳐다본다. 부인도 난색을 보이더니 늙은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난달 주택사용료를 얼마나 내셨어요?」

「글쎄, 4원 몇십전인가 냈는데……」

안내자가 나에게 귀띔해 주었다.

「집세라는걸 여기서는 주택사용료라고 한답니다. 주택사용료에는 전기와 수도, 난방 등 모든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아파트는 다 국유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다 국가에 바친다고 하였다.

나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실로 보잘 것 없이 적은 액수다. 전기와 수도물 소비량이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용료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인데 직장에 다니는 이집 주부는 그것을 잘 기억해 두지 않는 것 같았다.

안내자는 말을 계속했다.

「쌀값은 대체로 모르고 있읍니다. 아마 평양시내 모든 가정의 남편한테 물아봐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을겁니다. 국가에서는 농민들로부터 한kg당 쌀은 62전에 사서 8전으로, 잡곡은 40전에 사서 6전으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많은 부분을 보상하고 있지요. 국가혜택이 너무 크니 오히려 잊어버리는 셈이지요.」

그의 말에 온 식구가 따라 웃었다.

말이 난김에 나는 이북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세금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이미 이북에 가자마자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으나 사람들의 생활현실에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세금이 없어졌는가고 내가 묻자

「그게 75년부터던가?」하고 안내자가 어물거리는데

「74년 봄부터였지요」라고 주인이 바로 잡아 말하였다.

그때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법령이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그 얼마후에 노임을 받아보니 아무것도 공제한 것이 없는 전액이어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노라고 하였다. 공장노동자인 이집 주인은 자기가 받아야 할 노임에서 공제액이 완전히 없어진 그때의 일이 즐거운 추억으로 인상깊게 남아있는듯 싶었다.

나는 몇마디 더 자세한 것을 물었으나 허사였다. 그들은 지금도 세금을 무는 법을 모른다는 한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붙잡는 것을 사양하고 차에 올랐다. 근심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세금을 모르며 일체 사용료와 쌀값의 지출까지도 망각하리만큼 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북 조세제도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내가 견문한 지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북에서 1974년에 마지막으로 폐지한 것은 노동자, 사무원으로부터 징수하던 〈근로소득세〉였다.

노동자, 사무원이라고 하면 이북에서는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 전체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세〉는 이들의 월수입에서 받아내는 세금인데 수입액에 따르는 누진세이지만 대체로 중간층에서 월 소득 10%정도를 징수하였다.

이북에서도 해방직후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후에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다. 노동자, 사무원한테서는 〈근로소득세〉만 받았으며 농민들에 대해서는 토지개혁과 함께 일제시기의 가렴잡세를 없애고 〈농업현물세〉로 단일화하였다.

1년농사 소출량에서 25%를 국가가 현물로 받았다.

그후 농업현물세 징수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다가 60년대 말에 〈농업현물세〉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74년에 〈근로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이북에서는 조세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세금수입이 없이 국가가 어떻게 견디어낼까?

내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북 정권당국의 주되는 세금원천은 국영기업소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다. 공장, 광산, 철도 등 일체 산업이 국유화되어 있는 이북의 경제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짐작이 간다.

이북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가세입에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나중에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금수입이 국가 총수입가운데서 1%도 되나마나 했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조세제도의 철폐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정부가 그대신 국민총생산의 재분배에서 국민에게 차례진 몫을 그만큼 공제하게 될 것이 아닌가고. 이를테면 받지 않은 그만큼 줄 수 없고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이북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막대한 재력을 돌려 무료교육을 하고 무상치료를 하며 쌀값까지도 대부분 보상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아무래도 받았다가 도로 내줄 바에야 얼마 안되는 세금을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지 복잡하게 받았다 주었다 해서는 무엇하랴 하는 판단이었다.

내가 경제에 밝지 못하니 잘은 몰라도 북의 사회구조는 확실히 부(富)의 분배방식에 있어서 공평하고 민중위주인 것 같았다.

74년에 조세제도를 철폐하는 동시에 물가를 낮추고(이북은 모두 국영상업이다. 개인상업은 없다.) 노동자, 사무원의 노임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였다.

서방사회에서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해도 제일 큰 고통이 세금고통이다.

아뭏든 지금 서방사회나 이남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세무관리를 들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세금을 물지 못하면 차압을 당하고 그럴만한 재산도 없으면 법에 걸려 구속당하고 그래서 파산하고 자살 등 갖가지 사회적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런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세금이 없는 이북의 제도가 부러울 뿐이다. 서방의 한 작가는 이북을 방문하고 쓴 글에서 강조하기를 「우리는 북한을 본보기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서방사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남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그분은 말하기를 〈고도성장〉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하고 떠든다. 그 발표한 수자가 날조한 것이고 설사 날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성장〉은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워 줄 뿐이며 자기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란 외국의 빚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비극이다.

나역시 동감이다.

이북에 없는 것은 거지와 도둑, 창녀, 실업자만이 아니다.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닦기, 담배장사 등도 없다. 민중 각자가 자기의 안정된 일자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술주정군, 마약중독자, 깡패, 살인, 강간, 사기, 협잡, 기아, 객사 등도 없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민중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공납금도 없고 고학생도 문맹자도 없으며 치료비도 없다. 완전한 무료교육, 무상치료 제도의 혜택의 결과이다.

남을 쳐다보며 살지 않으니 숭양숭왜 사대사상이 없고 외국인 상점을 제외하고는 상점에 외래상품도 없다.

〈20세기의 민족의 대이동〉으로 불리우는 재일동포들의 집단적 귀국사업은 있었으되 이민과 해외도피, 정치망명 등으로 떠나는 사람은 없다.

이북사회에 〈없는 것〉을 헤아리자면 수없이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북을 방문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미 찾아본 것 외에 이 사람이 새로 찾은 것만도 20여개에 이른다.

이 〈없는 것〉들로 말하면 인간사회를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것들이며, 우리 천도교가 지향하는 지상천국에는 있어서는 안될 폐단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북사회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해를 없애버린 가장 정화된 사회 〈한울사람〉이 사는 사회라고 명명하고 싶다.

제 2 절

낙 토

복받은 사람들

나는 위에서 이북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추하고 악한 것들이 없어진 깨끗한 사회, 한울사람(天人)이 사는 사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북사회의 면모를 다 간취(看取)했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북사람들의 복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락이란 그 무슨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누리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사회의 복리에 대해 말할 때 현세(現世)가 배설하는 온갖 사회악에서 벗어나고 근심걱정 없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도 이북사람들은 황금으로써는 재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북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지극한 배려이다.

예나 지금이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귀맛좋은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면 하나의 공상이거나 이상으로 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북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아낌없이 바쳐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이북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락의 핵이 있고 근본이 있을지 모른다.

먼저 평양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이 산원은 동평양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건평 6만평방미터에 높이 55미터나 되는 13층 건물인데 6개 호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산원은 겉보기부터 웅장하다.

현관에서 부원장 지석하박사가 나를 맞아주었다.

지박사는 원래 평양의대 산부인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이곳에 산원이 서면서 부원장으로 부임해 왔다고 하였다.

지부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산원은 2천30칸에 1,500대의 침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 산과침상이 1,000대이고 나머지 500대는 입원중인 산모의 보건관리를 하는 부인과, 내과, 치과 등 각과에 배당되어 있다 한다.

해산하러 들어온 김에 아예 가지고 있던 병을 모조리 고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

30대의 구급차가 주야로 입원희망자를 실어나르는데 구급차와 산원 사이에는 무선통신체계가 서 있어 차가 달리는 동안에 산원에서 보내는 지령에 따르는 치료가 진행되며 도착 즉시로 본격적 치료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산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드넓은 중앙 홀바닥이 마치 커다란 융단을 펴놓은 것처럼 동백꽃, 도라지꽃 등 꽃무늬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었다.

설명에 의하면 그것이 모두 보석이라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색깔과 광채로 보아 보석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그 보석의 이름이며 수량, 값어치 같은 것을 캐어묻지 않았으며 또 물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 하니 그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보석(비록 그것이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 같은 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을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넓은 현관 홀바닥에 깔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황홀감으로 하여 마치 어느 동화에서 나오는 용궁에라도 찾아든 느낌이었다.

언제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식민지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530캐러트짜리 보석원광을 공물로 바치기 위해 먼 해안선까지 철도를 새로 놓았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보석이란 귀족이나 억만장자의 부귀를 상징하는 목걸이나 손목걸이, 반지 같은 장식물로 이용되고 있고 돈많은 장사치나 강탈자들, 그리고 유한매담의 탐욕의 대상으로 되어왔으며 또 되고 있는 것이다.

보석이 이처럼 권세와 치부, 사치와 허영의 가장 값높은 상징물로 되는 것으로 해서 빚어지는 희비극은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 엄청난 보석바닥을 함부로 밟기가 거북하여 발길이 자연 조심스러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자 지부원장이 말하였다.

「만사람이 희망을 안고 들어오고 만사람이 기쁨을 안고 나가는 가장 복된 길을 축복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하여 깐 보석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밟으셔야지요.」

그렇다. 인간의 출생, 그것은 얼마나 희망차고 복된 일인가. 바로 그런 희망차고 복된 인간의 미래, 민족의 미래로 향하는 길목에 값진 보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겼고 인간의 고고성은 앞으로의 험난한 인생행로에 대한 예감적 공포의 표현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인생의 첫 출발부터 보석깔개를 넘어서는 행복을 구가하고 있으니 그 어떤 제왕이나 억만장자의 꾸며진 호사도 어찌 여기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이북에서는 보석이 이미 귀부인의 목에 걸려 반짝이는 패물이거나 유한매담의 손가락에 끼어 빛나는 장식물이기를 그만두었다.

보석이 권력과 금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중의 소유물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으로서의 그의 고유한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응당한 자리를 찾았고 구실을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가슴을 때린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생명을 받는 첫 보금자리인 산원에서 이제 햇빛 넘치는 인생을 향하여 떠나가는 이 나라의 무수한 왕들의 첫 나들이 길위에 보석을 깔아 그들을 축복하는 그 웅심깊은 국가의 마음이다.

산원의 의료설비는 잘 꾸려져 있었다.

내부의 텔레비전화가 잘 되어있어 면회실과 산모실, 의사들의 방과 해산실, 수술장들 사이에 오가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연락이 지어진다.

부원장이 권하는대로 중앙면회실 대기 의자에 앉아 전원스위치를 넣었더니 바로 앞의 텔레비전화면에 산모인듯한 약간 부석부석하지만 해맑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11호실입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상냥하게 웃었다. 나는 당황하였다.

「네, 네……」몸둘 바를 몰라하는데 부원장이 대답해 준다.

「미국에서 오신 최덕신선생이 산원을 돌아보시는데 그저 한번 찾아보았읍니다」고 알려주니 그 여인은 그런가고 하며 깍듯이 머리숙여 인사를 건넸다.

황황히 의자에서 일어난 후에야 처음으로 조국의 북반부에 와서 텔레비전을 통해 상봉한 그 복된 산모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못한 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산모와 갓난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특별하였다.

산모에게는 충분한 영양제가 보장되고 동해에서 따는 미역이 직송되도록 체계가 서있으며 보혈제와 강장제도 공급된다고 하였다.

당일 현재로 산원에서 7쌍의 3태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3태자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어린애 하나에 간호원 한사람씩 붙어 체중이 4Kg 이상이 될 때까지는 퇴원시키지 않으며 유모도 튼튼해진 후 집으로 내보내게 한다.

그리고 집으로 나갈 때에는 애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을 거쳐 인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만 6년동안 먹고 입고 쓸 물질적 수단들을 선물로 받는다. 연유, 사탕, 꿀과 같은 식품, 나이와 계절에 따라 입혀야 할 옷, 담요, 포단, 이불, 솜, 신발 심지어 완구들과 어린이용 학용품 등 3태자 한쌍의 선물이 화물자동차 한대에라야 다 싣는다고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3태자가 많이 나는 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크게 기뻐하신다고 지부원장은 말하였다.

이제 아이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미국인목사 한분이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기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자기가 산원을 찾은적이 있었는데 산원의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 어린 애기의 첫 울음소리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생은 생각합니까?」

「글쎄요.」

전혀 생각밖의 물음에 좀 당황하였다. 그 의사는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선생에게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전 서울에서 나온 교포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이남에서는 어린 애기가 태어나면서 첫 울음소리는

「제가 외국사람의 빚을 얼마나 지고 있읍니까?」한다고 한다.

참으로 비참한 대조이다.

산원이야기가 나온 김에 북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해야 하겠다.

북에서는 완전한 무료치료다.

환자가 병원에 빈손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나올 때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만 하면 된다.

무슨 수술료요, 검사료요, 약값이요 하는 것이 없다.

다 정부의 자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인데 입원하면 입원중 식비까지 부담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도회지는 물론 조그마한 시골에까지 의료기관이 있어서 전국민이 무료로 치료받을 조건이 실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내가 가본 고향 동네에도 물론 크지는 않지만 병원이 있었다.

웬만한 큰 직장에는 부설 병원이나 의무실이 있어서 노동자나 사무원은 직장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거구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병원이 따라와 있는 제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사회, 인간을 귀중시하는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방사회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위에서 산원의 현관 홀바닥에 보석이 깔린데 대해 말했지만 이런 현상은 평양지하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평양지하철은 규모가 클 뿐더러 그 내부가 하나의 지하궁전이다.

거울처럼 연마된 화강석바닥에 서있는 대리석 기둥들, 지하역마다 특색이 있는 광폭의 벽화가 휘황한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살아서 움직이는듯 하였다.

온통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꾸려진 넓은 지하역에 서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귀족과 고관대작들의 건축물에 쓰이는 석재가 아닌가.

그런데 이북에서는 그처럼 귀중한 석재를 지하철에 물쓰듯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도 희한하여 그 대리석 기둥을 끌어안아도 보고 문질러도 보았다.

이렇게 재부를 쏟아붓고도 지하철 요금은 가까운데 먼데 할 것 없이 다 10전이다.

대중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이북땅이라 해서 금은보화가 솟아나는 노다지판은 아닐 것이다.

또 이북이 공산주의를 한다 해서 보석이며 대리석 같은 것이 쓸데

가 없어 그렇게 물쓰듯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북사회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값진 재부를 사람을 위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치고 있는 바로 여기에 그 본질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북사회의 근본을 이렇게 파악하였다.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제열차안에서 한 외국인을 만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말하기를 이북에 많은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낭비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건축물을 만드는데 보석과 대리석을 마구 쓸 필요야 있겠는가, 외국에다 팔면 많은 외화를 얻을 수 있을텐데」라고 그는 강변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당신의 시각은 너무 타산적이다. 그런 안목으로써는 그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보석이나 대리석으로 말하면 그것이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에서는 그것을 사람을 위해, 민중을 위해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낭비라 할 수 있겠는가」고 말해 주었다. 민족적 긍지감에서 한 말이었다.

어디나 공원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금수강산이라 일러온다.

이것은 우리 배달민족이 받아안은 하늘의 혜택이며 이 땅, 이 강산을 지키고 가꾸어온 선조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이다.

안중근의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발 〈제일강산〉, 그것은 곧 조국을 의미하였고 조국을 위해 다하지 못한 그의 애국충정을 의미하였다.

이 사람은 이름난 금강산이며 백두산과 묘향산 등 여러 명승지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70고개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조국 북반부의 산천을 편력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떠오르는 감회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 글에서 그곳 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 그릴 수 없거니

와 그럴 재간도 없다.

다만 조국 북반부땅에서 새롭게 단장되고 아름다와지고 있는 자연전경의 몇가지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무엇보다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북에서 훌룽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사업이다.

나는 이 책자의 서두에서 평양도착시 받은 첫 인상으로서 유서깊은 고구려의 옛 도읍을 상징하듯 정결하게 꾸려지고 있는 평양의 아름다운 정경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다.

어느 외국인이 평양을 보고 도시안에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안에 도시가 있다고 말했듯이 평양은 하나의 큰 공원이다.

이 사람이 첫번째 든 숙소는 평양시 한가운데 솟아있는 모란봉기슭에 있었는데 주위의 경치도 경치려니와 꾀꼴새를 비롯하여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도는 정경이야말로 자연동물원을 방불케 하였다.

아침, 저녁 이름 모를 새들의 우짖음을 듣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숙소마당에 까치, 꿩들이 내려와 논다.

사람이 다가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국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모란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꾀꼴새같은 것은 시내의 그 많은 버드나무 여기 저기에서 흔히 볼수 있고 평양근교 학교마당에는 이따금 노루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평양시가 이러할진대 다른데는 더 말할 것 없다.

이르는 곳마다가 수림 우거진 청산이요 수정같은 냇물이 춤을 추는 화원이며 공원이다.

예로부터 환상적으로만 이야기되는 무릉도원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일정때에 일인(日人)들에 의해 온 강산이 벌의 둥지처럼 파헤쳐지고 벌거숭이로 화했던 이 땅이 그리고 6.25동란시 미국비행기의 무차별폭격을 입어 나무 한대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이 땅이 말 그대로 산자수명한 모습을 도로 찾았을 뿐 아니라 온 국토가 공원화되고 명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런 일이란 하루이틀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전후 30년도 못되는 기간에 강산을 전변시킬 힘은 과연 어디에서

솟아났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인즉 금강산과 묘향산에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한때 광업부문에서 그 채굴을 상부에 제기한바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금 몇십톤 캐기 위해서 조국의 명산을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엄하게 타이르셨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천년간 대대로 이어주고 이어받은 조상전래의 국토, 그 자연풍치의 아름다움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황금이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고이 묻어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조국 북반부를 제외하고 지구위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서방 혹은 동방의 어느 나라가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경제의 불황속에서 세계가 아우성치고 군비확장의 숨가쁜 경쟁으로 열강과 군소국가들이 몸부림치고 있으며 몇푼의 차관을 얻자고 민족의 존엄과 국가의 영예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 현세기 이 난세(亂世)의 소용돌이속에서 이것은 전대미문의 위대한 신화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부조(父祖)의 땅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을 묻어두는 이북사람들의 그 순결하고 겸허한 마음이 거기에 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과 묘향산의 아름다움은 따스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내게는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참으로 위대한 애국자, 애국적 정치에 의해서만 조국강산은 제일강산으로, 국민복지의 낙원으로 전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낙원에는 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삶을 즐긴다.

명승지마다 휴양소, 요양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발된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년에 한차례씩은 휴가를 얻고 와서 놀다가 간다는 것이다.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한다.

적어도 중류층 이상이 아니고서는 철따라 산으로 바다로 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사회, 내가 이때까지 보아온 사회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북은 또한 공해(公害)가 없는 고장이다.

이 사람은 한때 이남에서 <공해방지협회> 회장직을 지낸바 있었는데 이남당국자들이 일본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해서 의견을 말했더니 그것이 화가 되어 해직당하고 말았다.

지금 서방세계나 이남에서는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되어 있다.

공기와 땅, 바다와 강하천이 공해로 병들고 있으며 그때문에 곡식, 가축, 어류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이북은 얼마나 복된 땅인가.

나는 이따금 아침저녁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여기 저기 늙은이들이 강물에 낚시를 던져넣고 한가로이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의 그윽한 화폭같기도 하려니와 이따금 팔뚝같은 잉어를 낚아내는 멋이야말로 매혹적이 아닐 수 없었다.

도심지대를 흐르는 강에서 잉어를 낚다니! 이 역시 이북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하였다.

평양사람들은 문앞이 낚시터이다.

펄펄 뛰는 잉어며 숭어, 붕어를 자기 집 문앞에서 낚시질을 하는 이 평양사람들을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나라의 낚시 애호가들이 본다면 기가 막혀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노인들이 낚아올리는 잉어와 붕어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였다.

평양을 찾아간 외국인들이 대동강과 보통강의 물고기맛을 보고는 그것을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다른 요리를 제쳐놓고 물고기요리부터 청한다는 것이 우연치 않을 것 같았다.

이북이라고 화학공장이 없고 야금공장이나 제련소가 없을리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많다.

문제는 수지타산을 초월하여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대책이 법으로 철저히 세워지고 있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북땅이 살기 좋은 낙토로 전변되고 있는 현실은 조상전래의 산천을 잘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복리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효하게 개조이용하려는 노력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전국토를 가로 세로 뒤덮고 있는 관개수로망이다.

나는 그것을 헬리콥터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눈아래를 부감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북은 산이 많은 고장이다.

그런데 이르는 곳마다 호수요, 호수로부터 뻗어져간 수로이다.

물은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지만 이북에서는 물이 산령을 오르내리면서 논에만이 아니라 산비탈의 밭이며 과수원까지 적시어 만년세세 대풍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평양근교에 있는 미림갑문을 보고 이북에서 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미림갑문이란 대동강을 가로막은 하나의 댐인데 그곳 지명이 미림이기 때문에 미림갑문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대동강은 이북에서 큰 강에 속하지만 세계적인 장강대하에 비하면 물론 큰 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의 규모도 그리 대단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다목적 댐이라는데서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댐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연결하는 다리로, 갑문을 통해 큰 배가 오르내릴 수 있는 뱃길로, 몇개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력발전소로 그리고 대동강의 홍수를 미리 막는 방축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댐과 어울려 그 일대의 풍치가 새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상 싶었다.

댐이 건설된 결과 그 상류는 인공호수처럼 되었는데 그것이 자연히 하나의 큰 양어장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한 것은 이 댐에 물고기가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는 완만한 물길이 기슭쪽으로 따로 나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큰 규모의 자연개조를 하면서 물고기 길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북사람들의 마음씨를 느꼈으며 그 갸륵함에 머리가 수그러졌다.

참으로 이북땅은 사람만이 아니라 산새와 산짐승,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은혜로운 낙토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소식에 의하면 지금 이북에서는 새로운-대규모의 자연개조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동강만 해도 하류와 상류에 여러개의 갑문을 건설중인데 대동강 하구 20리구간의 바다를 막는 남포(이전의 진남포)갑문이 제일 큰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곳곳에 갑문을 건설하면 대동강은 하나의 거대한 운하로 이용되고 새로 개간되는 간석지의 관개용 수로로 이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동강 반대 방향인 동해로 흐르는 용흥강에도 그런 유의 갑문이 여러개 만들어져 서로 연결시킬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서해가 하나의 운하로 연결되는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들은바에 의하면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는 태천발전소 건설사업은 압록강쪽으로 흐르는 북부지역 강들을 역류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얻고 이 물 역시 새로 개간되는 서해안간석지를 적시는 관개용수로 된다는 것이다.

미림갑문을 보고 감동을 받은바 있는 나는 그 모든 건설이 완성되면 이북땅은 더 아름다운 낙토로 변모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사람은 지금도 조국의 지도를 펼쳐들고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산하도 강토도 겨레가 그 주인으로 될 때 비로소 참의미를 갖게 되며 빛을 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3천리 금수강산, 원래가 하나인 이 보배로운 강산의 통일이 더욱더 아쉬워지기만 하는 것이다.

노래도 절로, 춤도 절로

나는 이북방문기간에 춤과 노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텔레비나 라디오를 틀어도 노래와 춤이요 거리에 나서도 노래와 춤이며 유치원, 학교, 공장, 농촌 어디를 가도 노래와 춤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처음 평양에 도착하여 학생소년궁전을 찾았을 때 학생소년 예술서클이 보여준 연예공연을 보고 받은 인상을 잊을 수 없다. 그 공연은 나어린 소년, 소녀들의 천진난만한 생활을 담은 맑고 경쾌한 노래와 춤으로 엮어진 것이었는데 그 예능수준이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두 손색없는 명배우들이였다.

그 무대를 통째로 재미교포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리스같은데 들어다 놓고 보여주고 싶었다.

이 꼬마 명배우들은 전문 음악학교나 무용학교에서 뽑아온 것이 아니라 시내 여러 일반학교 학생들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며칠후 평양시내의 용북여자고등중학교를 찾은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의 예술서클공연을 보고 더한층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왜냐 하니 무대가 다를 뿐이지 학생소년궁전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학생소년궁전 예술서클은 전문 음악학교나 무용학교에서 뽑아온 아이들은 아닐지라도 아뭏든 시내 여러 학교들에서 선발된 특수한 서클일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학교 예술서클은 말하자면 한계단 낮추어 보려 했던 것이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커다란 인식착오였다.

50~60명이나 되어 보이는 아코디언 합주며 각종 기악으로 편성된 합주같은 것은 그 규모부터 어느 전문악단을 방불케 하였다.

학생소년들의 연예서클에 대해서 말할 때 한가지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사람이 옛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설 때 그 부근에 있는 소년단야영소에 들린 일이 있다.

이때에도 나는 이곳 야영소에 입소해 있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마련한 연예공연을 보게 되었다.

이 야영소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것이고 야영생들 역시 그 지방의 여러 학교에서 온 소년단원들이다.

그러니 그의 수준도 중앙보다 떨어질 것이고 더우기 각처 학교들에서 모여온 터이라 별로 오래 연습할 기회도 없었을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보니 평양학생소년궁전이나 용북여자고등중학교 연예서클의 일부를 옮겨다 놓은 것이나 다름없이 훌륭하였다.

나는 이런 현상이 너무도 희한하여 동행한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북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인민학교(국민학교), 중학, 전문,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교들에 일체 악기들이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은 자

기 취미와 소질에 따라 예술서클에 망라된다는 것이다.

예술서클에 망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예술서클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따금 중앙무대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만이 아니라 공장, 사무기관,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단위들에서도 악기들을 갖추고 예술서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북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음악을 감상할줄 알 뿐 아니라 음악을 할줄 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텔레비전에서 어느 탄광의 광부 일가족이 출연하는 기악연주가 방영되고 70고령의 노인을 지휘자로 하는 어느 협동농장의 예술서클공연이 방영되던 일이 새삼스럽게 기억에 떠올랐다.

그후 나는 이북을 두번째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든 숙소(초대소) 직원이 총망라된 연예공연을 보고 감명을 새로이 하였다.

참으로 별유천지(別有天地)가 아닐 수 없다.

무릇 노래와 춤이란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생활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역사 전통을 지닌 우리 배달민족은 원래 노래와 춤을 즐기는 낙천적 기질을 타고난 민족이다.

얼마나 멋진 가락들이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가?

그러나 생각하면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는 우리 민족에게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노래와 춤을 송두리째 앗아갔었다.

그러니 우리 겨레는 〈아리랑〉과 같은 구슬픈 가락으로 신세타령이나 하기가 고작이었다.

그런즉 이북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있는 노래와 춤은 우리 배달민족의 낙천적 기상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민족중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의식주에 대한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 걱정, 한마디로 모든 근심걱정에서 해방되고 날이 갈수록 더한 행복만이 기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절로 나는 것은 노래와 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노래와 춤이 무대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대동강변이며 능라도 그리고 보통강변에서 한쪽에서는 낚시와 장기를 즐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새장고에 맞추어 둘레춤을 즐기는 노인네들이 부럽기만 하였다.

이북은 말 그대로 노래와 춤, 율동의 나라다.

외국사람들이 이북 예술을 <금강석의 예술>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그 원천이 바로 이러한 생활터전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등장하신 김정일비서의 천재적이고 정열적인 지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언급하려 한다.

제 3 절

새 로 운 인 간 상

새 인간의 탄생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의 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내왕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북의 대표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이때까지 학교선생에게서 듣고 배운데 기초하여 상상하고 있었던 이북사람들과는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북사람들은 자기 선생님들이나 부모들하고 도무지 구별되는데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앞에서 천진한 동심들은 의혹에 휩싸여 고개를 기웃거리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이것은 그 무렵 어느 잡지에 실린 이야기였다.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다소 달라졌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해외동포들도 포함해서 이남사람들이 이북동포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표상이 지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모르기는 해도 우리 주변에는 이북의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인정도 의리도 도덕도 없고 <때려부수는 혁명>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며 따라

서 공산통치하에 있는 이북의 민중은 철의 규율밑에서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는 비인간적 존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줄로 안다.

38년세월 내왕도 서신거래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동안 이남 집권당국의 반공선전에 의해서 형성된 일종의 병들고 이그러진 의식상태라 할 것이다.

내가 목격한 이북의 인간상은 그러한 것이 아니였다.

나는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전혀 새로운 인간상을 거기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차상달씨가 발표한 견문록 〈이북에 다녀와서〉의 다음 구절이 나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인용한다.

「이북동포들이 어딘지 모르게 때묻지 않은, 산골이나 농촌사람들같이 소박하고 순진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피와 교만이 보이지 않았다.」

비단 차선생님만이 아니라 이북을 다녀온 대다수 재미인사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그러하였다.

나는 또한 이북의 모든 참관지들에서 다정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르며 가식없이 순박하고 소탈한 사람들을 보았다.

간부들이나 평민들이나 다름이 없었다.

차선생님은 그러한 인간상의 기초를 부의 축적이 평등한 이북체제의 구조적 근원에서 찾았다.

아마도 그러리라고 나에게도 수긍되었다.

인간의 부도덕은 흔히 재물을 탐내는 물욕에서 비롯하는 법인데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럴 조건도 없는 이북사회이니 사람들이 그렇게 소박한 형으로 개조되는듯 싶었다.

앞에서 서평양 어느 아파트를 방문한 이야기를 한바 있지만 이북사람들은 가계(家計)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생계가 국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다가 물가파동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니 생각하면 그럴밖에 없을 것이라고 백번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탐욕으로 가슴을 불태워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있으랴. 언제 어디에나 직업이 있어 정직하게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는 불편이 없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남보다 일을 잘하여 자기의 생산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면 상금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이상 욕심을 낸다 해도 더 벌어들일 구멍이 없다.

더 잘살고 싶으면 서로 합심하여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고 나라의 부를 전반적으로 늘여 그 혜택을 입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서방식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거기서는 서로 남보다 더 잘살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사회의 상층으로 기어오르기 위해서는 그가 딛고 올라설 발판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한 공원에는 "Strebennach hoen„ (向上努力)이라는 글발이 씌어있는 석조각상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백수천의 사람들위에 그들을 짓밟고 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올라섰고 또 그 위로는 더욱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짓밟고 올라섰는데 그런 식으로 원추형탑으로 솟아오른 맨 꼭대기에는 단 한사람이 개선장군의 기상을 하고 서있다.

그 규모와 예술적 기교로써는 걸작의 평가를 받을상 싶었다.

그러나 이 조각상을 음미해 보면 수백만 군중을 밟고 그 희생위에서만 한 인간이 상상봉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상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극도의 개인주의를 설교하는 서방철학의 생동한 증거물이라 할 것이다.

사유재산의 확대가 생활의 기초로 되고 있는 서방사회에서라면 개인주의는 불가피한 인간의 생존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북사회에서는 부의 편중이나 독점은 부도덕이며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 제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속여 넘길 필요도 없고 더구나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 짓밟아야 할 까닭이 없으며 남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하며 음모를 꾸며야 할 이유가 없다.

자연히 사람들은 무욕하고 소박하며 겸허해질 수밖에 없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성실하고 다정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북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형의 인간적 면모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만으로써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왜냐 하니 내가 보아온 공산권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제도적으로는 다 같은 사회주의라 하지만 사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북 사회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보다 비할 바 없이 정화되고 사람들의 풍모가 이를데없이 고상하다는 것은 이북의 사회주의가 경제중심, 경제위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중심, 인간위주의 민족주체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최상의 미덕

이북동포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긴다.

고향에서 만난 외척으로 6촌벌 되는 사람들은 "나라의 방침은 농사제일주의인데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농장분조장인 자기가 마치 나라의 농사일을 도맡아하는 것 같은 자세였다.

제철소나 기계공장을 찾아가면 그곳 노동자들은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고 하며 자기들의 직분의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북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일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나라를 떠받들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자기가 중대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서방사회에서와 같이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직업의 귀천이 결정되고 정신노동보다 근육노동이 경시되며 더우기 농사일이 천시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다.

정신노동을 하는 지식층은 또 지식층대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무슨 일이든지 좋다.

그 직업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회나 국가의 존재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기에 이북사람들은 그가 노동자이건 혹은 고위간부이건 거리의 청소부이건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여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일이 제대로 안되기나 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

이발사는 머리를 깎는 솜씨와 친절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탄부는 석탄을 많이 캐고 보일러 화부는 불을 잘 지펴 시민들에게 따뜻한 구들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써 자기의 존재의미를 자각한다.

하기에 성실하게 일하고 사회에 공헌한바가 크면 국가는 그에게 공훈이발사〉, 〈공훈열관리공〉, 〈공훈탄부〉 등의 명예칭호를 주며 민중은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그러한 명예칭호는 고위간부의 영광에 못지 않으며 박사칭호도 부럽지 않은 영예로 되는 것이다.

사회 자체가 이렇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니 민중이 자기 직무에 자연히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적 바탕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계를 보는 안목(혹은 시점(視点)이랄까)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문제는 결국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데 귀착되는가 싶다.

무엇이 최상의 미덕인가?

인간생활에서 가치라는 것을 무엇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서방세계에서도 사람의 처지와 신념에 따라 이러저러하게 철학적인 문제로서 혹은 단순히 생활적인 의미에서 제가끔 제나름으로 가치기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줄로 안다.

그러나 무식한 말로 개별적인 사람들의 신념이 어떠하건간에 통틀어 서방세계에서 최고의 가치기준은 돈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돈을 가치기준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조차도 가치기준으로서의 돈의 위력반경을 벗어나서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사실상 규정된다는 것을 아무리 창피하고 억울해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지위도 돈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북 사회에서는 돈이나 지위가 사람을 재는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언한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북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우연히 한 영화에서 남녀관계를 묘사한 것을 보다가 그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았을 뿐이다.

나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람의 가치를 어떤 척도에 놓고 판단하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평소부터 생각하여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 청년 남녀의 연애관 즉 어떤 사람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가 하는 그들의 시점(視点)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이북청년들의 연애관인 동시에 이북사람들의 가치관이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날 <우리가 사는 거리>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주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한 도시의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거기에 부차적인 이야기가 하나 병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인민위원회 산하 주택보수사업소(시민들의 주택을 보수해 주는 기관)의 청년 노동자와 시 도시경영과에 속해있는 대학출신의 처녀 설계기사와의 연애였다.

이것이 나의 흥미를 끌었다.

이 경우에 청년 노동자의 민중에 대한 헌신성이 처녀기사의 사랑의 동기가 되었다.

내가 본 또하나의 영화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한 처녀화가가 경치좋은 산에 스케치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한 청년노동자와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녀는 사회현상을 보는 청년의 엄격하고 정확한 눈과 사회에 바치는 그의 재능과 열성을 사랑하였다.

직업이나 직위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처녀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으며 학자인 처녀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분명 이북 사회에서는 그러한 연애관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남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의 결혼식에 불려가 주례를 선 일이 잦았다.

아마 내가 죽어서 저세상에서가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세우고 거기서 천세만세 살아가자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든 것인지 모른다.

신랑신부 두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환락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나 재물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의 일을 성심껏 돕고 보살펴 주며,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마음속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행복이니라.

내가 흔히 주례사에서 강조한 말이었다.

내가 신랑신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은 너무도 자주 나의 주변에서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것을 보아 왔기에 그것을 배격할 것을 바라서였다.

이남 사회에서는 약혼문제가 하나 제기되어도 사람본위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데로 일이 번져간다.

「몇푼 짜리냐?」재산정도를 묻는다.

「한푼쯤 돼.」

「몇단이래?」관직에 관한 물음이다.

「3단이라는군……여편네 고생은 안시킬 것 같군.」

일이 이쯤되고 보면 벌써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자체가 의문에 붙여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인격적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락된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내가 본 이북 사회는 그러한 부패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터전위에서 삶의 윤리가 새롭게 재건되고 있었다.

거기서는 자기 위치에서 정직하게 열성적으로 일하는 것이 곧 사회와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되며 사회와 민중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잘 복무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남을 속이고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하여 다같이 사회의 이익과 민중의 복리를 위하여 더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큰 영예로 된다.

이북에서는 일상생활에서나 신문지상에서 〈숨은 영웅〉이라는 말이 자주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회와 민중을 위하여 말없이 소문없이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 명예와 보수는 바라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남이 보든 안보든 묵묵히 일해가는 참다운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 인간의 미덕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북사람들은 생활신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애국

이북의 인간상에서 놓쳐서는 안될 또하나의 주목할 측면에 대하여

나는 말해야 할 것이다.

평양시내 대동강기슭을 따라 뻗어나간 보도의 양편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는데 열두어서너살 돼보이는 학생아이들이 그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같아 보이는 이는 없었다.

도시의 공원은 물론 휴양소나 명승지에 가보아도 둘레를 깨끗이 거두는 학생들과 부녀자들을 볼 수 있었으며 버스정류장에서는 떨어진 휴지를 주어 휴지통에 넣는 청년이 있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거리를 달리다가 보며는 보도에서 비를 맞아 넘어진 꽃포기들을 일으켜 세우는 늙은이와 그 손자인듯한 어린 학생을 보기도 하였다.

일요일 오후 같은 때 능라도에로 나가면 하루를 유쾌하게 놀다가 떠나면서 잔디밭에 떨어진 휴지들을 모아 한곳에다 쌓아놓으며 널려진 사이다병이나 맥주병들을 나무밑에 가지런히 세워놓고 가는 것도 나의 주의를 끌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저렇게 해놓고 가면 공원관리자가 국가에 바치게 되며 그것이 재생되어 다시 국민에게로 들아간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눈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보이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거리와 마을, 공원과 명승지, 공공시설과 자기 일터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애호관리하는 모습들이었다.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요 어느 한두군데에서 나타난 일도 아니니 그것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애국이며 이런 애국자들에 의해 이북땅에 오늘의 복지사회가 펼쳐진 것이 아닌가.

애국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와 자연 그리고 자기 고향과 부모와 친척과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북민중의 그 평범한 행동에서 참다운 애국을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어찌하여 민중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국토를 가꾸고 나라살림을 제 살림으로 간주하게 되었겠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과거의 중국 상해시 조계지(租界地)의 한 공원에는 〈중국 사람들과 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팻말을 써붙였던 일이

있었다.

그때 중국의 쿠리(苦力)들이 그 공원을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공원을 그들이 자기들의 국토위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압자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단한 논리다.

만약 민중이 국토와 국가재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이며 그 반대 경우에는 민중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

그들 매개 국민은 자기가 그 공장, 그 농장의 주인이며 그 사회,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자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북사회의 이 거대한 흐름속에서는 혼자 남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국민 각자의 주인의식이야말로 이북사람들의 애국주의가 대중적인 애국주의로 번져갈 수 있는 바탕으로 되며 바로 이 대중적인 애국주의에 이북 사회의 위력의 밑천이 있고 번영의 담보가 있는 것이라고 내게는 생각되었다.

이것은 얼핏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에 빛나는 시사(示唆)를 던지는 중대한 문제였다.

애국을 놓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준,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위인들에 의한 애국만을 생각하였지 민중에 의한 평범한 애국은 잊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북의 현실과 접촉하는 과정에 나의 애국관(구태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을 다시 정립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대중을 애국에로 동원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데서나 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직 민중이 스스로를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중적인 사회체제, 민중적인 정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중에게 있어서 자기 국토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흘러넘치고 금은 보화 가득차 있어야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사막지대의 민족들이 그 삭막한 땅을 지키기 위해 피흘리며 백병전을 벌였고 사시장철 얼음으로 덮여있는 불모의 동토지대에 사는 것도 거기

에 젖과 꿀이 흐르고 금은보화가 땅속을 누비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각(知覺)할 때 불모의 땅을 기름진 옥토로, 동토지대도 백과주렁진 낙원으로 전변시키려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수려한 강산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전야, 금은보화 가득 묻혀있는 땅, 민족의 이상을 한껏 실현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조국강토를 두고 민중을 애국에로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겠는가?

민중위주의 정치에 의하여 고무되는 대중적 애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나는 이북 방문기간의 어느 한 저녁에 매우 인상적으로 체험하였다.

그때 평양에서는 주체사상탑과 인민대학습당이 건립되고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거리에 산보를 나섰다.

첫 여름의 저녁거리는 향그럽고 서늘하였다.

시가 중부에 들어서고 보니 공사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처음에는 이 공사장에 나올 예정은 아니었으나 안내자에게서 그것이 인민대학습당 건설장이라는 것과 그 방대한 규모와 놀라운 건설속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자 이북 건설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나는 비교적 전망이 좋은 공사장의 한 모퉁이에 이르렀다.

탑식크레인이 숲을 이루고 대형 건설기들이 돌아가며 건설자재를 만재한 차량들이 쉴새없이 달려오고 달려가는, 각종 신호수들의 호각소리 등이 범벅이 되어 건설장에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움직이는 기계의 대군단에 비하여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주위가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하자 고촉광(高燭光)의 조명등들이 일제히 밝혀지니 건설장은 대낮과 같이 밝았다.

이 무렵에 여기저기서 건설자들 같지는 않는데 작업복차림을 한 사람들이 혹은 삽을 들고 혹은 괭이를 들고 여인들은 바께쓰 같은 것을 들고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잔토를 실어내는 트럭에 가서 흙을 파담기도 하고 혹은 자갈무지나 모래무지에 가서 자갈과 모래를 파다가 〈믹서〉의 아가리로 날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온 건설장이 이러한 사람들로 꽉 덮여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제서야 이상해서 이게 모두 무슨 사람들인가고 물으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저녁이 되면 각 직장에서 퇴근한 사무원들이나 노동자들이 나라의 자랑으로 될 이 대학습당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저녁마다 이렇게 수백수천명씩 모여들어서 흙 한삽이라도 떠주고 돌멩이 하나라도 날라주며 흩어져있는 자재들을 정리해 주기도 하다가 돌아간다는 것이였다.

이것이 상부의 지시냐고 의문을 말하니 우리 나라에는 그런 명령지시를 하는 상부란 없다고 하며 웃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가족과 더불어 즐겨야 할 단란한 휴식의 저녁을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고 있단 말인가?

누가 조직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다.

전적으로 각자가 자각적으로 노력이 요구되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의 노력을 바치고 있다.

안내자는 지금 이 건설에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고 고향집에 가서 쉬고 있어야 할 수십명의 병사들이 남몰래 자기의 휴가를 이 건설에 바치고 있으며 휴양소에 가서 쉬고 있어야 할 수십명의 휴양객들이 자기의 휴양기간을 여기에 말없이 바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기만이 아니라 언제나 국가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건설이 진행될 때마다 례컨대 함흥 2.8비날론공장 혹은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같은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였다.

나는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며 건설장에 차고 넘치는 민중의 애국적 열정과 그 벅찬 분위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밤늦게야 깊은 생각에 잠겨 숙소로 돌아왔다.

바로 이것이 이남이나 미국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이북에서의 <강제노동>의 실태이다.

애국의 열정이 북받쳐 자기에게 주어진 휴식을 사양하고 삽과 괭이를 메고 스스로 보수도 없는 공사장으로 몰려드는 이 민중을 가리켜 강제노동에 끌려온 노예들이라고 한다면 오직 살기 위해서 몇푼의 품삯에 목줄이 매어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자기네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노동판에 끌려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유인이란 말인가?

자기를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답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 결국 이것이 이북에서는 가장 힘있는 애국의 표현이며 여기에 대중적 애국주의의 기본바탕이 있다.

그것은 애국의 가장 평범한 양식이면서도 또한 가장 근본적인 양식이다.

◇ ◇ ◇

나는 오늘의 이북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북 사회의 모든 것에 만족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 근거를 나는 이북의 인간상에 두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네들의 생활수준이 구라파선진국에서처럼 풍만하고 화려하지는 않았다.

대동교 십자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번화가에 위치한 평양제2백화점에 잠간 들린바 있다.

이북을 다녀가면서 손자녀석들에게 무엇인가 들고가고 싶어서였다.

생각같아서는 고향의 흙과 샘물, 풀과 나무, 심지어는 고향사람들의 마음씨까지도 다 간수해 가지고 가고 싶었다.

고향을 전혀 모르는 그애들에게 향수라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화점안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상품이 꽉 차있었다.

물론 외국제는 전혀 없었고 서방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권층에게만 필요한 사치품들, 예하면 목걸이, 귀걸이, 손목걸이나 고가의 사치품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다.

상품의 질은 아직 높지 못했다.

투박한 감이 있고 색깔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백화점안이 몹시 붐비었다.

건너편 매대앞에서 왁자지껄 웃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곳에 주의를 돌렸더니 어떤 부인이 장난감 〈자동차〉를 사려고 해서 판매원이 그것을 굴려보인다는 것이 그만 고장이 난 것이다.

한 청년이 판매원을 향하여

「그것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소? 단단히 말을 해줘야겠군.」

그러자 그 완구를 사려던 부인이

「그만두세요, 누가 약간 실수를 한거지요. 다 우리 것이고 우리 일인데요. 뭐」하고 청년을 향해 나직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엿들었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거기에서도 이북사람들의 마음씨가 느껴졌다.

이북의 경공업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남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금 근심걱정없이 살고 있다는 만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보다 내일은 모든 것이 기필코 더 좋아지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심으로 충만되어 있다.

일찌기 전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가 미국회 하원에서 「월등하게 이남을 능가하는」「북한의 중공업」에 대하여 증언한 것만 보아도 이북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이 무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동행자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지금 이북의 경공업이 처한 상황에 충분한 이해가 갔다.

그들은 목전의 문제보다도 장래를 위한 기본건설과 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를 위한 기간공업에 힘을 넣다보니 소비상품의 겉모양이나 질에 충분한 역량을 돌릴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북에서는 지금 진수성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있고 사철 고급 비단옷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국민이 빠지지 않고 괜치 않을 정도로 옷을 입고 있다.

당분간은 이것으로 만족해한다.

더 큰 발전을 위하여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먼 장래를 심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국력만으로도 이북민중은 남부럽지 않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앞날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 앞날을 위해 모두가 떨쳐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에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기틀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조국의 이북을 두고 말할 때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재부, 서방식으로 세련되어 있지는 못하나 꾀를 부릴줄 모르고 진실하며 자기 임무에 충성스러운 배달의 아들딸들, 그 훌륭한 인적 자원에 이북의 자랑이 있고 장래가 담보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북의 장래에 우리 민족의 희망을 걸고 싶다.

제 4 장

힘의 수수께끼

제 1 절

경 제 의 힘

줄기찬 건설

국력의 기초는 경제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을 떠난 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북을 찾는 사람들은 이북의 경제발전상에 대하여 말할 때 흔히 신화에 비기기도 한다.

경제발전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적을 낳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사람도 이북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부터 듣고 있었으나 실지 이북현실을 목격하면서 역시 기적이라는 말이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30년이라는 기간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파괴되었던 이북이 잿더미속을 헤치고 불사조처럼 일어섰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전반적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세금까지 없는 지상천국으로 전변되었다는 것은 실상 경제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도 이북의 경제적 잠재력을 능히 가늠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크게 놀라게 한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방대한 건설사업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었다.

내가 이북을 처음 방문했을 때 평양에서는 주체사상탑이며 개선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거대한 건물들과 함께 대동강 건너편 동평양에서는 새로운 주택거리 건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나로서는 평양이 전후 잿더미속을 헤치고 이만큼 웅장하게 일어선 것만도 괄목할만한 일인데 작은 나라로서 너무도 힘겨운 엄청난 일을 한꺼번에 벌이고 있지 않는가고 내심 생각한 바 있다.

그런데 그후 1년도 못되는 약 9개월 후 두번째로 이북을 방문했을

때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대기념비적 건축물로 일어섰고 모란봉경기장이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확장개축되었는가 하면 빙상관이며 제1백화점이며 청류관 등 새로운 건물이 솟아났을 뿐 아니라 대동강 건너편 동평양에는 새로운 하나의 도시구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적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알고보니 이러한 현상은 비단 평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대동강에는 미림갑문에 이어 대규모의 남포갑문을 비롯한 맥전갑문건설이 진행되고 서해안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공사가 진척중이라 하며 태천발전소 건설과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등 거창한 건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건설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고 통이 클 뿐 아니라 그 건설속도 또한 비상히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북의 경체력이 막강함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북을 찾는 외국인들은 흔히 평양의 지하철만 보아도 이북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지하 200m 깊이를 뚫고 지하궁전처럼 웅장화려하게 꾸려진 평양지하철은 이북의 경제기술적 높이의 종합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북의 건설면모, 경제적 힘의 하나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북의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량을 오늘은 단 하루에 생산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급속히 성장하는 이북의 경제상을 파악하기에 넉넉하였다.

365배의 숫자는 간단한 비례가 아니다. 그것도 전쟁 3년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새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북에서는 전후 복구건설시기때부터 "천리마속도"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다. 바로 이 "천리마속도"에 의해서 이북은 전후 폐허위에 불과 30년도 못되는 기간에 공업화의 대업을 이룩하고 오늘은 그에 상응하게 "천리마속도"보다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한 "80년대 속도"라는 구호가 이북의 경제건설 속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북사람들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통이 큰 일판을 벌여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북의 경제성장과 거창한 건설양상을 보고 들으면서 나에게는 한가지 수수께끼같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국가재정에 관한 문제였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할 것 없이 경제란 빈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북은 대외적으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권 나라들로부터 별로 큰 원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자를 마구 도입하지도 않는다. 이에 반하여 국내적으로는 국민복리를 위해 유달리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도 세금은 받지 않는다. 뿐더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시적인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여건에서 막대한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즉 어디 그런 방대한 건설에 돌릴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우기 지금 국제적인 경제파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 난관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어찌 이북에서만은 태연자약하게 대대적인 건설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느날 선우씨에게 문의해본적이 있다.

선우씨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국장으로 있는 분인데 나의 이북방문기간 자주 안내도 해주고 편의도 봐주어 매우 친숙한 사이로 되었다. 선우씨는 보건대 식견이 많고 말하는 것이 조리가 있기에 따로 알아보니 사학(史學)에 조예가 깊고 특히 근세 이후의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지견을 가지고 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자주 선우씨와 함께 평양과 지방 각지를 여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나의 질문을 받은 선우씨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뭏든 우리가 이겨낸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도 넘겼읍니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전고투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람있는 일이였읍니다. 우리는 기어코 남에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읍니다. 이젠 그 자립경제의 힘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큰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선우씨의 말을 요약하면 이북사람들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악전고투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렇게도 거창한 건설사업을 통이 크게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자립적

경제에 토대하고 있으며 그 위력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천도교 1세교조 수운대신사님이 「극락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고 한 말씀이 상기되었다. 세상의 모든 재부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내야 하며 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진리가 이북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확인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립의 경제

이북의 경제적 위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라의 크기에 비해 그 건설규모가 대단할 뿐 아니라 또한 성장속도가 비상히 빠르다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북경제가 바탕하고 있는 반석같은 뿌리이며 원동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률이 높고 그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힘에 의거해서 남에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닌 남에게 예속된 경제이다. 남에게 의존하고 예속된 경제는 빛좋은 개살구이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자주권마저 저당잡힌 경제이다.

이남경제의 실태가 그것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그 무슨 〈한강변의 기적〉이요, 〈고도성장〉이요, 〈도약〉이요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일 자본과 기술에 의해 지배되고 기생(寄生)하는 예속경제이다. 외자없이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고 외자에 명줄을 걸고 있는 이남경제의 취약성은 오직 국제적 경제파동에 의하여 심각한 파국상태에 빠져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북의 경제는 그 어떤 국제적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발전의 길로 계속 믿음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비결이 다름아닌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있다는 것을 나는 역력히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 이북경제는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해 영위되고 있다. 자체의 원료라 할 때 이북땅이라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구비되어 있을리는 없다. 비근한 예로 이북에는 석탄, 철 같은 지하자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원유 같은 것은 나지 않는다. 원유로 말하면 현대공업을 움직이는 가장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다. 현대공업의 양식인 전기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경제 자체를 움직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 기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를 이북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한가지 예만으로써도 이북의 자립경제의 진면모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전후 복구건설이 진척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심각히 제기된 문제는 전기문제였다고 한다.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각지에 수력발전소가 복구되었으나 그것으로써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함께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설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는데 당시 이 부문의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 그런 것보다는 건설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게 된 김일성주석께서는 돈이 더 먹고 건설기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우리 나라에 풍부한 지하자원인 석탄을 써서 전력을 얻어야지 무엇때문에 남의 나라의 원유를 믿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겠는가, 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를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큰일난다고 엄하게 타이르셨다고 한다.

수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으나 자체의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보니 온 세계가 석유파동에 휩쓸려 그토록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북에서는 그것이 강건너 일로만 여겨진 것이다.

이북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른 하나의 이야기도 있다.

천은 사람들이 입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면화가 잘 안된다. 더우기 이북은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적은 조건에서 면화를 심을 땅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목재도 적거니와 누에고치생산도 제한되어 있다. 더우기 석유는 전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입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중요 경제명맥의 하나가 외국에 종속된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공장을 일으켜세운 것이다. 전시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김주석께서 몸소 이승기박사에게 비날론연구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지어주시어 마침내 성공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바로 여기에 이북의 자립경제의 위력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북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으면서도 결코 남에게 사대의존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배달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북의 자립경제를 외부와 일체 담을 쌓는 〈폐쇄경제〉라고 힐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자체의 〈폐쇄된 안목〉이 아니면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볼줄 모르거나 보려고도 하지 않는 병든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왜냐 하면 내가 본 이북의 경제는 결코 폐쇄된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게 된 이북경제는 자립경제라 해서 외부와 완전히 문을 닫고 모든 원료, 자재, 기술을 100% 다 자체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의 고리는 경제를 기본적으로 국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며 자체의 실정과 이익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기술로 장비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것을 돋구고 발전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살붙이기로 되어 있는 것이 완연하였다.

지금 이북에서는 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신과학기술수준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기초에서 그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도 능히 자체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황해제철소며 김책제철소 같은 몇개의 큰 공장을 참관하면서 그것이 비록 아직은 과학기술면에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그 규모와 기술장비에서 놀라울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북에서 자동화는 이미 보편화

되어 가고 있었다.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하고 있을 때 대장간에서 호미와 낫을 벼리고 있던 우리 겨레가 오늘은 자동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니 가슴 흐뭇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잿더미속을 헤치며 자력갱생하여 오늘과 같은 힘있는 경제를 건설한 이북동포들의 애국적 헌신성에 다시 한번 머리가 수그려졌다.

이북의 경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믿음직한 힘에 대해서 말할 때 공업과 함께 경제의 2대 지주(支柱)인 농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북농업은 세계적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두번째로 이북을 방문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81년 8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차로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이다. 그때 평양에서는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비동맹 및 개발도상 나라들의 세미나가 열렸다고 한다. 이 세미나에는 80여개 나라 대표단과 1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참가했는데 회의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북의 농업 발전상황과 경험을 배우기 위한 현지참관도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고 한다.

80여개 나라라면 비동맹국, 개발도상국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회합이요, 더우기 이북의 농사경험을 배우러 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근래에 와서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과 그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에는 해마다 5,000만명의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죽은 군인, 민간인의 총수와 맞먹는 것이라고 한다. 그중 1,700만이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해마다 만풍년이다. 한랭전선이 이북이라 해서 사정을 봐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원래 이북으로 말하면 산이 많고 토질도 좋은 편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에서 유달리 농사가 잘되는 근본요인은 농업시책에 있다고 본다.

나는 앞에서 이북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관개망을 얼마나 빈틈없이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지만 이북에서는 한수해를 모르는지 이미 오래다.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산간지대에 속하는 고향마을에

서도 경지 100정보당 트랙터 대수가 6대꼴이라 했는데 전국 평균 수준이라 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소견에도 이만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북사람들은 자기들의 농사법을 〈주체농법〉이라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그것은 나라의 기상기후 조건과 토양의 성질,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 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다는 것이다.

기실 농장마다 농산, 축산, 과수 등 전문기사들이 배속되어 있고 모든 농민들이 과학기술적 이치에 따라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고향의 친척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상 모두 전문농업 기사, 기수를 방불케 하였다.

나는 이 사실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라고 생각되었다. 옛날 같으면 농사군이란 무식하고 천하고 평생토록 허리 한번 온전히 펴보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지였으나 오늘은 기계를 다루고 과학을 논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된 것이다.

정보당 소출을 물었더니 평지와 산간지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옥수수는 평균 6.3톤, 논벼는 평균 7.2톤이라고 했다. 그리고 논벼의 경우는 12~13톤을 내는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분명히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해에 이북에서 950만톤의 알곡을 수확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 이북의 인구수를 1,800만으로 쳐도 1인당 하루 700g(아이, 어른 관계없이)으로 통산해 보면 연간 459만톤의 식량소비량이 나온다. 그런즉 950만톤이면 2년이상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다. 그야말로 쌀부자다. 같은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남에서는 해마다 수백만톤씩이나 양곡을 사들이고 있는데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다.

구라파로 돌아오던 길에 만났던 외국인과의 이야기가 상기된다.

내가 자신을 〈코리언〉이라고 했더니 그는 오지리인이라 했다. 독일어로 통했다. 구체적인 소개가 있고 여행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다. 그는 오지리사회당의 중진이었는데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코리어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북에는 관개수로망이 바둑판처럼 포치되어 어떠한 혹심한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잘 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곳에 가보니 〈물관리학〉이란 책이 있

었는데 그에 의하면 물표면온도와 그밑의 깊이에 따른 수온까지 다 조절해 가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그 나라 농업은 단연 앞자리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나는 물론 재미교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외국출장의 길에 오른 이북사람으로 여긴 모양이었다. 아뭏든 나는 민족적 긍지감으로 하여 흐뭇하였다.

80년대의 전망

지금 이북경제는 1980년대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거보를 내딛고 있다.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1980년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아래와 같다.

전력은 1,000억kw시
석탄은 1억 2,000만톤
강철은 1,500만톤
유색금속은 150만톤
시멘트는 2,000만톤
화학비료는 700만톤
천은 15억m
수산물은 500만톤
알곡은 1,500만톤

알곡은 1,500만톤을 한해에 생산하며 30만정보의 간석지를 10년동안에 개간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 숫자가 대단히 크게는 안겨지지만 도대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 개괄적인 표상을 가지기 위해서 물었더니 해설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해 주었다.

우선 이 10대전망목표가 실현되면 1980년대 말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은 지금의 3.1배로, 1946년에 비하여 1,000배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8시간 동안에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인구 한사람당 강철, 석탄, 시멘트, 화학비료, 수산물 같은 중요 제품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알곡 1,500만톤을 생산하게 되면 식량은 물론 공업원료와

축산사료를 넉넉히 대주고도 많은 양곡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하면 경사지밭은 뽕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를 심어 유효한 경제림으로 전환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5억m의 천이면 인구 한사람당(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연간 80m의 천이 차례지게 된다는 것이고 수산물 500만톤을 생산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팔고도 한사람당 매일 200g, 한세대를 평균 5명으로 치면 세대당 매일 1kg의 물고기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듣기만해도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경제가 세계 선진국 수준에로 뛰어오르게 되고 국민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방대한 전망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북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신심에 넘쳐있다. 이러한 신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이때까지 그들이 다짐하고 계획한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벽돌 한장 성한 것이 없던 그런 참혹한 시련도 이겨낸 우리다. 이제 우리에게는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는 힘과 과학기술적 토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다.」

수긍이 가는 일이고 미덥기만 한 일이었다.

두번째 이북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어느 한 자리에서 80년대 전망목표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 나는 궁금하던 몇가지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1,000억kw시라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듣고 보니 1,000억kw시 전력생산목표 해결방도는 명백한 것이었다. 수력자원만 해도 동해쪽으로 흐르는 강들을 계단적으로 막아 서해로 넘기고 서해쪽으로 흐르는 강들을 막아 동해쪽에 있는 큰 고개로 넘겨 보내어 낙차를 얻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600억kw시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수력발전소에서도 170억kw시는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열탄은 다른 공업부문에 돌리고 버력탄만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도 많은 전력을 얻

을 수 있으니 이렇게 놓고 보면 1,000억kw시의 전력생산목표는 확고히 담보되는 숫자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1,500만톤의 알곡생산목표는 서해안의 30만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되면 정보당 7톤으로 쳐도 210만톤의 알곡을 더 얻게 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석탄이며 철이며 유색금속, 석회석 등 자원이 풍부한 조건에서 다른 부문의 전망목표달성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일이였다. 더우기 서해안의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을 88년까지를 목표하고 있어 다른 계획의 목표수행도 대체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 역시 이북의 애국적이며 민족자주적인 정치적 영도가 있고 이북민중의 애국적인 헌신성이 있는 한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 80년대 10대전망목표를 기어코 수행하리라고 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북의 국력은 더욱 위력해질 것이며 세계에 그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북의 자랑으로 될 뿐 아니라 우리 배달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북의 이 현실을 두고 우리 배달민족의 강인성과 용감성, 슬기로운 애국정신의 부흥개화를 보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위대성과 그 장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럴수록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은 국토분단의 비극이다. 이남도 이북과 한핏줄, 한지맥으로 이어져 있다. 이남에도 자원은 풍부하며 사람들 역시 지혜롭고 근면하다. 비록 외자경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 땅에 있고 우리 사람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재부이다. 통일만 되면 그것의 주인은 우리 민중, 민족의 것으로 될 것이다. 남북경제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우리 나라는 그야말로 세상에 부럼없는 일대 강국으로 될 것이 아닌가.

제 2 절

인생대하(人生大河)의 시원

우리 나라에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웃사람이 정결하면 아랫사람도 정결하고 반대로 웃사람이 탁하면 아랫사람도 탁하기 마련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찌기 이 사람은 인간사회, 인생을 비유하여 이 속담의 의미를 음미해본적이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중국 남경에서 살면서 누렇게 흐린 양자강의 흙탕물을 보고 그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는가고 생각해 본 일이 있다. 그런데 그 큰 양자강의 혼탁한 물을 몽땅 퍼내버리고 새 물로 다 갈아 넣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또 설사 갈아넣는다 해도 위에서 혼탁한 물이 계속 내려오는 한에서는 양자강물이 맑아질 수 없는 일이다. 양자강물을 맑게 하려면 결국 웃물줄기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도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사회, 인생의 대하도 정화하려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주어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북의 교육, 인생대하의 시원으로서의 이북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며 내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학부모로 된 국가

나의 교육부문 참관은 평양 금성거리에 있는 <6월9일룡북여자고등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넓은 운동장을 깔고 앉은 중간복도형의 5층교사에서 받은 첫 인상은 밝고 아담한 것이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늘어서 이 사람을 환영해 주었다. 조국의 동심들이 베푸는 혈육의 정이라 생각하니 노병의 감회도 새로왔다.

40이 되나마나한 사람(알아본즉 벌써 20수년간 교육자로 일하는데 그의 나이는 50이 다 되었다.)이 자기를 교장이라 소개하며 친절히 안내하였다.

<6월9일>이란 김일성주석께서 이 학교를 현지지도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뜻있는 호칭이라 했다.

복도에 나붙은 <지덕체>(智德体)의 글발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의 뜻이 혹시 이북에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싶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그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선진적인 과학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 튼튼한 체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북에서 실시하는 일반교육의 기본내용과 달성하려고 하는 총적인 목적이 거기에 밝혀져 있는 것이라면 이북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고등교육과정의 모든 학과목들에 해당한 실험실습장들이 모두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는데 힘을 많이 넣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종 실험실은 물론 체육실과 수영장, 치료실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시설이 째이고 질서가 꽉 잡힌 학교였다.

음악실에 들렸다. 어린 학생들이 〈노들강변〉등 여러가지 귀에 익은 민요가락을 들려주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어진 민족정서, 체제는 달라도 내 민족, 내 조국이라는 친근감과 일체감이 느껴졌다.

교원들은 여교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젊고 튼튼해 보였으며 또한 정숙해 보였다. 학생들은 생기발랄하고 예절이 밝았으며 언행에 난잡한 것이 전혀 없는 점이 첫눈에 안겨왔다. 앉고, 서며 들고 놓는 것이 절도가 있었고 수업시간에 딴눈을 팔거나 쏠라닥거리는 일도 적었다. 아마 여학교이기에 그런가보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애들이 딱딱하지 않고 째워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여유가 있었으며 구김없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교사안팎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손님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다듬은 것이 아니라 반들반들한 책상들과 교실바닥으로 보아 이북사회 전체가 그러하듯이 학교도 언제나 그렇게 질서있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다. 팻말 하나 세우는 것, 표어를 붙이는 것, 비품을 배치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참관을 마치고 교장실에서 이야기가 벌어졌다. 교장이 전반적 11년제중등의무교육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만 여섯살이면 모든 아이들이 인민학교에 들어가 4년, 그 다음에는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거치는데 유치원에서의 학령전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11년이라는 것이다.

소년노동이 법으로 엄금되고 아이들 모두가 예외없이 11년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국가가 학부모가 된다는 것이었다.

교장의 말에서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국가가 학부모가 된다는 대목이었다.

사실 의무교육 그 자체를 놓고 말한다면 그것은 별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보통교육에서도 의무교육제를 실

시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자체를 놓고 말한다면 이북의 그것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신통한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의무교육연한에 관하여 본다면 세계적 규모에서 볼 때 그리고 구라파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히 높은 급에 속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학령전 교육과정 1년이라는 것인데 타당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의무교육 실시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실현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실제적으로 뒷받침되느냐 하는데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이라고 아무리 법으로 발포해 놓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일 뿐더러 국가권력에 의한 하나의 기만으로 되고마는 것이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터이다. 실지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최하층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 의무교육이란 그림의 떡이다.

나는 편견없이 이북의 의무교육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국가가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11년동안 모든 학생들의 학비를 국가가 다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읍니까?」

교장에게 나는 이렇게 물었다.

교장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조리있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11년제의무교육은 학생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는 완전한 무료의무교육입니다.」

교장선생에 의하면 유치원으로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각종 교과서와 학용품도 국가가 무상이나 다름없이 공급해 주고 있으며, 실험실습비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철따라 학생들의 옷도 국가의 보상(補償)밑에 아주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학생이 둘 이상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상비율을 더 높여 거저나 다름없이 공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나 부모가 노동력을 상실한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학용품, 참고서들은 물론 옷, 신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까지도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숙사에 드는 경우에는 숙식비까지도 국가가 전부 부담해 주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러한 혜택에 의하여 학부모들은 한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자식들을 노동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6살까지 공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인 부모들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잠시 말을 끊고 있던 교장은 무엇인가 잊고 있었던듯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은 11년제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 뿐 아니라 고등전문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읍니다. 특히 고등전문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시키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대단히 많겠읍지요?」

교장은 대답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60만의 학생들이 있읍니다. 이들이 다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나는 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북의 의무교육은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이며 아마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때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으며 또한 후에 이북의 현실을 통하여 그것이 에누리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북에서 철저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 어떤 밑천이 있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처음에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에로 넘어 갔으며 무료교육으로 그것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대학을 포함한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 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자신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비록 굶는 한이 있더라도 물지게장사라도 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우리의 학부모들이다. 꼭 같은 심정으로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매우 어려웠던 경제형편에서 막중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국가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면서 매사에 그것을 선행하고 있는 국가, 그는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인재를 키워주는 이북사회의 진정한 학부모였다.

해방직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켰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자세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실로 상징적인 사변이었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 것이 없었던 폐허위에서 우선 학교, 유치원, 탁아소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였을 때 국가는 또한 얼마나 충실한 학부모로서 자기 아들딸들의 교육문제에 필사적인 의지와 비상한 각오로써 달라붙었던가를 선명하게 입증하였다.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훌륭한 것은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이것이 그때 국가가 외친 구호였으며 전국민이 이 구호를 함께 외치며 학교건설장에로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달려나갔다. 국민들 속에서는 후대교육이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문제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 이것이 학부모로서의 국가의 가장 튼튼한 밑천이었으며 그 무진장한 힘의 담보였다.

이북 교육상황에서 다른 하나의 중핵적인 문제는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북교육의 총적인 목적은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키우는 것인데 한발자욱 더 나아가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이란 그러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교장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었는데 본인이 그 설명을 주관적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철저히 독자적인 인간을 의미하였다.

이때 이북교육을 항상 〈획일주의〉라고 하는 비방에 감염되어 있었던 나는 다소 무리한 발언을 하였다.

「이북교육은 집단주의교육인데 그런 주견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교장선생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이북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결코 개성의 발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개성적으로 발달된 인간들로 결합된 집단이래야 그것이 공고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이북교육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교장선생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최덕신선생,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아시려면 참관을 아래서부터 체계적으로 다시 해올라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산원(産院)에서부터 탁아소로, 유치원으로, 인민학교로…… 하는 순서로 다시 하셔야 하겠읍니다.」

나는 다소 긴장된 얼굴로 안내자를 쳐다 보았다. 안내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쾌히 교장선생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나의 교육참관은 산원견학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산원에 대하여서는 다른데서 이미 서술하였다. 산원다음에 나는 〈9.15주탁아소〉를 참관하게 되었다.

탁아소와 유치원

평양시내 중심부에 자리잡은 〈9.15주탁아소〉를 찾았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4~5층 건물이 여러동이 서있는데 여기서 1,000여명의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르고 있다고 한다. 출생후 1년 7개월 되는 때부터 만 4살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여성들의 아이들을 받는다 하였다. 주로 봉사부문의 노동여성들, 여기자, 여우(女優), 여교사, 여의사들의 자녀들을 많이 맡는데 월요일에 맡기고 토요일에는 집에 가게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1,500~1,600칼로리를 보장하는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높은 영양기준이었다. 여기서는 아직 글자는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주로 직관교양, 실물교육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아이보기라는 그런 의미의 탁아소가 아니라 교육교양목적을 앞세우면서 부모의 부담을 대신하는 어린이학교라 함이 더 정확할 것 같았다.

탁아소운영의 모든 면을 관찰할 때 교육교양목적을 앞세운다는 것이 뚜렷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 속담을 들면서 안내하는 탁아소 소장은 이 나이의 아이들이 교육교양에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인생대하의 시원에 관한 문제로서 십분 납득이 가는 말이었다.

"우리 말 공부"에서는 보모가 글을 읽으면 어린것들은 그것을 따라 외우는데 아이들의 발음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셈세기와 노래공부도 한다. 악보를 곧잘 보고 "도, 레, 미, 파…"로 발

성연습을 하는데 박자표시는 사과 "반개, 한개…" 등 그림으로 "반박자, 한박자 반…" 등을 표시하여 알기쉽게 되어 있다. 기이할 정도였다. 나는 70고개를 바라보면서도 볼줄 모르는 악보를 그 어린것들이 보고 있으니 말이다.

종합놀이터에 들렸다. 농구, 배구, 자동차운전, 자전거경기, 그네놀이 등의 유희가 벌어지는가 하면 넓은 방에 진짜로 레일을 달리는 조그마한 기차, 공중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노는데 아이들마다 제놀음에 취해있다. 장쾌한 광경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보모가 우리 일행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린것들을 향해 소리친다.

「동무들! 저 멀리 미국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동무들을 보고 싶어 찾아오셨어요.」

손님에 대한 소개였다. 순간

「와—」하고 아이들이 달려와 이 늙은것의 팔에도 목에도 다리에도 마구 매달린다. 어느 아이부터 어루만져야 할지 저마다 사과알 같은 자기 볼을 들이민다. 내 손자, 내 손녀와 같은 통하는 혈육의 정을 어쩔 수 없었다.

탁아소 유아들을 두고도 말공부, 노래공부, 체육공부, 도덕교양을 통하여 역시 〈지덕체〉 교육에 목적지향적으로 힘을 넣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소장은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탁아소,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들어가는 성장의 기본노정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부언했다.

사실 유아들을 국가적으로 보육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도 탁아소에서부터 인간육성의 기초작업이 진행되는 나라도 여기밖에 세상에 더는 없을 것 같았다.

이북에는 3만9천여개의 탁아소와 2만1천여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소장은 말하였다. 매 탁아소, 유치원당 5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쳐도 300만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이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에 의하여 육성된다는 것이다. 집에 아이를 보아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키우도록 국가에서는 권고하지만 부모들은 그에 응하지 않고 아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 맡긴다고 한다. 교육교양을 위해서이다.

〈송림애기궁전〉을 참관하고 이북에서 진행되는 인간육성의 기초

작업노정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송림애기궁전〉은 황해제철소가 자리잡고 있는 송림시에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 병설의 교육기관으로서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도 그렇거니와 그 시설에 있어서 과연 궁전으로 불리울만한 것이었다.

제철소 노동자들의 자녀들 1,500명을 받아 교육교양하기 위해 240명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라의 모든 국력을 장래의 주인들을 위해 다 바친다는 인상을 받았다.

유치원에 관심이 더 쏠렸다.

낮은반, 높은반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낮은반 아이들에게는 글자를 배워주지 않고 실물교양, 직관교양에 기본을 두고 노래와 체육을 많이 하도록 일과를 짜고 있었다.

유치원 높은반은 말 그대로 〈학교전〉(유치원까지를 이북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1년간의 의무교육 내용을 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방사회에서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첫 공정을 학교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그것을 학교전교육 다시말하여 유치원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이전 탁아소단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될 것이다.

〈송림애기궁전〉을 떠날 때 그곳 젊은 교양원이 나에게 들려주던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보세요, 아이 셋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는 말이예요. 애어머니의 생산노동이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국가에 부담을 준다는거예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인민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장하고 후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게 더 중요하거던요.」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9.15주탁아소〉에서나 〈송림애기궁전〉에서 다 같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꼬마연주가들과 가수들 그리고 무용수들의 묘기였으며 재능있는 어린 이야깃군들의 이야기놀음이었다.

두 탁아소, 유치원 참관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어릴적부터 아이들이 다방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튼튼한 소지를 쌓아주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나타난 조그마한 특기라도 발견하

기만 하면 즉 음악에 장기가 있는 아이에게는 음악을, 체육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는 체육을 더 잘하도록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한 이북교육의 <획일주의>에 대한 신화가 점차로 나에게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어쩌는 수가 없었다.

왕과 궁전

평양시 중심부 장댓재 언덕위에 우뚝 솟은 13층의 건물이 있다. 초입구로부터 출입문까지의 200m구간은 분수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차도와 보도가 곧게 뻗어있으며 주변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일대는 하나의 공원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가 유명한 <평양학생소년궁전>이다. 궁전이라면 그 안에는 응당 왕이나 여왕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관을 쓰고 금띠를 두른 왕이나 여왕을 여기서 본 사람은 없고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대개 10살안팎의 소년, 소녀들 뿐이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바로 그 어린이들, 소년, 소녀를 나라의 왕이라 부른다 하여 집이름도 <학생소년궁전>이라 지었다고 한다.

나는 궁전을 참관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국가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동시에 여기서 이북교육에서의 획일주의에 대한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나의 신화가 최종적인 강타를 받고 깨끗이 무너져깨버렸다는 것을 나는 미리 말해두려고 한다.

이 궁전안에는 잘 꾸려진 아담한 극장이 있으며 500여개나 되는 과외학습실과 체육실, 수십만권의 각종 서적을 갖춘 도서관이 있는데 매일 만여명의 아동들이 여기에 와서 각종 활동에 참가한다고 한다.

총장의 설명에 의하면 1963년 9월 궁전을 개관할 당시만 해도 국가가 큰 마음을 먹고 제일 큰 건물로 건설했던 것이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상황이라 기계도 장만하고 새살림도 꾸려야 했으니 쓸데는 많았고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큰 기계공장 5개 값에 해당하는 5억원의 돈을 여기에 돌렸다 한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20년전에는 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변건물들에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보다 굉장한 소년회관을 새로 지으려 한다고 총장이 부언했다.

승강기에 올랐다. 비교적 대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신형은 못되었다.

안내자는 이 승강기가 「우리 나라 공업이 처음으로 생산한 <제1호>제품」인데 아이들을 위해 이 궁전에 보내온 것임을 알려주면서 그 의의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려는 의도로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총장은 계속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고 있다. 무엇을 아끼겠는가. 부모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나라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한다고.

이북에는 이러한 학생소년궁전들이 함흥과 개성에도 있고 소년회관으로 불리우는 시설들이 나라의 곳곳에 있다고 총장은 말하였다.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을 비롯한 명산들과 원산, 남포를 비롯한 해변가 경치좋은 곳들에는 소년단야영소, 소년단각들이 수많이 있는데 의례히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로서 그것들은 모두 학생소년교양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소년궁전의 수백개 방들은 소년, 소녀들이 그들의 소질과 능력, 취미와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도구들과 각종 설비들을 갖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방마다 다 돌아보자면 2~3일은 걸린다기에 몇개 방만을 돌아보았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서양악기와 가야금, 해금 등의 민족악기의 연주를 가르치는 많은 방들이 있었다. 무용실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대의 재봉기가 요란스럽게 돌아가는 재봉실들이 있었다. 한방에 들어서니 수예공부를 하는 소녀들이 열심으로 수를 놓고 있었다. 또 다른 방에서는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자동차운전을 배우는 운전시설이 있었다. 먼저 방안에서 운전요령을 습득하고 운동장에 나가 직접 차에 올라앉는다고 하였다. 천문지식 보급실에 안내되어 천체망원경앞에 앉아도 보았다. 각종 체육실과 각종 공작기계 조작실도 돌아보았다. 어마어마하고 요란한 광경이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과외학습시설이었다. 내가 참관할 때는 마침 시내학교들의 방과후 시간이어서 더욱 붐비었다.

어린이들은 궁전극장에서 다채로운 예술공연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예술솜씨는 전문배우들을 찜쪄먹을 정도로 능탄한 것이었다.

궁전참관의 전과정을 통하여 내가 파악한 것은 매개 소년,소녀들의 개성적 특질을 최대한도로 발양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특징과 재능으로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하고 있는 국가의 세심한 구상과 의도였다. 궁전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화하며 그 과정에 그들은 궁전에서 일하는 지도교원들의 친절한 지도에 의하여 자기의 특기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다듬게 되는 것이었다.

획일주의? 그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기로 한다.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의 무의미한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네온사인으로 새겨지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옥상의 글발은 이러하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

참으로 이북의 아이들은 부러울 것이 없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왕〉이라면 이북사회는 〈왕〉들의 세상임에 틀림없다. 이 왕들이 장차 천국을 건설할 역군들이며 민족의 혈맥을 튼튼히 이어나갈 조국의 미래이다.

전민인텔리화의 길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이북에서 인재양성의 대 거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대학 출신 인재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해방후 이 대학을 모체로 해서 여러 대학들이 태어났다는 의미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대동강가 경치좋은 곳에 160만평방미터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학에는 건평 5만평방미터에 달하는 9층짜리 1호교사와 22층의 높이에 6만여평방미터의 건평을 가진 2호교사 그리고 200만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1,000여좌석의 도서관, 그밖에 박물관, 병원, 출판사, 인쇄공장, 과학실험기구공장,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들이 꾸려져 있는데 현재 1만 2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한다.

대학 현관에서 총장인 지창익교수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지총장은 이북사회과학계의 태두(泰斗)이며 대학교육에 다년간 종사하여온 교육자로서 국제적인 과학자 모임에도 자주 참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지총장과 함께 교수참관도 해보고 박물관과 도서관에도 들려 보았으며 이남출신의 역사학박사 박시형교수와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보았다.

박시형박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창익총장은 감회깊이 회상하는 것이었다.

「해방직후 그 혼잡했던 시기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서울에 사람을 보내어 수많은 인텔리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사업에 바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셨읍니다. 지금도 그때의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모두다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

지총장은 대학의 교육방침과 실태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총장선생의 이야기와 교사 안팎을 돌아본데 기초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이야말로 이북 주체교육의 총본산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간파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 사대와 교조를 반대하고 민족본연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음을 먼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민족고유의 것, 우리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배달민족은 이 나라에서 부를 창조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민족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공산주의사회가 되어도 시베리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자면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잘 알아야 함은 물론 이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민족앞에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학교육이 이바지해야 할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남사회에서는 그 못난 엽전사상때문에 미국에 유학하고 와서 영어마디라도 외워야 유식한 것으로 돼있고 미국 것만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통하고 있지만 이북에서는 그러한 경향에 대하여 확실히 비판적이다.

이북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외국유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배워온 것으로 자기 조국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를 걸머진다는 것 이상을 결코 의미하지 않았다.

국가건설에서 주력은 어디까지나 국내대학의 졸업생들이었다. 왜냐 하면 그들만이 국가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았으며 국가앞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유학생들은 특정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국내 졸업생들과 협조해 나갈 뿐이었다.

이북동포들이 김주석의 위업을 이어나갈 계승자로 받들고 있는 김정일비서께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셨다고 한다.

외국어대학외에는 외국인 초빙교수도 없었다. 교수강사들은 다 우리 동포들이었다. 다른 부문도 그러했지만 이북에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학자, 교육자들이 부족하고 건국사업에 지식인의 힘이 필요할 때에조차도 꼭 필요한 부문외에는 외국인을 많이 불러들인 일은 없었다.

지총장을 통하여 국내 대학교육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서도 나는 윤곽적인 지식을 얻었다.

지금 이북에는 평양시내에 있는 20여개의 대학을 포함하여 매개 도들에 있는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공산대학 등 170여개의 대학들이 다 이에 못지 않게 꾸려져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지방마다 대학이 고르롭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간부를 자체로 키워서 쓸 수 있으니 좋고 또 지방 특성과 실정, 기후풍토에 맞는 교육을 줄 수 있으니 더욱 좋으며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으니 또한 좋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8.15당시 기사자격소유자가 통틀어 100명이내였던 이북에서 100만여명의 인텔리대군이 자라났다고 총장선생은 알려주었다.

오늘 이북교육은 모든 사람을 자주의식과 창조능력을 지닌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 목적의 완전한 실현은 온 사회가 인텔리화될 때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창익총장은 이렇게 부언했다.

「온 사회의 인텔리화란, 우리 인민이 다 대학졸업정도의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여 현대문명의 상상봉에 올라서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상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북에서 교육에 대한 욕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탁아소때부터 늙어서 활동을 못할 때까지 일생동안 공부시키는데 그것도 모든 국민을 다 빠짐없이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는 통신대학생, 아버지는 공장대학생, 아들은 정규대학생으로 한가정이 몽땅 대학생인 경우가 여기서는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 한다.

결국 모든 국민을 대학졸업정도 이상의 고급인텔리로 키우려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수백개 민족이 있지만 그 어디에 문맹자 없는 민족이 있으며 일반지식수준에서 평준화된 민족인들 있는가. 헌데 이북에서는 전민 대졸화를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야간대학, 통신대학 등)까지 세워져 있다. 전국민인텔리화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목격했다. 최근에 함경남도에 있는 <용양광산>의 한 굴진갱 광부 전원이 일하면서 배우는 현지의 전문대학체계에 망라되어 졸업장을 타고 몽땅 기사, 준기사가 된데 대하여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축하문을 보냈다는 대대적인 신문보도를 나도 보았다.

종합대학 참관은 전민인텔리화도상에 있는 이북사회의 거창한 양상을 내가 윤곽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되었다.

온 사회의 인텔리화와 연관시켜 <인민대학습당>에 대하여 한마디 하려고 한다. 인민대학습당은 평양시 중심부의 남산언덕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외관을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건축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북에서 제일 큰 건축물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

안내하는 측에서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나는 전국민이 공부하는 곳이라 하지만 이런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한없이 들어오지는 못하리라고 짐작했다. 대리석과 고급건재로 기둥을 축조, 장식하고 화려한 융단을 깔아 너무도 웅장하고 으리으리한데다가 실로 큰 돈을 들여 봉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보고 싶은 책을 요구하면 잠시후에는 곧 콤퓨터체계에 의해 책이 독자앞에 운반되어온다. 책을 보고싶다고 아무나 마구 출입하기에는 어마어마했다. 꼭 무슨 제한조치(예로서 요금 같은 것으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학습당을 이용하는데 요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나의 완곡한 질문이었다. 이 사람을 동행한 안내자만은 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간파한 모양이었다.

「선생님! 요금은 없읍니다. 여기도 전체 인민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는 곳이 아니겠읍니까.」

과연 그렇다. 이북의 무료교육제에 대하여 나는 너무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이북의 무료교육제도가 정규교육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중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제한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일반교육체계에서 학생소년궁전이 사회교육 과외학습의 기본 거점으로 되고 있다면 인민대학습당은 전국민인텔리화를 위한 고등교육체계에서 그러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민대학습당은 전국민인텔리화에 복무하는 통신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참으로 이북에는 인간이 출생하는 산원으로부터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대학교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인간육성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것도 국가비용에 의한 완벽한 무료교육제, 전반적 11년제고등의무교육제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면적으로 발달한 유능한 인재들이 대량적으로 양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성원 전체가 고등인텔리로 될 담보가 마련되어 있다.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먹고 살 권리와 함께 배움의 권리를 가지며 전체 국민이 학습하여 대학졸업정도에 도달할 의무를 지니는 이북사회를 두고 외국인들이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일컫는 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하고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북에서 볼 수 있는 막강한 국력, 힘의 비결은 바로 이런 인간육성, 교육에 있다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북동포들이 세기적 낙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나라의 절반땅에 자주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끔 무진장한 슬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중심정치의 소산이며 특히 우월한 교육제도가 낳은 결실이라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의 교육은 이북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그 막강한 국력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북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막강한 국력의

산 증거이며 일대 시위라고 나는 믿고 있다.

상상해 보시라. 인구 2천만을 넘지 못하는 조그마한 이북이 거의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학생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완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장과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국가적 보상을 주고 있다. 이북에 170개의 대학이 있으며 학생소년궁전이나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수많은 학생회관과 야영소와 같은 대규모적이며 광범한 비생산시설에 국가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해방당시에 100명내외의 기사를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오늘은 100만여의 인텔리부대를 길러놓았다. 이것이 막강한 국력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며 그 강대성의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랴!

내가 여기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보며 우리 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결코 오판은 아닐 것이다.

제 3 절

견고한 국민단합

한 나라의 국력을 논하자면 크게 물질력과 정신력의 두 측면으로 갈라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정신력이라고 이 사람은 늘 생각해 오고 있다. 국력이란 국민의 힘이라 할 수 있는데 물질력은 국민이 경제를 어떻게 건설하고 물질적 부(富)를 얼마나 창조해 내는가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결국 국민의 정신력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북의 국력을 살펴보면서 그 경제력과 함께 인간육성의 측면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교육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관찰하느라고 하였다.

이북의 교육은 확실히 특이하였다. 그런 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인간은 사회에 나가서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북의 현실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힘이 합쳐 보다 더 큰 힘으로 되고 있음을 보았다. 사람들의 단합된 힘이었다.

중국의 옛글에 〈천시는 지리만 같지 못하고(天時不如地利)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地利不如人和)〉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단합된 사람들의 힘만큼 막강한 것은 없다는 이치를 가르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북사람들은 바로 그 막강한 힘, 단합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북땅에 민족의 얼이 약동하고 부귀빈천의 구별없이 사람들이 복락을 누리는 별천지가 펼쳐지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고 내게는 생각되었다.

일사불란(一絲不亂)

평양에서 내가 머무른 숙소에는 아늑하게 꾸려진 영화관람실이 있었다. 조용하게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

나는 여기서 종종 이북에서 만든 영화를 감상하였다. 하루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라는 기록영화를 보여주겠다기에 가보았다.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말하기 전에 한가지 밝혀두려 하는 것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민들의 시위모습을 촬영한 필름을 본 일이다.

그때 그 필름은 이남당국에서 극히 일부 요인들에게만 〈참고〉로 보여준다면서 상영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이북민중의 시위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남침위협〉을 실감케 하고 반북(反北)의식을 고취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나는 짐작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저들이 믿고 보여준 그 사람들까지도 이북민중의 도도한 기상과 철통같은 단결력 앞에 위압감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기색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황한 이남당국은 그 필름을 더는 돌리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웃지 못할 〈비사〉(秘史)를 알고 있기 때문인지 6차당대회 기록영화를 상영한다니까 〈그 사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디 한번 보자〉 하는 호기심이 생겨 나는 곧 영화관람실로 갔다.

스크린에 비쳐지는 것을 보니 칼라필름이었다. 색조가 선명하고 깨끗했다. 전에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가 안되었다. 서울서 본 5차당대회의 군중시위는 비할 바가 못되었다.

이번의 것은 100만군중의 시위였다고 하는데 대오가 우아하고 정결하기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고 조직성, 단결성, 규율성은 군대이상이었다.

시위군중의 대오가 실히 40열은 되어보이는데 가로 보나 세로 보나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추어 나가는 그 도도한 모습은 마치 노호하여 밀려드는 파도와도 같고 지심(地心)을 울리며 움직이는 태산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결의 극치였다. 아뭏든 내가 이제껏 구미에서 보아온 데모와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사람은 영화가 끝나고 관람실을 나와서도 영화에서 받은 인상이 사라지지 않아 서성거리었다. 내가 군에서 지휘관 노릇을 오래 했지만 언제 저렇게 규율있는 대오를 지휘해 보았던가 싶었다. 마침 곁을 지나가는 초대소의 낯익은 관리원에게 노동당 6차대회 기록영화가 참 괜찮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는 다른 외국손님들도 그 영화를 보면 다 감탄한다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다.

「몇해전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과 한차를 타고 비행장에서 들어오면서 평양시민의 연도환영을 받았읍니다. 그때 그는 환영하는 군중대오만 보고도 너무 감동되어서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위대한 수령님께 "주석동지는 참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인민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티토대통령의 그 말이 진정이었으리라고 믿어졌다.

그러면서 나는 환영나온 군중이라면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나온 군중이었겠는데 티토대통령이 그것만 보고서도 단결된 이북민중의 기상을 느꼈다니 그가 만일 100만군중의 시위를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후 나는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의 마스게임을 보고 다시한번 감탄하였다.

내가 군중시위 필름을 보았을 때보다 더 감동한 것은 아마 마스게임을,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스게임이라니까 그저 기껏해서 몇천명학생들이 도수체조를 하는 것쯤으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대규모의 예술축제와 같았다.

대규모 예술축제라 하는 것은 5만명이 출연하는 그 규모가 커서만이 아니다. 5만명의 학생들이 조직성과 단결력을 예술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훌륭하게 시위했기 때문이다.

마스게임의 흐름은 김일성주석의 활동역사에 따라 엮어졌는데 매 장면마다 수백 수천명씩 나오는 체조대성원들의 차림새와 율동이 하나 같고 그에 맞추어서 혹은 글자를, 혹은 그림을 화려한 색깔로 새겨내는 배경대가 헛점 하나 없이 완벽하였다.

일례를 들어서 <조국개선>장 같은데서는 개선연설을 하시는 김주석의 초상화와 함께 꽃다발을 흔들며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의 모습이 그림같이 배경대에 짜악 새겨지는가 하면 운동장에서는 수천명 여학생들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무어내고 그 양옆에서 허리굽혀 공손히 인사를 드리었는데 그 과정에 배경대가 너무도 정확하고 체조대원이 너무도 규율있게 동작을 해서 도무지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꼭 어떤 기계장치를 해놓은 것 같았다.

마스게임은 이런 식으로 약 뒤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나는 그 무슨 <요지경>을 본 것만 같았다.

미성년 학생들의 수준이 이러하니 어른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싶었다.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와 학생소년들의 마스게임을 통해서 이북동포들의 조직성과 단결력을 나는 실감할 수 있었다.

실지에 있어서 이북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집단속에서 생활하고 규율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이북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통일되고 매 사람은 각기 자기가 차지한 위치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여 유기체의 기능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상 싶었다.

과연 단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느낀 솔직한 소감이었다.

자율(自律)의 질서

그러면 이북민중의 그 강한 조직성, 그 단결력은 어데서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설문해 보았다.

과연 기왕에 이남에서 또는 해외에서 듣던 바대로 어떤 강제적인 힘이 지배하는 탓일까? 말하자면 철(鐵)의 규율이라는 것일까? 표면상으로 관찰하면 이북사람들의 생활은 철의 규율밑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명령과 지휘에 따라 움직일줄만 아는 기계적인 인간이 있을 뿐 개성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는 저 남녀노소의 얼굴에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희망에 넘쳐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북에 체류하는 동안 내가 접촉하고 만나본 이들 가운데서 안색에 그늘이 지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군중시위나 마스게임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있었으며 환희에 찬 표정이 아니었던가! 철의 규율에 얽매인 기계적인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인간의 표정까지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예에게 채찍을 휘둘러 자유인의 웃음을 지으라고 아무리 강제해도 그게 될번이나 한 일인가! 나는 집단속에서 존재하는 이북사람들의 개개의 밝은 표정을 통해 내가 이때까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윤리(倫理)를 해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집단의 규율과 질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유의지 바로 그것이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강한 단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가지 견문을 통해서 이북사람들이 그러한 자율적인 규율생활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말한 노동당 6차대회 군중데모를 조직할 때의 일이 었다고 한다.

100만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인만큼 처음에 조직자 측에서는 그만한 수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기우(杞憂)였다. 데모가 조직된다고 하니까 평양시내 각 직장과 가두에서 나도나도 하고 나섰다. 평양서 좀 떨어진 지방의 공장들에서까지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제의해 왔다. 집

산해보니 예정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제반조건으로 보아 시위군중이 100만을 초과해서는 안되었다. 그래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에 응하는 단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나가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 여러차례 권유하고 양해를 구한 끝에 겨우 100만명 수준으로 낙착지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집단적인 행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려는 이북 민중의 그 마음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는 그것은 집단을 떠나서 나 개인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와 민족의 공동생활속에 나 개인의 인간적 삶이 있다고 보는 이북민중의 생활관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북에 가면 흔히 거리에 나붙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통해서 그러한 생활관을 뚜렷이 느끼었다.

그 표어는 유다르면서도 매우 흥미 있는 표어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고 하면 전체주의를 연상할 수 있다. 지난날의 전제군주나 현재의 독재국가의 집권자들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개개의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희생을 강요한 슬로건이 바로 이런 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그 밑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사회 또한 민족 전체가 개개의 구성원(構成員)을 위한다는 뜻이다. 좀더 깊이 풀이해 보면 일개인의 운명이 무시되고서는 전체의 운명이 순조로울 수 없고 매 개인을 돌보는 거기에 전체 즉 사회와 국가의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민본(民本)주의라 할지, 어쨌든 인간을 중시하는 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전체가 하나를 위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를 위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강박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자율적인 집단참여의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파악하였다.

나는 이 사실을 이북에서 들은 한두가지 감명깊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증시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젠가 건설노동을 하다가 한 청년이 심한 타박상을 입고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 이북에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여명의 의료진이 헬기를 타고 평양으로부터 현지에 날아와 집중치료를 했

는데 이 소문이 퍼지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청년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물질적 수단까지 보내왔다고 한다. 말 그대로 전국적 관심속에서 60여일만에 기적적으로 그 청년은 생명이 구원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또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있은 일로서 한 어린 학생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마을에서는 그 어린 학생을 계속 수학시키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공론한 끝에 그 학생네 집을 학교근처로 이사시키고 학급담임선생과 같은 학급반 동무들이 10여년을 하루같이 업어오고 업어다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켜 끝내 한사람의 기술자로 키워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와 전체〉, 〈개인과 사회〉가 이익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이해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로 만든 규율은 일시적이고 그러한 규율에 기초한 인간집단은 상시적으로 와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결합이지만 자율성으로 얻어지는 규율은 항구적이며 그런 규율과 질서에 기초한 인간들의 결합은 허물 수 없는 견고한 결합이다. 이북사람들의 단합은 후자에 속하는 견고한 결합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단합의 사회구조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전체가 하나를 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인간관계이며 그러한 인간관계에 기초한 국민들의 단합은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 이상이 뿌리를 내리고 꽃필 수 있는 사회정치적 풍토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북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민단합이 그처럼 견고한 것이라면 그럴만한 근거를 이북의 사회구조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북의 집권당인 노동당의 당장(黨章)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권의 다른 나라들의 당장이나 국기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소련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국기나 공산당의 당장을 보면 대체로 마치와 낫이 그려져 있는 것이 상례

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한 것이다.

그런데 이북 노동당의 당장에는 마치와 낫에 붓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 붓은 지식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북사람들은 말하였다.

노동자, 농민과 지식인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고 이북사회주의의 이념이라고 그들은 설명하였다.

이런 설명을 듣고 노동당의 당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내 나름으로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다른 공산권나라의 것은 마치와 낫뿐인데 이북 노동당의 당장에는 마치와 낫이 서로 어울려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 붓이 그려져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에 지식인이 참여할 뿐 아니라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북의 간부들이 그런 말은 안했지만 나는 바로 그렇게 해석하였다.

지식인이라고 하면 유산층에 속한다. 지금 이북의 지식인이 유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직후 이북에서 노동당을 창당할 당시의 지식인은 적어도 중산계급이상의 유산계급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북의 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만 내세우고 유산계급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나가는 사회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전민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주체적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북에서는 그러한 민족단합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특색있는 혁명을 하고 특색있는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했다고 한다.

이북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된 것은 50년대 후반기라고 한다. 그때 이북에서는 농업협동화를 함에 있어서도 소련에서 한 것처럼 부농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개조정책을 썼으며, 민족자본가의 경우에도 소련에서처럼 수탈, 숙청한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을 교양해서 그들 스스로가 사회주의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북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탄생한 당초부터 구조적으로 계급 일변도가 아니라 민족적 단합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

그리고 이북당국이 유산층 출신의 지식인들을 대해온 자세문제도

이러한 문맥(文脈)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흔히 이남이나 해외교포사회에서는 이북의 공산치하에서 인텔리는 유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백안시되고 배척당하며, 설사 얼마쯤 기용(起用)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일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어느때에 가서는 차버리게 된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북의 실정은 판이한 것이었다.
이북에서는 해방직후 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된 다음에도 지식인들을 배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어주고 후대하며, 손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북 정무원의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건설을 담당한 장관급이라 할 수 있다.)은 지난날 1만5천정보의 땅을 가진 평남도 강남군의 대지주의 아들로서 일제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며 금속공업부장(역시 장관급)도 용강군의 큰 지주의 아들이라고 한다.
비날론 연구를 완성한 유명한 이승기박사는 일찌기 일본의 명문대학인 경도제대를 졸업하고 8.15후 일본에서 서울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북으로 들어왔는데 이북당국의 각별한 신임아래 대성하여 오늘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학자인 그에게 줄 수 있는 명예칭호는 다 주고도 또다시 그를 노력영웅으로 부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으로 선거하고 있는 사실은 이승기박사에 대한 이북당국의 신임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기는 이북에서도 해방초기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유산계급출신의 지식인에 대해서 출신이 어떻소, 무엇이 어떻소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일성주석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지식인들을 배척하는 것은 일종의 분파주의라고 엄하게 지탄하셨다는 것이다.
이북에서 볼 수 있는 전국민적 단합, 사람들 사이의 공고한 결합은 바로 민족단합을 중시하는 사회체제의 토양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이북에 주체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신 분은 김일성주석이시다.
김주석의 영도에 의하여 이북에는 민족중흥의 대업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만민복지의 사회가 솟아났다.

전국민이 김주석을 존경하고 주석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결합이 공고한 것처럼 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북민중의 단합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막강한 것이라고 나는 재삼 생각하였다.

제 5 장

민 족 과 영 도

제 1 절
항일의 영장(領將)

첫 접견

나는 이북을 두어번 방문하는 과정에서 몇차례나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특전을 누리었다. 김주석의 접견을 받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이북방문에서 절정(絕頂)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김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이북사회가 경이적으로 변모된 근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배달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로운 안목으로 인식하고 민족의 운명공동체내에서 내가 차지해야 할 좌표를 늦게나마 바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장 감명깊었던 첫 접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옵는 것은 이북방문의 길에 오른 당초부터 내가 품고 있었던 은근한 희망이었다.

우선 통일문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전도에 관한 주석의 고견을 직접 그분으로부터 듣고 싶었다. 더우기 그곳에 도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건설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이북사회를 오늘의 수준에로 이끌어 올리신 그 영도자를 한번 만나뵙고저 하는 나의 소망은 더욱 부풀어오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북에서 생애를 마치신 내 선친의 여생을 따뜻이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주석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할 인간적 도리와 의무도 내게는 있었다. 물론 6.25사변때 북으로 갔다가 김주석의 보살핌을 받은 이남의 정치인들은 비단 나의 선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고 전해 들은바 있지만 주석과 우리 가문 사이에 맺어진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인연을 상기할 때 내게는 선친에 대한 주석의 배려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제1장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일찌기 우리 가족이 만주에서 살고 있었던 1920년대에 나의 선친은 길림성 화전현에서 화성의숙(華成義塾)의 숙장으로서 일한 일이 있었다.

김주석께서는 1926년에 바로 의숙에서 얼마동안 공부하셨던 것이

다. 후에 안 일이지만 당시 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 회장으로서 조선과 만주 일대에서 명망이 높은 민족운동지도자였던 주석의 아버님 김형직(金亨稷)선생께서 이해 6월에 무송에서 별세하시자, 그분의 친구들의 주선으로 주석께서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었다고 한다.

일찌기 서울에서 생존시기에 나의 어머님은 이북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김일성장군이 바로 왕년에 화성의숙에서 공부한 일이 있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버님에게서 듣고 알고 계셨다. 그에 의하면 그때 그분의 성함은 김성주(金成柱)라고 하였는데 어머님이 해방후까지 그분을 기억하게 된 것은 그분께서 나의 아버님을 따라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드시면서 책도 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었고 어머님은 그분에게 빨래를 해드리곤 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루는 빨래를 하려고 여벌로 있던 성주학생의 속옷을 찾았으나 보이지를 않았다. 그 속옷은 그분이 화성의숙에 올 때 어머님께서 지어주신거라고 했다.

내가 속옷을 어쨌느냐고 물으니 그분은 웃으면서 사정이 딱한 친구에게 주었다고 했다. 그분은 이처럼 친구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장차 그분이 독립운동의 큰 인물이 될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바로 그분, 일찌기 화성의숙의 김성주청년 그리고 오늘은 김일성주석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정사에 다망한 그분을 만나뵈려는 나의 희망이 그렇게 쉽게 풀리리라고는 전혀 예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당 기쁨이 앞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 8.15후 30년 세월을 이남에서 살면서 이러저러한 고위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지나간 날들의 생활경력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조국이 분단되고 남과 북에 서로 상반되는 사회체제와 권력구조가 세워진 상황하에서 반공대결체제인 남에서의 나의 활동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북을 반대하는데로 귀착되었으며, 주관적 의도는 여하간에 결과에 있어서 통일을 가로막는데서 한몫을 한 나 자신을 놓고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은바 있어 이남의 집권층과 인연을 끊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운동에서 하나의 서까래나 기왓장이 되기를 염원하여 나서게 되고 이북을 방문하는 용단까지 내리기

는 하였으나 나의 과거가 과거인지라 비록 최홍희총재로부터 김주석의 너그러운 인품에 대하여 들은바 있었다 해도 막상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분과의 상면을 앞두고 마음이 긴장해지는데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마침내 차는 호수기슭에 서있는 한 건물의 구내에로 천천히 들어섰다.

그런데 천만뜻밖의 일이었다. 김주석께서 현관앞 마당에 나오시어 나를 기다리고 서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북의 신문에 난 사진이나 텔레비화면을 통해서 느낀 바도 있었지만 주석의 풍채는 과연 늠름하고 위풍당당하였으며, 안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 있어서 누구에게나 친숙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서두르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럴 겨를도 주지 않고 내 앞에 다가서서 내 손을 두손으로 굳게 잡으시며 다정하게 포옹하셨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을 맞아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정이 내 심장에 흘러드는 것을 나는 느꼈다.

응접실에 들어선 주석께서는 자신의 곁에 나의 자리를 잡아주시면서 앉기를 권하셨다. 그분께서는 먼저 나에게 건강한가, 그리고 올해에 예순 몇이 되는가고 친절하게 물으셨다.

나는 황황히 몇마디 대답을 드리고나서 주석님을 만나뵙게 된 나의 기쁨을 표시하였다.

그분께서는 나를 만나니 최의산선생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최의산선생은 화성의숙때의 당신의 스승이였다고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셨다. 의산(義山)이란 나의 선친 최동오(崔東旿)의 별호이다. 김주석께서는 바로 나의 선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창밖에 펼쳐진 넓은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아득히 지나가버린 50여년전의 과거를 회고하시는듯 그분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

우리 가족들이 주석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주석께서도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주석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주석께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대로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노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셨다.

「그때는 누구나 다 생활이 곤란할 때이므로 선생의 집에서도 나에게 조밥에 시래깃국을 해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읍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소리내어 밝게 웃기도 하셨다. 말씀을 계속하시는 그분의 태도가 너무도 인간적이며, 하도 소탈하고 겸허하시어 긴장됐던 나의 심정은 어느덧 눈녹듯이 풀려버렸다.

주석께서는 우리들로서는 최의산선생을 잘 모시느라고 하였는데 퍽 건강하던 분이 뜻밖에도 심장마비로 1963년 9월에 돌아가시었다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고 나의 어머님이 지금 서울에 생존해 계시는가고 문의하시기도 하였다.

주석의 말씀은 주로 나의 선친에 대한 이야기로 돌려졌다. 주석께서는 나의 선친의 너그러운 인품에 대하여 그리고 화성의숙때 자신을 매우 사랑해 준데 대하여 한동안 회고한 다음 6.25동란때 월북한 나의 선친의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에 의하면 나의 아버님은 평양에 들어간 이후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몹시 애쓰시었고 김주석께 좋은 의견도 많이 제기하군 하였는데 그만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 돌아가시었다는 것이다.

김성주—김일성

이 사람은 김일성주석과 마주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김주석과 우리 집안사이에 어떤 끊을 수 없는 운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새삼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나의 선친과 김주석의 선친 김형직선생은 3.1운동이후 만주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지사(志士)로서 서로 교분이 있었다.

그후 김주석께서는 동만에 진출하시어 항일유격전을 벌이시고 나의 선친은 중국관내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김주석과 우리 잡안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으나 해방후 선친이 평양에 가서 김주석을 만나뵙고 돌아온 결과 한때 끊어졌던 연계가 회복되었다. 다시 이태후 나의 선친은 월북하여 김주석의 보호하에서 14년동안이나 생활하다 돌아가시었다.

이를테면 우리 집안 그중에서도 나의 선친은 풍운의 뜻을 품고 항일운동의 길에 나선 김성주청년으로부터 항일유격전의 영웅 김일성장군을 거쳐 오늘의 김일성주석에 이르는 한 위인(偉人)의 성장과정의 목격자인 동시에 그분의 정치활동사(史)에 대한 증언자이기도 한 셈이었다.

김주석과 우리 집안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나자신도 김주석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길림 문광중학교에 다닐 때 들은 바이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 육문중학교 학생시절부터 조선인 청년들 속에서 명망이 대단히 높았으며, 내가 다니던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 각 학교에 그분의 지도밑에 움직이는 서클이 수많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한다.

청년들 뿐이 아니였다. 김성주청년의 반일활동이 본격화되자 민족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 칭송했다. 당시 길림지구에서 민족운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손정도목사 같은 분도 김장군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했으며, 남만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부대의 양세봉사령은 김장군부대와 손잡고 싸우다가 후에 일제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내가 선친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20년대 말 30년대 초 김장군께서 항일유격전을 준비하시던 시기의 일로서 이런 사실도 있었다.

그때 만주에 있던 〈국민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의 한사람으로서 현묵관씨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휘하 독립군의 많은 청년들이 김장군을 존경하고 장군을 따라가는 통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한번은 한 중대장이 중대 전원을 인솔하고 김장군편으로 넘어간 일도 있었다.

현묵관씨는 후에 중국 남경에 와서 나의 아버님께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때문에 김성주청년과 대립되어 있었지만 그 청년이야말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감탄해마지않았다고 한다.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군의 후퇴에 따라 호남성 장사시(湖南省長沙市)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날 임시정부청사에서 회의도중 이운한이라는 청년에게 저격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김장군이 항일유격전의 군사를 일으킨 이후 나는 중국 관내에 들어가 국민정부의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김장군의 군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길은 없었으나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김장군이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본의 100만관동군을 쩔쩔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한번은 중경에 와있는 상해임시정부에서 일하는 분 한분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보관해 두었던 〈동아일보〉를 내보이면서 김장군부대의 보천보습격전투에 대해 흥분해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의하면 1937년 여름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로 진출한 김장군부대는 함

경남도 혜산군 보천면을 들이쳐서 일본침략자들을 몰살냈을 뿐 아니라 추격해 오는 일본군과 위만군의 대부대를 유인타격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통쾌한 소식이었다.

이무렵 일본이 중국관내까지 쳐들어 오면서 중국 국민정부는 패전을 거듭하고 일본군이 대륙을 석권하게 되자 당시 중경에 옮겨와 있던 조선청년들 가운데서 동요를 일으킨 사람이 많았고 김장군의 명성을 듣고 만주로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후 나는 중국 국민정부 군대의 장교로서 멀리 남중국일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동포들과 연계를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을 통해 김장군 항일유격전의 소식을 직접 알길은 없었지만 중국인 동료들을 통해 김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만주에서 일제를 치고 있는 김장군부대의 전투소식을 알려주면서 당신네 나라 김사령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비록 중국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족의 자부심으로 해서 자연히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었다.

8.15후 서울에 돌아와서도 나는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을 향유한 많지 않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어머님에게서 화성의숙 당시에 숙생으로 계시었던 분이 바로 지금의 김일성장군이시라는 말을 들었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버님으로부터 더욱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평양에서 돌아온 선친이 가족들 앞에서 벌써 화성의숙 시절의 김성주청년에게서 앞으로 대성(大成)할 인물의 영특한 자질이 완연하였다고 말씀하시던 일이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당시 나는 이런 이야기는 귓등으로 들어넘기면서 문제를 파고 들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이남의 정치권력과 깊숙이 연류되어 있었던 당시의 나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거로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몇십년이 지나 지금은 드디어 김주석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김주석과 우리 가문사이에 이어진 운명선이 한때 그 선 밖으로 벗

어져 나갔던 나를 끝내는 제 위치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에게는 김일성주석의 항일운동사를 깊이 연구하고 싶은 의욕이 강하게 일어 그와 관련된 책자들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평양의 혁명박물관과 백두산 일대의 항일유격전 전적지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

새로 창작되어 상영되기 시작한 다부작(多部作) 예술영화 〈조선의 별〉은 항일유격전을 준비하던 시기의 김주석의 활동을 주제(主題)로 한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는 그 시기의 김주석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재인식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된 항일운동시기 김주석의 면모를 간추려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저 한다.

화성의숙에 다니시던 왕년의 김일성주석 즉 김성주청년은 얼마후에 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육문(毓文)중학교에 입학하셨다.(제1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나도 길림에서 공부할 때 이 학교를 알고 있었다.) 그분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하신 이유는 시세에 뒤떨어진 의숙의 교육방침에 불만을 느끼고 선진사상을 지향하셨기 때문이었다.

겨우 15세 청년으로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년으로서 학교의 교육방침에 의견을 품고 결연히 학교를 떠나신 그것 자체가 성장과정에 있는 그분의 비범한 정신적 역량, 움직일 수 없는 주견의 힘을 보여주는 내면세계의 생동한 단면이었다.

김성주청년이 길림에 진출하시자 얼마 안되어 그분의 주변에는 그분께서 화성의숙시절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비합법결사인 〈타도제국주의동맹〉(보통 ㅌ.ㄷ라는 약칭으로 부른다.)에 망라되었다가 후에 그분을 따라 길림으로 나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청년들이 결집되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는 미구에 온 길림땅을 들었다 놓았으며 이어 중국각지로 파급된 일제에 의한 길회(吉會)선(길림과 회령사이) 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반일투쟁을 지도하여 재만조선인 반일운동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시었다.

이리하여 일약 강력한 학생지도자로 부상하여 명성을 떨치셨다.

그분께서는 당시 길림재류조선인 학생들의 유일한 연합조직이었던 〈조선인 유길(留吉)학우회〉의 회장으로 추대되는데까지 이르렀으며, 재만조선인 청년들 속에서 동경과 선망과 존경의 대상으로 되시었다.

과거의 민족주의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자주이념과 민중중심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오신 김성주청년의 둘레에 형성된 바로 그 청년집단속에서 샛별처럼 나타난 자기의 지도자에 대해 존경과 기대를 담아 높이 부르려는 염원이 표명되었다.

동지들의 일치한 의견에 의하여 이 청년지도자는 처음에는 조선에 나타난 샛별이라는 뜻에서 <일성>(一星) 혹은 <한별>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후에 다시 그토록 출중한 지도자를 어찌 샛별에만 비기랴 하면서 이번에는 민중의 태양으로 되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 다시 <日成>으로 고쳐부르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그분은 <金日成>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추측컨대는 성주(成柱)라는 김주석의 원래의 이름도 깊은 뜻이 담겨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던 김형직선생이 자제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희망을 표시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런데 김주석께서 20전의 젊으신 나이에 혁명운동의 첫 걸음을 내디디자마자 나라를 떠받들 <기둥>으로부터 어둠속에 잠긴 겨레의 진로를 밝혀주는 <샛별>로 나아가서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밝은 미래에로 이끌어 줄 <태양>으로 주변 동지들과 민중의 추앙을 받게 된 것이다.

전설적인 청년장군

그 이후 김주석의 활동경로는 동지들과 민중의 믿음과 기대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길림지구에서 북간도로 활동무대를 옮긴 김주석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안도(安圖)의 한 수림속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셨다. 그때 김주석께서는 겨우 갓 스물 나이의 젊은 청년이었다.

유격대 창건에 대한 충격적인 풍문은 삽시에 전동북땅을 휩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 동포들의 귀에까지 전하여졌다. 민중에게는 그것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대 희소식이었으나 일제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공포와 불안의 신호였다.

김일성장군께서 영도하신 혁명군은 15성상에 걸치는 기나긴 세월

만주광야를 종횡으로 누비면서 맹위(猛威)를 떨쳤으며 때때로 북부국경을 넘나들면서 국내진공작전을 벌여 일본제국주의통치배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나는 김장군께서 진행하신 국내진공작전 가운데서도 특히 유명한 〈보천보(普天堡)전투〉 전적지를 답사한바 있다. 거기서 나는 혁명군에게 습격당하여 총탄구멍이 여기저기 숭숭한 보천보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한 일련의 전투유적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 전투와 관련된 당시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들이 또한 보천보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 기사의 표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共產大部隊越境襲來 駐在所等 官公署放火〉 〈金日成部隊 六百名越境襲擊의 態勢 咸南北警察隊緊張〉〈金日成部隊主力과 討伐隊激戰 演出 白頭山麓密林地帶〉

청년 김일성장군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었다. 김장군부대는 언제나 주동적으로 바라는 때 바라는 곳에서 싸웠으며, 제때에 공격하고 제때에 방어하면서 과감하게 또한 영활(靈活)하게 싸웠다.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치며, 적이 모르게 수백리길을 달려가서 적의 앞길을 막고 기다렸다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들이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쳐없애는가 하면 소부대를 시켜 적을 유리한 지세에 유인하여 놓고 매복하였던 아군이 사면팔방에서 적을 쏘아눕혀 순식간에 결판을 내기도 하였다. 때로는 멀리 피해가는척 하면서 돌아서서는 바로 그 코밑에 숨었다가 허둥지둥 뒤쫓아가는 적에게 벼락을 안기는 일도 있었다. 적이 밀림지대로 아군을 따라 몰려들때에는 오히려 아군은 은밀히 평지대로 빠져나가 적이 닦아놓은 경비도로를 백주에 보무당당히 행군한 적도 있었다. 내가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통과한 일이 있었던 갑무(甲山茂山間)도로도 바로 그러한 도로였다. 나는 그 길을 차로 달리면서 그 옛날 장군의 유격대가 긴장되어 이 길을 행군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듯 하였다. 이렇게 평지대에서 작전하다가도 적이 아군을 따라 또 평지대로 내려오면 이번에는 반대로 밀림지대로 들어가며, 그러다가는 따라오는 적들을 유리한 지점에서 따돌린 후 다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이처럼 김장군께서는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시었으나 항일유격전시기의 김장군의 모습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면 그것은 일면적인 고찰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이 시기 김일성장군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실 정치지도자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도 유감없이 보여주시었다.

우선 김장군께서는 그 시기 독특한 철학을 내놓으시고 그 이념밑에 항일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한 사상가-정치가이시었다. 오늘 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주체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주체사상은 김장군께서 항일운동에 나서시면서 겨레의 힘을 믿지 않고 외국의 도움에 의해서 독립을 달성해 보려고 하며 민중과 유리되어 파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 이전 시기 공산주의운동이나 민족주의운동의 헛점을 간파하고 새롭게 내놓으신 사상이라고 한다. 나에게는 이 주체사상이 민족자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었다. 이 세상은 대소 민족들이 대결하는 비정(非情)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개척해 줄 자는 그 민족 자신밖에 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김장군의 항일유격대가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이긴 비결이 이 민족 주체의 정신력에 있는 것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김장군께서는 또한 민중을 단합시켜 항일독립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대단한 조직적 수완을 보여주시었다.

일제를 내쫓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자면 전민족이 단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노동자나 농민뿐 아니라 지식인, 종교인, 자본가 등 모든 반일세력이 총 집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장군께서 항일의 길에 나서시면서 일관하게 주장한 문제였다. 장군의 이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 1936년에 형성된 반일지하조직 〈조국광복회〉이다. 김장군께서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자마자 만주는 물론 북부조선일대와 서울에까지 공작원을 파견하시어 그 조직망을 늘이시었다고 한다. 함경도 지방의 천도교 종리원 책임자였던 박인진선생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조국광복회에 들어가 활동한 기록을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그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 살벌하던 세월에 국내에 이런 강력한 반일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김장군께서 영솔한 반일운동의 위력이 재삼 느껴졌다.

항일운동시기 김장군께서는 새로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뛰어난 실천가이시기도 하였다.

나는 당시 간도지방의 깊은 수림지대에 형성되었던 〈유격근거지〉에 관한 자료도 살펴보았는데 매우 흥미를 끄는 자료였다. 〈유격근

거지〉란 항일유격대의 보급기지라는 의미로 나에게는 해석되었는데 여기서는 일제의 통치체제가 청산되고 조선사람들의 정권이 수립되어 조선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민족공화국〉이었다. 1930년대에 일본놈의 코앞에서 그리고 일본군의 포위속에서 이러한 유격근거지가 형성되고 다년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다.

조선사람끼리 모여 화목하게 사는 이 별천지-유격근거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만강연안의 우리 동포들이 속속 그리로 몰려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기사도 나는 여러건 읽어보았다.

해방후 평양에 개선하신 김장군께서 즉각 민족자주의 정치강령을 내걸고 독특한 정치를 펴실 수 있은 근거가 바로 이 30년대 유격근거지에서의 정치적 실험에 기초한 것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항일운동시기의 김장군께서는 군사의 거인(巨人), 사상의 거인, 정치의 거인이시었으며, 민족의 희망이었다. 그런즉 당시 국내 동포들 속에서 김장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가지가지의 전설과 같은 풍문이 떠돌만도 한 일이었다.

내가 해방후 서울에 들어가서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은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난다.

일제가 패전하기 몇해전에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안면이 수려한 한 청년신사가 입원했다가 퇴원하였다. 그가 퇴원한 후 그의 침상을 보니 〈김일성〉이라고 쓴 명함이 한장 놓여있었다. 신고를 받은 일본경찰이 급히 추격했으나 청년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축지법〉을 써서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김장군의 거인상(巨人像)이 민심에 반영되어 나온 민중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진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김장군께서는 거인적인 존재이시었으나 그분의 나이는 너무나도 젊으시었다. 한때 동북지방에 우후죽순처럼 나섰던 항일무장세력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유격대를 인솔하시고 김장군께서 평양에 개선하셨을 때 장군은 겨우 서른네살의 청년이었다.

〈백두산의 호랑이〉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김장군이 그처럼 젊은 분이시었던가! 그때까지 장군을 만나뵌 일이 없고 장군의 경력을 알길이 없었던 국내 동포들 속에서 이런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

온 것도 있을만한 일이였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였던지 아니었던지는 모르겠으나 해방후 이남에서 또하나의 꾸며진 전설이 떠돌았다. 북에 개선한 김장군과 항일유격전을 한 김장군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라는 것이다. 만주에서 싸운 김장군은 나이 지숙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이였다.

당시 서울에서 나는 이 동명이인설이 북을 반대해서 꾸며진 데마라는 것을 까밝힐만한 기본적인 근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하지 못한 일을 이제 비로소 이 글을 통해서 한 셈이지만 끝으로 참고삼아 한국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씨의 견해를 여기에 한마디 더 첨가해 두고저 한다.

김형욱씨는 자기의 유고(遺稿) <권력과 음모>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승만박사의 자유당정권때부터 김장군에 대한 동명이인설이 유포되기 시작하더니 박정희정권에 이르러 그것이 더욱 집요하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었다. 그네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것은 박정희가 바로 김장군의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는 일본군의 장교였다는 죄의식에서 오는 반발심리에 기인한다.

김형욱씨는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자기는 서울서 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히 발설할 용기도, 필요도 없었노라고 고백하였다.

오늘의 김주석의 풍모

왕년의 청년장군, 오늘의 김주석과 나는 지금 마주앉아있다. 주석에게서 나는 지난날의 백전(百戰) 영웅, 항일구국의 민족적 성전(聖戰)에서 용맹을 떨치시던 영장(領將)의 기상을 역력히 찾아보았다.

나도 군인이다. 지금은 쓸모없게 된 퇴역장성에 불과하지만 일찌기 싸움터에서 젊은 시절을 다 흘려보낸 늙은 무인(武人)이다. 무인만이 무인을 알아보는 법이다. 나는 다만 한번 만나뵙고 나서도 이미 고희에 이르신 그분의 모습에서 지난 시기의 항일의 영장의 풍모를 똑똑히 느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갔다한들 천군만마를 격타하던

장군의 기상이야 어디에 가랴.

〈노익장〉(老益壯)이라고 한 말 그대로 건강과 정력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기품, 철의 의지가 흐르는듯한 안광, 그것은 오랜 세월 군사에서 단련된 무장(武將)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석께서도 과거의 일을 회고하여 나에게 몇마디 들려주셨다. 길림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을 규합하여 일화(日貨~즉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이던 일이며 유격전을 한창 벌일 때 서울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내오기 위해 일제의 총검의 숲을 뚫고 공작원을 파견하던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회상하셨다. 그럴 때면 주석의 안색은 매우 엄숙해지군 하였다. 주석과 마주앉아 내가 받은 인상은 무장다운 풍모 그것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온후하고 인자한 그 인품이 나에게는 강하게 안겨왔다. 주석의 언어와 몸가짐에는 봄날에 따사로움이 있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움이 있었으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한 어떠한 사람과도 더불어 손잡고 같이 가려는 너그러움이 있었다.

이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석께서는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과 장래 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었다.

주석께서는 이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가진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지금 나라가 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통일을 위해 한몫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격려하셨다.

주석께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민족의 이익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공산주의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적 이익을 더 먼저 내세우고 있읍니다. 나는 혁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것을 언제나 철칙으로 삼고 있읍니다.」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공산주의냐 민족주의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공산주의를 둘째로 치고 민족의 통일을 첫째로 삼는다고 주석께서는 거듭 강조하시었다.

나는 특히 김주석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일본놈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언제나 민족문제를 생각하였읍니다. 자기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를 해서 무엇하

겠읍니까.」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나에게는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다. 민족을 위한 공산주의, 민족을 위한 혁명, 민족을 위한 무장항일유격전! 가치체계에서 민족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투철한 정신적 자세, 그것이 바로 김주석에게서 볼 수 있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고매한 인품의 바탕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그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시기에 김주석께서는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하시지만 겨레에 대해서는 민족을 이루는 매 성원에 대해서는 봄날의 햇빛처럼 따사로움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의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김주석에게서 내가 찾아 헤매던 민족의 진정한 영도자를 보았다.

제 2 절

새로운 민족사상

"주체"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면 어지간히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인줄 안다. 이북의 사회체제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북의 제반문제에 시선을 돌리면 반드시 이 단어에 부딪치게 된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사상이다. 이북에서는 이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정치가 시행되고 경제와 문화가 건설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이 영위되고 있다. 이북의 사회현실을 알자면 주체사상을 알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어느 정도라도 알아야 이북의 실태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주체사상을 이해함이 없이는 이북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복지사회 건설의 독특한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된 비결과 이 사업을 선도한 김주석의 영도자적 풍모를 옳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본인은 이북방문의 나날 김주석의 주체사상에 관심을 돌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기에 힘썼다.

미국인의 이북방문기

이 사람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북을 방문하기전부터였다. 서울을 떠나 미국에 망명한지 얼마간 되는 때였다고 기억된다. 미국정계에서 새어나와 나도는 다음과 같은 소문을 전해들은 일이 있다.

즉 1973년 가을에 당시 알제리의 부메디엔대통령이 국련총회 참석차로 미국에 왔다가 미정계의 고위급인물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 미국사람은 서울정권에는 철학이 없지만 평양의 지도자에게는 철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평양지도자의 철학이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평양측과 극도의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정객의 입에서 나온 말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소리였다. 그것은 결국 민족자주성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을 인정한다는 소리였다.

이 소문을 듣고 나는 일정한 충격을 받았다.

그후 이 사람이 이북을 방문할 결심을 가지고 이북의 실태자료들을 수집연구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에 더욱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이 무렵 미국 친우봉사회(AFSC)대표단의 이북방문기에 접하게 되었다. 친우봉사회는 퀘커교 계통에 속하는 미국의 사회문제 연구단체인데 1980년 9월에 이북에 방문단을 파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북을 방문하기 1년전이다. 10여일간 이북을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친우봉사회 대표단은 이북방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본 이북의 현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이북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철학 문제였다.

해당한 몇개 문장을 보고서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주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한의 철학인 주체에 대하여 서방나라들에서는 많은 경우 미사여구(美辞麗句)로 오해되고 있으나 그 사상은 실지에 있어서 사회전반에 파급되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전반적인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비동맹외교에 상응한 것이며

그것은 이 나라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신념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이며 자신에 충만되어 있다.」

이 미국사람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주체사상이란 서방세계에서 곡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며 이북은 주체사상을 실천에 적용해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제3세계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세계 각 지역에서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서클활동이 널리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유의하고 민족적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느꼈다. 한 약소국가에서 제기된 어떤 사상이 민족의 참다운 자주독립의 길을 밝히는 사상으로 세계의 각 민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우기 그것이 비록 체제는 다르다 해도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눈 민족의 한 부분에서 제기된 사상이라고 생각할 때 일종의 기쁨 또는 자랑과 같은 감정의 물결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주체사상이란 어떤 사상이기에 이토록 후진국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인가. 주체사상의 매력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때까지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억압당하고 모멸과 설움 속에서 살아온 약소민족들에게 재생의 길을 밝혀주는 그 어떤 진리가 담겨진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차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내가 주체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마음의 계기와 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주체"의 의미

이 사람은 이북에 체류하는 기간 주체사상에 대해서 쓴 책도 좀 읽어보고 그 부문 학자들한테서 설명도 들어보았다.

사회과학자가 아닌 이 사람이 더우기 그런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 주체사상을 알게 되었다고 장담할 처지는 못된다.

그런대로 내가 책을 읽고 그곳 학자들한테서 들은 지식에 기초해

서 주체사상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세워보느라고 하였다.

우선 주체사상이란 인간중심, 인간위주의 철학에 기초한 사상이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개척자이며 세계의 개조자라는 철학적 세계관에 토대해서 주체사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종래의 관념론을 반대해서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주의가 나왔다면 주체사상은 유물론을 긍정하면서도 세계를 물질중심으로만 보는 그 일면성을 극복하고 인간중심의 사상을 새롭게 제기한데 그 특징이 있다고 그곳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아하, 그렇다면 주체사상이란 유인론(唯人論)이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세계에서는 물질도 정신도 다 부정못한다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그런데 정신만 강조하는 것이 유신론이고 물질만 강조하는 것이 유물론이라면 주체사상은 이 양자에 비해 보다 고차원에 서있는 사상 즉 유인론이 아닌가 하는 나의 판단이었다.

이런 유인론의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세상만사를 세계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체사상에 대한 나의 첫째 인식이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은 민족자주의 사상이라고 하였다.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의 운명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모든 민족은 자기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갈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이북의 학자들은 강조하였다.

이 점은 나에게도 쉽게 이해되었다. 민족은 인간이 결합된 가장 큰 사회집단이고 인류사회는 대소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큼 사람이 자유롭게 살려면 민족이 자유로와야 하며 민족이 부강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세계에는 강대한 민족이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 유린이다. 평소에 본인은 대소 민족이 다 평등하게 살고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할 길은 없겠는가,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민족의 자주권을 그처럼 중시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쉽게 공감이 갔다.

이렇게 되어 주체사상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 것은 내가 주체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체사상을 이해하는데서 그 사상을 제창하신 분한테서 설명

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김주석과의 면담에서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가 논의된 것만큼 주석께서도 민족의 자주권문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셨다.
이하 주석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을 정리해 본다.
주석의 말씀에 일관되어 있는 사상은 민족의 자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없는 민족이란 사람에게 비유하면 목숨을 잃은 존재와 같다는 것이었다. 민족의 존엄도 영예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부강한 민족국가건설도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요한 것은 사대주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석께서는 강조하시고 우리가 과거 이조시기와 같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남의 장단에 놀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다.
주석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닌 우리 식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해 왔다고 하시면서 그후 사회주의건설 단계에 와서도 다른 나라식이 아닌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왔다고 강조하시었다.
계속해서 주석께서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매어 살기를 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소련이나 중국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주석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내가 특별히 말하고저 하는 것은 큰 나라들이 다 우리 나라를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점이라고 하셨다.
민족자주사상으로 일관된 김주석의 견해에 대하여 나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 민족자주사상이 실현되어 이북사회가 마치 지상천국처럼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주석께서는 웃음띤 어조로 그것이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내천」이라는 것이 아닌가고 하시었다. 주석의 이 말씀을 나는 주체사상과 천도교의 교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천도교와 주체사상

이 사람은 이북방문기간에 오랫동안 연락 한번 취할 길이 없었던 이북의 천도교 동덕들과 상면할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에 나는 이북천도교의 실태도 알아보았고 동덕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북의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보기에 힘썼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와 같이 교세는 그리 크지 못했으며 교인수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진지하고 독실한 것으로 인상받았다.

우리 천도교에 대한 이북당국의 태도도 호의적인 것 같았다.

평양의 중심지에 낮으막하게 솟아오른 구릉(丘陵)이 있는데 창광산이라 하였다.

그 기슭에 아담한 다층건물이 한채 있는데 천도교청우당 중앙본부 회관이었다.

그 건물안에 들어서면서 나의 첫눈에 안겨온 것은 천도교 1세교조인 수운대신사 최제우스승님의 초상이 걸려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혁위원장을 비롯해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였다.

우리 남북동덕들의 활동상황을 서로 통보하고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의 상봉을 기념하여 나는 서울 천도교중앙총본부에서 만든 「천도교경전」을 정신혁위원장에게 증정하였다.

어느 일요일에는 서평양에서 살고 있는 한 동덕의 가정을 방문한 바도 있었다.

이북 동덕들과 함께 안심가를 부르고 〈보국안민〉을 설교하며 용담가 합창도 함께 하니 감개무량하기 실로 그지없었다.

해방후 끊어졌던 남북동덕들간의 혈맥을 내가 다시 잇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북동덕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의 주목을 끈 것은 그들이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나가야 〈보국안민〉의 지상천국을 세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의 사회주의건설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북동덕들의 견해와 체험담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천도교리와 주체사상이 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천도교의 교리와 주체사상이 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해 보고저 한다.

우선 천도교리와 주체사상은 그 출발점에 놓여있는 원리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견해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다시말하면 유인론(唯人論)이다.

이 유인론 입장은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상통한다.

인내천이란 하늘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니 무엇무엇해도 사람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천도교도 사람중심의 교리라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중심, 인간중시(重視)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로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천도교와 통하는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해도 그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하면 부귀와 권세를 독점하고 남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와 권세있는 자들의 억압밑에서 불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대체로 사회의 양상을 보면 전자는 소수이고 후자는 다수인데 양자간의 격차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라는 말과 같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엄연한 현실인줄 안다.

그런데 이북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이 불공평한 현상을 없애고 다수 민중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수민중의 철학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천도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수운대신사님은 동학을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천민의 학설이라고 하

였다.

그리하여 천도교의 목적은 〈포덕천하 광제창생〉(布德天下廣濟蒼生)에 있다는 명언을 남긴 것이다.

천하에 덕을 펴서 만백성을 구제하겠다는 우리 스승님들의 주장이 횡포한 봉건통치자들과 왜놈들의 비위에 거슬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도교의 1세교조 수운대신사 최제우스승님과 2세교조 해월신사 최시형스승님에 대한 참형 교형도 천도교의 이념을 말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천도교와 주체사상은 각각 지향하는 이념상 목적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은 민중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연과 사회를 민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인간 자신을 새로운 인간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천도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신천, 신지, 신인(新天 新地 新人)의 개벽정신을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자립, 자위(自衛)를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나간 역사를 보나 오늘의 세계현실을 보나 극히 옳은 원칙이며 특히 약소민족의 경우에는 그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문제임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히 다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것이 우리 천도교의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사상과 통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천도교리와 주체사상의 공통점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끝으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천도교리나 주체사상이나 다 우리 배달민족안에서 나온 종교이고 사상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학—천도교는 19세기에 서학(西學) 즉 예수교가 우리 나라에 전파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 민족종교를 창시할 필요를 느낀 수운대신사님께서 유, 불, 선(儒佛仙) 즉 유교와 불교와 선교의 좋은 점을 따서 새로운 교리를 체계화하고 서학과 구별하여 동학이라고 이름지었다.

이처럼 우리 배달민족의 얼을 담은 것이었기에 동학—천도교가 근

대의 우리 민족사를 장식한 저 갑오년 농민전쟁의 지도이념으로 될 수 있었고 기미년에도 우리 3세교조 손병희선생이 독립만세운동의 지도자로 추대되게 된 것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사상이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와는 달리 우리 배달민족안에서 나온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조국 북반부에 구현되어 민족중흥의 자랑찬 열매를 맺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우리 배달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본인은 천도교와 주체사상은 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며 천도교인으로서 주체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계의 초점

본인은 주체사상이 천도교리와 통하는 점이 있고 쉽게 이해된다고 말했지만 따지고보면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본특징이라 할진대 그 누가 주체사상을 반대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더우기 주체사상은 계급을 민족의 우위에 놓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학설과는 달리 민족을 우위에 놓는다고 한다.

나는 이북에 가서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긍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할 때의 일이다.

총장 지창익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가 1948년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때 회의기록을 맡아 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았다.

그 과정에 지총장한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평양에 간 백범 김구선생은 김일성장군의 민족자주노선 즉 큰 문제에 대해서건 작은 문제에 대해서건 어김없이 모든 것을 타국사람들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대하는 그 투철한 주체성과 제 민족의 힘으로 일제가 파괴하고 도망간 공장을 복구하고 민중이 주인되어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정 내 나라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감동된 나머지 김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도 장군의 정치를 따르겠다 하면서 망국의 비운속에서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던 상해임시정부의 인장을 장군께 바치겠노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김장군께서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었다.

이 사실은 김구선생이 이북에 현실로 되고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립의 이념 즉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우사 김규식선생의 경우도 그러했다고 한다.

김규식선생은 남북연석회의에서 이북의 자주노선과 민족자력으로 달성한 건설업적에 감동을 표시하고 문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민족자주연맹>(당시 서울에서 김규식선생이 지도하던 정치조직)도 김장군의 민족자주노선을 따라 싸우겠노라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김규식선생도 주체사상에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백범이나 우사나 다 지난날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의 거두들이었으며 민족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온 선각자, 선구자들이다.

그분네들이 아직은 주체사상에 따라 정치를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첫시기에 지나지 않았던 이북의 현실에 접하고 그처럼 감탄을 표시한 것을 보면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결코 배제되지 않으며 서로 통하는 사상이라고 나는 확신하였다.

기독교계통에서 주체사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본인으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재미교포 목사들 가운데서 이북에 다녀온 몇몇 분들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전문한바 있다.

이 사람의 짧은 소견에도 기독교가 <인간구원>의 이상을 세우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불우한 천민들을 구제하려는 예수의 활동에서 기독교가 발생, 발달하였다고 본다면 원래의 기독교의 이상과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목표에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인간중심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고창하고 대소 민족들의 평등을 실현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한다고 하는 주체사상은 참으로 매혹적인 사상이다.

거기에는 개별적 인간의 운명문제로부터 각 민족과 전인류의 미래에 관한 문제까지 다 계시(啓示)해 주는 보편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으로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각이한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평양 대동강반에 서있는 주체사상탑을 보고 특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탑의 맨 아래층에 들어서면 홀이 있다.

홀의 벽면은 각종 색깔을 가진 석재로 되어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였다.

들여다보니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서반아어, 아랍어도 있으며 그밖에 잘 알 수 없는 글자도 있었다.

나를 따라나선 해설자가 말하기를 이 홀의 벽면에 새겨진 석재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것인데 거기에 새겨진 글자는 그것을 보내온 나라의 단체나 개별적 인사들의 이름을 쓴 것이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묘한 색깔의 대리석과 그밖에 내 짐작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진귀한 석재들이었다.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석재를 보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겨진 글자를 보면 세계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서클의 이름도 있지만 그밖에 학자, 기업가, 정계의 고위인사들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데서는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되었다.

평양에 주체사상탑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내온 것인데 그 범위는 세계 5대륙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 모두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공감을 표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겠는데 참 대단한 성의였다.

밖에 나와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길 모양의 봉화(밤이면 여기에 전기가 통하면서 진짜 봉화처럼 보인다.)를 이고 창공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을 쳐다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이 탑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떠받들리어 서있구나, 라고.

내가 이북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도 그곳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동남아시아와 중근동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미주에서 정계와 학계 인사들이 주체사상을 연구하러 평양에 도착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유럽과 일본에서 오는 손님도 많았지만 압도적 다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였다.

평양은 세계의 관심하에 있는 도시, 세계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도

시였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민족정기에서 연유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게 하는 것은 민족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평소부터 본인이 간직하고 있는 일관한 소신이었다.

투철한 철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반면에 철학이 없는 민족이 항구한 발전을 구가한 역사는 없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뚜렷한 민족철학을 가지지 못한 탓에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했으며 엽전이라고 불리우면서 세상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자기의 민족철학,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가진 민족으로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 겨레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국토의 절반땅에서나마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세계를 자주의 궤도로 선도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된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주체사상을 제창하신 김일성주석은 세계에 드문 사상가이시라고 나는 속으로 경의를 표시해마지않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이북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주체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제창한 분의 성함을 달아서 〈김일성주의〉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공포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서방에는 많다.

또 세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패작도 있지 않는가.

그런 조건에서 만일 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산주의와는 다르고 동구권 사회주의와도 다른 독특한 공산주의, 말하자면 주체주의나 김일성주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기는 해도 이남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환영할 것이다.

본인은 이런 말을 이북의 원로들과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가볍게 한마디 한 일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나의 진심으로 되는 의견이었다.

제 3 절

〈포덕천하〉(布德天下)

민중의 눈물

이북을 방문해서 강하게 느끼는 인상의 하나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민중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존경이다.

가는 곳마다에서 김주석을 찬양하고 김주석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살게 되었읍니다」라고 하는 남녀노소의 기쁨에 넘친 표정과 목소리를 텔레비에서 보고 출판물에서 읽을 수 있으며, 노래에서도 들을 수 있다.

김주석을 경모하는 이북사람들의 심정은 흔히 눈물로써 표현된다.

나는 이북의 뉴스영화나 기록영화에서 지방에 현지시찰나오신 김주석을 맞이할 때면 그곳 사람들이 주석을 환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많이 보았다.

나는 또한 평양에서 김주석의 임석(臨席)하에 진행되는 행사나 군중집회에도 몇번 참석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주석을 향해 손을 들어 흔들고 발을 동동구르며 환영하는 군중의 열띤 얼굴과 그 두눈에 반짝이는 이슬을 볼 수 있었다.

보기드문 광경이었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보았지만 국민대중이 자기의 지도자를 향해 이처럼 눈물로써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지도자에게 표시하는 이북민중의 이러한 유다른 감정을 보고 서방세계의 사람들은 흔히 어리둥절해한다. 미국 친우봉사회 대표단의 이북방문기를 다시한번 펼쳐보면 거기에는 김주석에 대한 이북사람들의 감정이 대략 종교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느껴졌다는 지적이 있다. 말하자면 비이성적(非理性的)이라는 비평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그들도 이북의 실정을 파악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 모양이다.
그 방문기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일생을 바쳐서 민중을 헤아리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 즉 김일성주석의 이름으로부터 연상되는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서독 작가 루이제 린저여사의 이북방문기에서도 한대목 인용해 보자.
하루는 린저여사가 자기의 이북여행을 돌봐주고 있는 장선생에게 그가 소년시절에 교회당에 다닌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물었다.
「지금도 다니시는가요?」
「웬걸요.」장선생의 대답이다.
어째서냐고 린저여사는 다시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셨는데 교회당엔 뭣하러 다니겠읍니까.」
김주석의 지도력과 공적(功績)을 충분히 알고 있는 린저여사는 그렇지 김주석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나 다름없으니까 하고 머리를 끄덕이었다.
서방사람에게도 납득이 가는 이북민중의 김주석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두고 같은 배달민족의 한 성원인 내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 사람은 이북실정을 알아보는 과정에 그곳 동포들의 그 감정이 그들의 생활체험과정에서 축적되고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느끼었다.
이북사람들의 마음을 그처럼 뜨겁게 덥혀주는 체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민중을 위하고 민중의 복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 김주석의 인간애, 민중애, 민족애라고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김주석께서는 정치를 집무실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민중속에 들어가서 하시며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고, 논밭의 곡식이 무르익는 일터가 주석의 정치활동무대라고 한다.
여름이면 수수한 속샤쓰바람으로 농민들과 한데 어울려 논두렁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며 공장에 가면 합숙부터 찾아 노동자들이 먹을 밥을 자셔보고 상점에 가시면 주민들이 사가는 된장, 간장 맛부터 보신다는 김주석이시다.

이렇게 늘 민중속에서 계시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불편을 느끼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정사를 펴나가시는 김주석의 기본활동방식인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이북에 가서 찾아가 본 곳이 많지는 않지만 체류일정에 비하면 적다고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가본 곳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 할 정도로 〈수령님께서 언제 어느날 이곳을 다녀가셨읍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여 주신 기계입니다〉 등 김주석의 쉬임없는 지방시찰과정을 입증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한번은 뉴스영화에서 김주석께서 설날에 평양시 교외의 닭공장(이북에서는 양계장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을 시찰하시는 장면을 보고 주석께서는 휴식을 모르시는 분 같다고 내가 말했더니 선우씨는 이런 말을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생신날에는 아랫사람들이 생일상을 차릴까봐 그것을 피하는 겸 해서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 계십니다.

민중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일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고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람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주석의 후덕한 인품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한번은 나의 고향 의주가 있는 평안북도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휴전직후인 50년대의 어느해 여름 김주석께서 평안북도의 한 산골을 지나가시었다.

그때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때여서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김주석께서 타신 승용차가 다가오자 인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어 씩씩하게 소년단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애들이 모두 맨발이었다.

파괴된 이북의 경제상을 보여주는 생활의 한 단면이었다.

주석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리시었다.

그분께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학교는 어디에 있고 나이는 몇살이고 몇학년인가고 문의하시었다.

그리고 측은한 눈길로 아이들의 맨발을 바라보시다가 수행한 간부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직 저 애들에게 신발 하나 신기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

애들은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구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평범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있었다.
사람들을, 국민을 대하는 지도자의 그 자세가 나에게도 눈물겹게 안겨왔다.
사람은 인정에 운다고 하였는데 이북민중이 김주석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며 눈물로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주석의 후덕한 인품은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내게는 생각되었다.
사람들을 감화하고 끌어당기는 인격의 힘을 가리켜 덕이라고 한다면 김주석께서는 그러한 덕가운데서도 가장 큰 덕을 지니고 계신다고 나는 보았다.
그분의 덕은 사랑의 힘으로 어둠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대주며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성인중의 성인이시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 사람의 체험담 한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김주석을 처음 만나뵈왔을 때의 일이다.
그날 5.16쿠데타에 대한 문제가 화제에 올랐는데 김주석께서는 박정희의 탈권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규탄하시다가 문득 나를 바라보시며 최선생이 그때 무엇인가를 하기는 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득이 했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물론 내가 박정희군사정권의 외무부장관직을 지낸 사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뛰어난 인격자는 한마디의 말로써도 능히 사람을 감화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진심이 통하는데는 백마디, 천마디 말이 필요없다.
나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이 일흔에 이른 사람이다.
어찌 진실과 가식을 구별할줄 모르랴! 나는 김주석의 그 한마디 말씀에서 거기에 실려져 있는 주석의 고결한 인격을 그대로 느꼈으며 곡절많은 경력을 가진 이 사람에게 돌려지는 주석의 진실한 보살핌이 눈물겨웁게 감사했다.

의 리

김주석에게 있어서 인간은 모두 귀중한 존재이지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특별히 존중시된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양심껏 일한 사람이라면 그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그리고 종교인이건 관계없이 모두 김주석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평양에 있을 때 숙소에 있는 잡지에서 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인상깊이 기억에 남아있다.

김일성장군께서 만주 길림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생사를 같이할 것을 맹세하고 항일운동을 벌인 차광수라는 혁명가가 있었다.

그는 김장군보다 나이가 퍽 위였지만 장군을 스승으로, 지도자로 받들고 맹활동을 하였다.

김장군의 성함을 "김성주"로부터 "한별"로 다시 "김일성"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차광수였다.

그런데 그는 김장군의 항일유격대가 창건된지 얼마 안되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의 아내가 임신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김장군께서는 그 아내와 유복자를 찾기 위해 몹시 애쓰시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단히 이동하면서 무장유격전을 벌이는 그때의 형편에서 거의 가망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장군의 뇌리에는 가버린 전우(戰友)의 유족(遺族)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해방후 평양에 돌아와서도 장군께서는 각지에 수소문하시어 그들을 찾아내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시었으나 찾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차광수가 전사한지도 40여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그 유복자가 나타났다.

아니 유복녀였다.

차영아라고 하는 나이 40이 넘은 중년부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임종할 때 남기고간 조그마한 아버지의 반신상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평양혁명박물관을 참관하다가 거기에

전시된 차광수의 사진을 보고 그가 자기의 아버지임을 짐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반세기전의 일, 그것도 자기의 개인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내서 무엇하랴 생각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다.
이 사실이 한입 두입 건너 김주석께 보고되었다.
차영아는 즉시 김주석께 불리워갔다.
그녀를 맞으며 김주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느냐. 나는 너를 찾기 어렵지만 너는 나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나를 찾아오기 어려우면 편지라도 한통 쓰면 될게 아니냐.」
김주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여기서도 열마디 백마디의 설명이 필요없다.
이 한가지 사실 자체가 동지간의 의리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김주석의 인간상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김주석께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리로 대하신다는 것을 나는 주석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다.
김주석께서는 그때 지난날 만주일대에서 활동한 양세봉, 오동진, 장철호, 이장청(본명 이관린) 등 독립운동자들에 대하여 회고하셨는데 매 사람들의 활동내용을 그 연대와 장소, 그들이 관계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었다.
나도 선친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독립운동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나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비상한 기억력이었다.
아득히 50여년전의 일이다.
나는 김주석의 그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하는 한편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주의와 주장을 떠나 애국을 한 분들에 대한 주석의 관심과 애착이 각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김주석께서는 오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옛 독립운동자들과 그 유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고 계시었다.
이 사람은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옛 독립운동자인 이장청여사의 가정을 방문한바 있다.
이장청여사의 집은 아담한 정원을 가진 독립가옥이었다.
90고개를 바라보는 이장청여사는 아직도 정정해 보였다.

여사는 머리숙여 인사하는 나를 반겨 맞아주며

「최덕신이라구? 이게 몇해만인가? 임자가 열다섯살 나는걸 봤댔으니깐 이제는 50년도 넘는군」라고 깊은 감회에 잠겨 말하였다.

이장청여사는 만주에서 나의 선친과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활동하던 분이다.

그래서 여사는 다른 독립운동지사들과 함께 우리 집에 가끔 찾아오군 하였다.

본래 이름은 이관린인데 우리 집에 찾아올 때는 젊은 처녀였다.

그는 나를 몹시 귀여워하였다.

이여사는 17살때 조선의 여류혁명가로서 권총을 차고 일본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는데 그때 여장군이라고 굉장히 소문이 났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많이 실렸다.

그때 신문을 보던 일이 새삼스러웠다.

이장청여사는 나의 손을 뜨겁게 잡고 지나온 생활경로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여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신 김주석께서 말년에나마 조국에 와서 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시였다는 것이다.

평양에 안락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신 김주석께서는 자주 여사댁을 방문하시어 위로도 하고 보살펴주신다고 여사는 손수건을 자주 눈에 가져가며 이야기하였다.

나는 독립군사령 양세봉선생의 유족도 만나보았다.

양사령은 만주사변후 강도 일제의 강화되는 공세앞에서도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남만에서 최후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싸우다 참살당한 민족주의자들의 유일한 독립군 사령이였다.

양사령의 유족들이 살고 있는 집은 보통강을 끼고 버들숲에 싸여있는 보통벌에 자리잡고 있었다.

내가 찾아간다는 것을 미리 연락 받았던지 승용차가 현관앞에 멎어서자 양사령의 부인이 마주나와 나의 두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양사령은 나의 선친과 독립운동을 함께 한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자주 나들었다.

그러한 인연이 있어 그런지 양사령의 부인을 대하는 순간 나의 친어머니를 만나뵙는 것 같은 정을 느끼였다.

마침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있었다.
양사령부인은 김일성주석께서 자기 일가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말하였다.
김주석께서는 해방후 다른 항일혁명열사들의 유족들과 함께 양사령의 가족들도 꼭 찾아내도록 지시하셨다고 한다.
해방된 이듬해 어느날 양사령의 유족들이 있는 곳을 아시게 된 그분께서는 즉시 사람을 보내시어 기차길에서 천여리나 떨어진 중국 동북지방의 깊은 산골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그들 일가를 곧 평양에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한다.
평양에서 그 일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그후 군사교육을 받고 공군의 지휘관으로 일하게 된 양사령의 아들이 뜻하지 않게 사망하였다.
그러자 김주석께서는 자신이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매우 애석해 하시며 양사령의 핏줄을 이어갈 손자가 하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소아마비에 걸려 병신이 된 두살난 손자애를 모든 방법을 다해서 고치도록 관심을 돌려주시었다고 한다.
양사령부인은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 봄에는 일제에게 참살당하여 머리도 없이 이국 광야에 버려졌던 그 어른(양사령)의 유골을 조국땅에 옮겨다가 안장하고 큰 비석도 세우도록 해주시었지요.」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아안고 부인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1947년 서울서 암살당한 여운형씨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해야 하겠다.
해방직후 평양에 간 여운형씨는 자기 두 딸의 장래를 김주석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여운형선생의 부탁대로 두 딸을 평양에 불러들인 김주석께서는 그들을 사택에서 유숙시키며 공부시키다가 외국에 유학을 보내시었다.
그후 6.25동란의 복잡한 상황속에서 두 자매는 주석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져 나갔으나 김주석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행처를 찾아내어 키워주셨다는 것이다.
나는 평양에 갔을 때 여운형선생의 맏따님인 여연구여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여사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부국장의 직책에서 일하고 있었다.(그후 국장으로 승진되었고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권상실과 국토분단의 비극적 역사를 살아오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몸바친 사람이 어찌 한두사람뿐이랴.

그러나 김주석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주의주장이나 신앙에 관계없이 그리고 공로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다 귀중한 존재이다.

주석께서는 자신의 시선이 미치는껏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껏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아내어 돌봐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마땅한 도리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정의가 각별했던 친구지간도 멀리 헤어져서 세월이 지나가면 점차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잊어버리는 일도 있는 것이 인간생활의 상례인줄 안다.

그러나 김주석에게는 이런 상례가 통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10년, 20년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나가도 한번 기억해둔 사람을 잊으시는 법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주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나는 본시 "위대한"이라는 수식사를 아무데나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잘 쓰려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김주석에 대해서만은 이 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김주석에게서 위대한 인격을 보았으며 그 위대한 인간상앞에서 머리가 수그러졌다.

국경을 넘어 멀리

평양에서 어린이들의 연예공연을 관람할 때 목격한 일이다.

이 연예공연은 유치원으로부터 인민학교와 중학교 낮은반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출연하는 공연이었다.

김주석께서 이 공연을 관람하실 것으로 예정되고 있었다.

귀빈석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꼭 같은 두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어느 나라 국가원수가 왔는가 그런 소식은 못들었는데 하고 궁금한 생각으로 그쪽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후에 김주석과 함께 나온 분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공(公)이었다.

외교부문 의전관례에 대해 일정한 견식이 있는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아누크씨로 말하면 지난날에는 한 독립국가의 원수였으나 1970년 이후부터는 복잡한 국내사태로 인해 해외로 떠도는 망명객이 아닌가.

그의 조국은 월남의 점령하에 있으며 캄보디아의 친월남세력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의명분은 어떻든 시아누크씨는 빈털털이의 망명객이다.

그런데 김주석께서는 그를 당당한 국가원수처럼 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주석께서 시아누크씨를 그처럼 각별히 대해주시는 이유를 나는 다음날에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공연이 있은 다음날에 나는 김주석과 정계의 몇몇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 동석하는 특전을 누리었는데 석상에서 시아누크씨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에 올랐다.

나는 그 전날 공연에서 받은 인상이 잊혀지지 않아 시아누크씨는 한낱 망국의 공후(公候)에 지나지 않는데 그처럼 국가원수대우를 해주시는가고 김주석께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주석께서는 비운에 찬 시아누크공의 생활경로를 간단히 설명하시고는 우리가 그를 돌봐주어야지 누가 돌봐주겠는가고 답변하셨다.

그리고 시아누크공은 비동맹운동에서 우리의 오랜 동지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감탄해마지않았다.

김주석께서는 우리가 돌봐주어야지 누가 돌봐주겠는가고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하셨으나 나는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주석이 그처럼 시아누크씨를 잘 대해주시는 까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침략당한 국민에 대한 동정, 한마디로 말해서 주석의 불타는 정의감때문일 것이다.

주석께서 시아누크씨에게 그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기대해서 그러신다고 볼 수는 없다.

캄보디아의 형세는 아직도 암담하다.

국내에 저항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는 월남의 20만대군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도 힘이 약하다.

시아누크씨가 언제 국내에 들어가 실권을 잡게 되겠는지 아직은

불확실한 일이다.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시아누크씨를 김주석께서 변함없이 국가원수로 대우해주시고 해외에서의 그의 활동조건을 적극 보장해 주시는 사실은 주석의 정의감과 함께 그분의 말씀 그대로 비동맹운동에서 맺어진 오랜 동지에 대한 의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김주석과 시아누크씨와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주석의 위대한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였다.

예수의 사랑이나 석가모니의 자비심이 언제 국적을 가렸던가. 인간을 아끼고 민족을 사랑하며 동지간에 의리를 지키시는 김주석의 인격과 덕은 결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멀리 국경을 넘어 세계에로 퍼져간다.

나는 이 사실을 아프리카나라들의 농업개발을 위해 기울이고 계시는 김주석의 성의있는 노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번은 이 사람이 김주석을 만나뵈왔을 때 주석께서는 농업의 부진과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

김주석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내용을 요약해서 아래에 소개한다.

탄자니아의 니에레레대통령이 1981년에 두차레나 이북을 방문하였다.

탄자니아는 심각한 농업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니에레레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목적은 농업혁명을 일으켜 매년 풍작을 거두고 있는 이북의 도움을 받으려는데 있었다.

그는 김주석에게 농학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주석께서는 농학자와 함께 많은 농업기술자까지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탄자니아에 가서 농학연구소를 운영할 뿐 아니라 농장에 나가 기술적으로 농업생산을 지도하도록 지시를 주시었다.

이북의 전문가들은 탄자니아에 가자마자 첫 농사에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이 기술지도를 하는 농장에서는 정보당 옥수수 4.5~5t이나 수확하였다.

그러나 그 이웃에 있는 탄자니아사람들이 지도하는 농장에서는 500∼700kg밖에 안되였다.

그 소문이 아프리카대륙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다른 아프리카나라 대통령들도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의례히 자기네 나라에도 농업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김주석께서는 일일이 그에 응해주셨다.

그런데 그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5,000명이나 보내달라고 제의해 왔다.

김주석께서는 다 해결해 주겠다고 확언하셨다.

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주석이시야말로 진짜 국제주의자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국제주의"란 공산권나라들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나라들에 국제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방세계에도 국제주의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미개발지역에 국제적 협조의 명목으로 "원조"를 주는 것을 보면 역시 국제주의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국제이익중심주의다.

모르기는 해도 아프리카에 서방선진국의 농업기술자들도 많이 가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하기에 아프리카의 식량위기는 해마다 격화되고 있는 것일까?

아프리카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양곡원조는 계속 늘여야 할 형편이다.

병을 주고 약을 팔아먹는 격의 원조가 아닐까?

이북에 농학자와 농업기술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그렇게 많은 기술요원을 외국에 내보내면 자체의 농업경리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김주석의 말씀에서 나는 국내에서는 좀 지장이 있더라도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성의껏 도와주어 아프리카사람들을 기아에서 해방하고 외세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주석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봉건적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설움속에 살아온 배달민족의 비애를 뼈아프게 체험하

신 김주석 같은 지도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결심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 글에서 한두가지 예를 들었지만 내가 이북에 가서 견문한 자료의 새로운 안목으로 최근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제3세계나라들을 지원하는 김주석의 활동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영역에 걸쳐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석의 국제적인 신망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고의 티토대통령 사망후 비동맹운동의 새 지도자는 김주석이시라는 평도 있었다.

나는 김주석께서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주석에 대한 국제적 신망이 어떤 정도인가를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국제친선전람관」에 가보고 똑똑히 알았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외국에서 김주석께 보내온 선물을 전시하기 위해 지은 웅장한 건물이다.

여기에 전시된 선물은 모두 수만점인데 그만한 수량의 선물을 채 내놓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계속 선물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전람관을 두어채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전람관의 전시품은 세계 5대륙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선물을 보내온 사람들은 정계와 학계를 비롯한 개별적 인사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인상적인 것은 종교인과 기업가도 많은 사실이었다.

특히 각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정당수뇌가 보내온 선물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북과의 미수교국을 제외한 100여개 수교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 수상이 선물을 보내온 것 같았다.

전시된 선물을 보면 진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해설자의 설명에 의하면 김주석을 존경하는 뜻을 성의껏 표시한 결코 평범치 않은 선물이였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선가 보내온 자그마한 목각(木刻) 지구의(地球儀)가 있었는데 그 회전축(回轉軸) 꼭대기에는 "주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각품으로서의 미술적 가치로 보아도 돈으로 계산해보아 별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선물의 기증자는 설명하기를 세계가 김주석께서 제창하

신 주체사상을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자기의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 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소감을 장황하게 쓸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다만 한두마디 부언하고 싶은 점은 그 누구가 국가 원수직에 있으면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목각지구의와 같은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물을 받아본 지도자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존재가 희미하여「코리어」라는 말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이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된 수만점의 선물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주석께서는 그 모든 선물이 자신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민족이 공유해야 할 보물이라시며 풍치좋은 묘향산에 이처럼 전람관을 짓고 누구나 국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처하셨다고 한다.

김주석의 인격, 그분의 덕을 말해 주는 또하나의 측면이다.

정치의 수명(壽命)

나는 이상 1, 2, 3절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서 끝으로 김주석에 대한 나의 인물평이라 할지 동서고금의 위인 또는 성인들과 비교해서 김주석을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하겠느냐 하는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저 한다.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면 흔히 멀리는 공자나 석가모니, 예수와 같은 이들을 꼽으며 가깝게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을 들기도 한다.

이들이 모두 성자에 속하는 인물임은 틀림없다.

이들에 의해서 인류의 사상과 도덕, 문화가 크게 발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성인들을 보면 그 사상이 특출하고 덕이 훌륭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이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에 이른 말하자면 각 방면으로 완성된 인간이라고 정의(定義)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세계에는 적지 않은 성인들이 나타났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헤매이고 있고 인류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가버린 성인들이 그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으나 그 종교적 또는 인도주의적 이상이 지상에 실현될 날은 아직 요원한지도 모른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큰 나라가 약소민족을 지배하는 부조리가 비록 그 양상은 달라졌어도 의연히 지속되고 있고 핵전쟁에 의한 인류멸망의 위험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이런 때에 지구의 일각에 민족이 나아갈 길,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히고 그 이상을 착착 실현해 가고 있는 위인이 출현하였다.

김일성주석이시다.

이미 이야기가 됐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인간중심, 인간위주의 주체사상을 제창하시어 지난날 종교가들이 저세상에 가서나 볼 수 있다던 인간의 이상향을 이 세상에서 실현할 길을 밝히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김주석을 사상가중의 사상가이시라고 부르고 싶다.

김주석은 대사상가이실 뿐 아니라 대정치가이시라고 생각한다.

원래 정치가라 하면 아무나 보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의 지도적 위치에 앉아있다 해서 다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객〉 또는 〈정치쟁이〉일 뿐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많지 못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

김주석은 그 정치가중의 정치가, 대정치가이시라 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 높은 정치적 이상을 내걸은 위인이 적지 않았으나 그 이상을 현실에 실천한 사람은 별로 많지 못했다.

옛날 공자는 자기의 정치이상을 실현해 볼 목적으로 중국의 넓은 천지를 다 돌아다녔지만 어디에 가서도 자기의 그 이상을 실험해 볼 자그마한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학문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생애를 마쳤다.

그런데 김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정치이상을 당대에 실현하여 조

국 북반부에 지상천국을 세우시었으며 대소민족에게 앞날의 희망을 안겨주시었다.

내가 김주석을 대정치가이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

김주석은 뛰어난 사상가이며 정치가이실 뿐 아니라 큰 덕을 지닌 위인이심을 이 사람은 이모저모에서 확인하였다.

우리 천도교에서 「포덕천하 광제창생」이라 하였는데 김주석의 덕이야말로 만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무한대한 덕이라 할 수 있다.

주석의 덕은 지금 조국 북반부에서만 한울사람의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앞으로 그 덕이 미칠 수 있는데까지 다 미쳐서 우리 배달민족 모두가 격양가를 부르고 전세계가 평화속에서 번영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놓고보면 김주석은 어느 모로 보나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이시라 해야 할 것이다.

〈절세(絕世)의 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김주석 같으신 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이북을 방문해서 김주석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공적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다.

이북민중이 김주석의 영도를 길이 받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옛날부터 이르기를 포악한 정치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루가 천날같이 지루하고 선정(善政)은 천날이 하루와 같이 짧다고 하였는데 이북사람들이 그처럼 위대한 김주석의 정치를 오래 받고저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주석의 장기영도를 흔히 말하는 장기집권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집권이란 정권욕에 물젖은 인간이 민의를 무시하고 권좌에 오래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방사회 특히는 이남사회에서의 독재와 같은 의미로 되고 있다.

그러나 김주석의 장기영도는 민중의 의사와 요청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김주석의 장기영도를 가리켜 「장기집권」이니, 「독재」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북의 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알면서도 악의로 하는 비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서방세계에서도 인망이 높은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몇해전에 연로하여 임기중에 사임한 핀란드의 케코넨대통령은 여러차례 선거에서 당선되어 25년동안이나 집권했으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은 네번이나 연거푸 선거되지 않았던가.

김주석의 경우에도 매번 임기가 끝날 때마다 선거에 의하여 중임을 계속하시게 되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케코넨씨와 루즈벨트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한 민족 또는 인류가 위인을 맞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위인을 맞는 시대는 축복받은 시대이다.

위인의 정치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민중의 여망과 시대의 요청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조국 북반부에 김주석과 같은 위인이 출현하여 장기간 정치를 펴나가시게 된 것은 우리 배달민족에게 차례진 더없는 행운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 4 절

민족의 장래

근년에 이르러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문제인줄 안다. 원래부터 김주석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억측이 구구했던 것인데 그 후계자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의가 더욱 분분해지게 된 것이다.

오늘의 국제정치생활에서 차지하는 김주석의 위치와 그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주석의 후계자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김주석과 그분의 후계자가 혈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몹시 신경을 쓰면서 제나름의 평가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있는 것 같다. 더우기 이북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이남이나 미국 정계의 일각에서 〈세습제〉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줄로 본인은 알고 있다.

이런 견해는 이북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북의 현실을 될수록 편견없이 보려고 애쓰는 해외동포들 가운데도 그

와 비슷한 판단이 없지 않아 있다.

솔직히 말한다면 이 사람 역시 이북을 방문하기전까지는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몇차례의 이북방문과정에서 나의 관심은 자연히 이 문제에 쏠렸다.

한번은 나를 자주 안내해주어 친숙해진 선우씨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넌지시 비쳐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영도를 승계하는데서 왜 혈통관계를 그렇게도 문제시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그 후계자간에 혈통관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다는 것일까요. 인물이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령님의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분은 바로 그럴만한 뛰어난 자질을 갖춘 분이기에 우리 민중 스스로가 미래의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명백한 답변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선우씨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습제〉를 한다고 비난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 모두가 우리 일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일이 잘되기를 원해서 그러는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북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덮어놓고 비난하는 비난자들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역(逆) 비난이다. 물론 선우씨는 이남이나 미국의 정객과 그 동조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그 말을 듣고 나에게도 가책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될수록 선입견을 버리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입장에서 김주석의 후계자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원로들과의 담화

이북에서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은 주석의 장남되시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시다. 1942년생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다. 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직책이다.

이북에서는 노동당이 집권당임을 고려할 때 이 당의 지도권을 맡은

김정일비서의 정치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비서는 바로 이 위치에서 김일성주석을 보좌하신다고 한다.

선우씨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비서께서는 그 뛰어난 인품과 자질에 의해서 이처럼 고위 직무를 맡게 되시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분은 어떤 인물일까.

본인은 이북에 체류하는 동안 정계의 원로급 간부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김비서의 인간상과 김비서께서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의 일단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요인들 가운데는 김일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임춘추서기장(최근 고 강량욱 후임으로 부주석에 취임)이 있다.

김일부주석이나 임춘추서기장으로 말하면 김일성장군께서 백두산일대에서 항일전을 벌이기 시작하신 그때부터 김장군휘하에서 천신만고를 겪으며 조국광복을 위해 싸운 항일의 노투사들이며 해방후에는 군과 정계의 고위직무를 맡아온 관록있는 원로들이다. 혁명운동과 정치활동의 경력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아 김주석의 다음가는 인물들이다. 50여성상 풍파사나운 길에서 사선도 수없이 헤쳐온 그분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 백전노장, 원숙한 원로정치가로서의 풍모가 뚜렷이 안겨왔다.

김일부주석과 임춘추서기장과의 면담에서는 김정일비서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에 올랐는데 그분들은 김비서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한데 대하여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

김비서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대단했다. 김정일비서를 후계자로 모신 것은 민족의 행운이며 행복이라고 그들은 거듭 강조했다.

원로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소련이나 기타 공산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 지도자가 연로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도자와 함께 다년간 활동해온 원로급 간부들 가운데서 후계자가 선출되는 것이 상례인줄 알았는데 여기 이북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 응당 후계자의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그 원로들이 새 세대에 속하는 김정일비서를 이처럼 떠받드는 것을 보면 김비서에게 그 어떤 비범한 특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고 있읍니다.」임춘추서기장이 꾸밈새없이 하는 말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란 이북에서 간부들이나 일반 민중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김정일비서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다.

임서기장은 자기가 그처럼 김정일비서에게 매혹되고 있는 이유를 나에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비서의 천재적인 자질이라고 했다. 김비서께서는 이미 대학시절에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을 막론한 모든 학문영역에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하고 계시였는데 그 높이는 기성전문학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한다. 그분께서는 특히 김일성주석의 주체철학에 정통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분야에서 그분을 따를 사람은 없다고 임춘추씨는 역설하였다. 김비서께서는 학문의 대가, 사상계의 거장이실 뿐 아니라 그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고 민중을 이끌어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는 보기드문 정치예술의 소유자이시라고 임춘추서기장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비서가 정계에 진출하고 당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노동당의 활동이 전에 없이 강화되고 이북의 정치, 경제, 문화 건설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넓은 도량과 인간친화력을 가진 김정일비서의 인품이라고 했다. 김비서를 한번 대하게 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겸손하고 너그러운 그 인품에 머리가 수그러진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크고 작은 강줄기를 다 받아안는 바다의 넓은 품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품속에 자기를 떠맡기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김정일비서의 정열과 의지라고 했다. 어디서 그런 놀라운 정열이 솟아오르는지 김비서께서는 한번 어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밤과 낮의 구별이 없으며 휴식을 모르신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결심한 문제는 결말을 볼 때까지 강한 의지로 밀고나가신다고 한다. 일찌기 나폴레옹은 자기는 불가능이란 말을 모른다고 장담했으나 결국 "워털루"의 패전을 면할 수 없었는데 김정일비서이시야말로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지도자로 알고 있다고 임서기장은 덧붙여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 인, 용(智仁勇)을 갖춘 사람을 위인이라 한다면 그 지, 인, 용을 겸전한 김비서의 인간상에 자기는 반했노라고 그는 강조했다.

아직은 젊은 정치가인데 좀 과찬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김비서에 대한 인물평이였다. 하지만 풍상고초를 겪으며 노년기에 이른 사람들의 판단이고 보면 그것을 그저 들어넘길 일도 아닐 것 같았다.

이처럼 미심쩍어하는 이 사람의 속생각을 짐작이나 한듯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때부터 알아본다고 그분의 비범한 인품은 유소년시절부터 특이했노라고 원로들은 술회했다.

우선 김비서의 탄생환경부터가 극적이었다. 1942년 2월 16일생이니까 김비서께서 탄생하신 시기는 김일성장군의 무장항일유격전이 마지막 국면에 들어서고 있던 때이다. 김정일비서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결전장에서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과 김장군과 함께 유격전에서 용맹을 떨쳐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알려진 김정숙여사의 장남으로 탄생하시었다. 말하자면 그분은 이 세상에 고고성을 울린 그 시각부터 백두산의 밀림을 요람으로 삼고 항일혁명군 용사들이 쏘는 멸적의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셈이었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처럼 특이한 환경과 그처럼 훌륭한 부모님의 훈육이 어린시절의 김정일비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원로들은 말하기를 김정일비서께서는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고 영특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경탄시킨 가지가지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그것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다. 김비서의 비범한 성장과정을 늘 측근에서 목격하고 그 영특한 풍모를 확인한 원로들이 후일 김비서를 노동당의 지도자로, 김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좀 더 서술하고저 한다.

김정일비서의 정치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해사이이지만 이북에서 그분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고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한 것은 퍽 오래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주석의 연세가 60에 이르게 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북의 원로급간부들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에 몸바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을 받들어 그분을 보좌하며 그분의 영도를 승계할 후계자를 내세워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이때 원로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30대에 들어선 청년정치가 김정일비서에게로 쏠리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일성주석의 뒤를 이을 인재는 그분밖에 없다는 일치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이 의향은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웠다. 김일성주석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김주석께서 찬성하시지 않은 이유는 두가지였다. 나이가 젊다는 것과 자신과 부자지간이라는 점이었다. 원로들은 김주석 자신이 그보다 더 젊으신 나이에 혁명을 영도하고 국가건설을 영도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정일비서의 연세가 정치지도자로서 결코 젊지 않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적(公的)인 일에서는 친족관계를 초월해서 인물을 위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김주석께서는 원로들의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시었다.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임춘추서기장은 김정일비서께서 수령님의 자제분이기 때문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을 좀더 일찌기 우리의 지도자로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때에 원로들에게 힘을 받쳐준 것은 민중이었다. 이무렵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전국 각지의 노동당원들과 민중으로부터 김정일비서를 꼭 김일성주석을 보좌할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제의를 담은 편지가 쇄도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힘을 받은 원로들은 김정일비서를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민중의 의사이고 소망이라고 김일성주석께 거듭 제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문제가 정식으로 상정되고 김정일비서를 당의 지도자로 추대하는 결정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민중의 소망

하루는 시간을 내어 선우씨와 마주앉았다. 석연치 못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북의 민중이 한결같이 김정일비서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할 것을 열망했다고 하는데 김비서를 어린시절때부터 잘 알고 있는 항일전의 원로들이라면 몰라도 일반 민중이야 어떻게 김비서의 인품을 알고 그분에게 그렇듯 높은 존경과 기대를 표시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석연치 못했다. 더우기 김정일비서께서 이북 정치생활의 표면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해 전부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민중의 신망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의 궁금증을 풀어볼 대상으로 먼저 선우씨를 선택한 것이다. 좀 기탄없이 질문도 하고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자 선우씨는 웃

으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계에 진출하신 것은 1960년대의 초기였읍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일반 민중속에서 그분의 성함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지요. 그렇지만 차츰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항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읍니다.」

선우씨의 말에 의하면 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비서의 활동이 사회에 더욱 뚜렷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문예부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는 그분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무렵 김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들어 문학과 예술을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을 맡아 지도하셨는데 이에 따라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달하는 새시대가 펼쳐졌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이를 가리켜 "문학예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예술혁명은 영화창작을 개혁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가극부문에 파급되고 점차 음악, 미술, 서커스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전영역을 휩쓸게 되었다. 모두가 김비서의 구상과 설계지도에 의한 것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북에 갈 때마다 이남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보아온 예술과는 전혀 다른 이북의 민족적이면서도 건전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고 한두번만 감탄하지 않았다. 70년대 초부터 평양의 예술단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까지 진출하여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이북이야말로 「20세기 문예부흥의 발원지」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도 들은바 있다. 김비서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예술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북민중이 이처럼 민족의 영예를 가져다 주신 김비서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을 품게 된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선우씨는 말하였다. 김비서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무렵 이북의 예술인들이었으며 그것을 점차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선우씨의 말은 계속되었다. 예술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감탄시키신 김비서께서는 이번에는 산업자동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어 또다시 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르러 공업화의 목표를 달성한 이북의 경제는 새로운 성장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김일성주석께서는 산업자동화를 그 중심과제로 제시하시었다. 김주석께서 내세우신 산업자동

화방침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과 유해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차 정신노동과 근육노동의 차이를 없애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개발도상의 처지에 있는 이북에서 산업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이어서 누구도 선뜻 발벗고 나서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 소문없이 자동화를 실현해 가고 있는 기업체가 있었다. 황해제철소였다. 이 제철소 자동화의 지휘자는 김비서이시었다. 아무래도 그리로 가야 하고 또 가지 않으면 안될 자동화의 길에서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실태를 포착하신 김비서께서는 이북 굴지의 제철소이기는 하지만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기업체여서 아직도 기술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황해제철소를 먼저 자동화할 결심을 내리셨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인 산업자동화의 출로를 열 구상이시었던 것이다.

김비서의 적극적인 지도에 의하여 미구에 황해제철소는 자동화된 현대적인 기업체로 변모되었다. 이 소식에 접한 사람들의 놀라움은 컸다. 자동화란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선진국의 기술원조 없이는 하기 어렵다고 일부에서 논의되던 신화가 날아나고 전국의 기업소가 자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북의 동포들은 이때부터 자동화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개척자는 바로 김정일비서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비서에 대한 민중의 신임과 기대는 무한히 커졌다. 그분은 다재다능하고 비상한 수완을 가진 천재이시며 그분의 지도를 받기만 하면 예술이고 경제이고 그 어느 영역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전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분을 한번 만나뵈왔으면, 그분의 지도를 받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되었다. 그런데 김비서께서는 늘 민중속에서 일하고 민중의 가까운 친구가 되고 계셨다. 다만 그분의 언행과 태도가 너무나 소탈하고 평민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과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난 얼마후에야 비로소 「아 바로 그분이셨구나」하고 놀라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우씨는 몇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67년 8월초 청진서 평양을 향해 폭우를 헤가르며 달리던 열차가 동해안의 한 자그마한 역에 들어서자 한 처녀가 급히 플랫홈에 뛰어

내렸다. 열차가 머무르는 사이에 끊어진 방송줄을 잇고 제 시간에 열차방송을 하려고 서두르는 애젊은 아나운서였다. 내리쏟는 비를 맞으며 방송줄을 잇자니 뜻대로 안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녀의 몸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위에서 후두둑 후두둑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어느 고마운 분이 우산을 받쳐준 것이 분명했다.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처녀는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임박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 줄을 이으려고 성급하게 당겼더니 그줄이 뭉청 끊어져 나갔다. 어쩌나 시간은 없는데 하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다정한 음성이 그녀의 등뒤에서 울렸다.

「방송줄을 객차의 전기줄로 이으시오.」

순간 처녀의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아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혼자 속으로 말하며 방송줄을 다 이어놓고 뒤로 돌아섰다. 환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은 젊은 분이 우산을 들고 서있었다.

그분의 옷과 신발은 몽땅 빗물에 젖어들고 있었다.

「어마나 옷이…」처녀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미안해 하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옷이야 좀 젖으면 뭐라느냐고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아나운서 처녀가 승강대에 오를 때까지 친절히 우산을 받쳐주었다. 철도부문에서 일하는 어느 젊은 간부인가보다 하고 그녀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야 그녀는 그분이 바로 김정일비서이시라는 것을 전해듣고 놀라와서 급히 승강대쪽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그분은 이미 거기에 안계시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전해지면서 김비서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존경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김일성주석의 영도를 승계할 분, 이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가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민중의 확고한 의지로 굳어졌다.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要諦)라면 김정일비서를 높이 모시려는 민심의 흐름을 수령님께서도 더는 막을 수 없으시었던 것이라고 선우씨는 말하였다.

민중의 판단은 옳았고 민중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선우씨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노동당의 고위직무를 맡으신 이후 정치지도자

로서의 김비서의 비범한 수완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이북사회의 발달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70년대에 달성한 국력의 신장(伸張)과 민중의 복지향상 특히는 김일성주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단합의 공고화는 김비서의 공적에 속한다고 했다.

「그분의 치적(治績)이 얼마나 뚜렷하고 그분에 대한 민중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가 하는 것은 최선생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시면 짐작이 갈겁니다.」

선우씨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내가 목격한 사실

그후부터 나는 이북의 각지를 돌아볼 때마다 북의 현실을 김정일비서와 연결시켜 살피고 판단해 보기에 힘썼다. 내 스스로가 김비서의 정치업적과 비서에 대한 민중의 신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김비서의 치적(治績)을 말해주는 증거물을 볼 수 있었고 김비서를 존경하고 찬양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목격한 사실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다. 한두가지만 소개하고저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비서의 지도밑에 산업자동화의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하는 황해제철소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자동화된 그곳 산업설비를 참관하고나니 이왕이면 이 제철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은율광산도 보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가 있어서 그리로 차를 몰았다. 은율광산은 황해의 바다기슭 가까이에 있는 철광산인데 황해제철소에 철광석을 대준다고 한다. 가보니 노천광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버력(버리는 폐물)을 처리하는 콘베이어 시스템이 있다. 그것은 광산에서 시작되어 바다기슭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뻗고 있었는데 쉬임없이 버력을 실어내어 바다속에 처넣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처럼 굉장한 벨트콘베이어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조종실에서 그 벨트콘베이어를 움직이는 한 청년에게 물어보니 그는 나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황해제철소가 자동화되어 생산능력이 급증하게 되자 철광석수요가

또한 급증했다. 그런즉 은율광산에서 광석을 더 많이 채취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늘어나는 버력처리가 문제로 되었다. 운반용 자동차수를 몇배로 늘인다 해도 타산이 맞지 않았다. 묘안은 없는가? 누구나 고개를 기웃거릴 뿐이었다.

이런 실정을 보고받으신 김정일비서께서는 벨트콘베이어로 버력을 운반할 안을 세워보라고 지시하셨다. 광산에 내려간 기술자는 광산에서 바다기슭까지 콘베이어를 놓아 버력을 바다로 몰아낼 설계를 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로서는 대담한 설계였다. 그러나 김비서께서는 만족해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지도를 펼치고 붉은 화살표를 그어나가시었다. 그 붉은 줄은 바다기슭으로부터 멀리 바다가운데 있는 섬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남, 북으로 널려져 있는 섬들을 찾아 죽죽 뻗어갔다. 이 선을 따라 해상에 벨트콘베이어를 설치하고 버력을 밀어내면 은율광산에서 광석채취를 힘껏 늘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구에 넓은 바다가 막아지고 한개 군에 맞먹는 국토가 새로 솟아난다. 이런 건설을 거듭해나가면 앞으로 조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이다.

김정일비서의 구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지도를 바라보며 기술자는 아연해 하였다. 하지만 그 굉장한 건설공사는 즉각 착수되고 추진되었다.

나는 전망대에 올라 멀리 바다로 뻗어나간 벨트콘베이어를 바라보며 이런 구상을 한 김비서께서는 틀림없이 호방한 기품을 가진 분이시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 벨트콘베이어는 분명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가시는 청년정치가 김비서의 기상의 일단을 말해 주는 구조물이었다.

황해도에 온김에 구월산도 마저 보고싶어서 그쪽으로 차를 몰았다. 구월산기슭에 이르니 한 자그마한 산골동네가 자리잡고 있고 그 앞을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이름도 바로 "수정천"이라 하였다. 그 수정천에 다리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런 산골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리가 아니라 무지개형의 산뜻한 콘크리트다리였다. 마침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어보니 그 다리는 "사랑의 다리"라고 부른다면서 그 사연을 말해주었다.

1973년도 저물어가는 섣달 어느날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느라고 수정천 징검다리(하천을 건느는데 발판으로 하는 돌을 징검다리라고 한다)를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승용차가 멎어서더니 젊은 간부 한분이 내려서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다 개울을 건너서자 그분은 아이들에게 물이 마른 철에는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 학교에 가지만 여름철에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오빠, 언니들이 업어 건너준다고 대답하였다.

「업어서 건너다 준다?」그분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후 얼마 지나자 이 동네에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수정천에 훌륭한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 다리를 놓게 한 분은 김정일비서이시었다.

그날 이 동네를 다녀가신 김비서께서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튼튼히 콘크리트다리를 하나 놓아주자고 해당 간부에게 지시하시었다. 그 간부는 개울을 건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과 몇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처럼 자금을 들여 다리를 놓겠는가 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김비서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어린이들을 어떻게 머리수로만 계산하겠는가, 여남은명이 아니라 한두명이라도 꼭 다리를 놓아주자고 거듭 당부하셨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네의 학부모들은 수정천의 다리를 "사랑의 다리"라고 이름지었다. 은율의 거대한 해상 벨트콘베이어를 통해서 느낀 김비서의 호방하고 담대한 기상과는 달리 세심하고 인정깊은 그분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사람은 그 "사랑의 다리"의 난간을 쓸어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평양은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이다. 평양의 그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모두 김일성주석과 함께 김정일비서의 지도와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소개한 만수대예술극장, 창광원, 산원,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등은 모두 김비서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건설된 것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또다시 평양에 간 것은 1982년 4월이니까 그전번 방문으로부터 약 열달후이다. 그때 공항에서 평양시내로 들어가면서 모란봉을 넘어설 때 대동강 건너 동평양을 바라보니 신기한 풍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열달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자리에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솟아오른 새 도시가 자리잡고 있었다. 마치 세느강을 끼고 전개된 파리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물어보니 〈문수거리〉인데 김비서의 지도밑에 새로 건설된 것이라 했다. 물론 기계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파리가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건설된 것이라면 문수거리의 건설역사는 1년미만이다. 「로마는

하루에 건설되지 않았다」고 한 유럽의 격언이 김비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상 싶었다. 김비서이시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이 세월을 앞당기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정치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명성이 높은 정치가라면 응당 〈매스콤〉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될 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북에 가서 체류할 때마다 유심히 살폈는데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에서 김정일비서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알아보니 김비서 자신이 그러지 못하게 극력 만류하신다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북에서 진행되는 군중집회나 그밖의 여러 공식적인 행사석상에 김비서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실이다. 안내자는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보좌관으로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자신의 직분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공식석상에 나타나기를 삼가하신다고 하였다. 미루어 민중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공식석상에서 민중의 축복의 꽃다발을 받으시기를 사양하는 김비서의 겸손한 성품이 짐작되었다.

외국인의 평가

「인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得人心得天下)는 것은 동양에서 영도자의 공통필수조건이라고 한 말이 있다. 지도자란 민중의 신임과 지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민중의 믿음을 잃으면 지도자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비단 동양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진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세계정치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억지로 지도자로 될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런 지도자는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김정일비서께서 지도자로 추대되신 것은 이북민중의 믿음에 의한 것이며 그것도 서방사회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은 여론조작이나 일시적인 인기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뛰어난 천품과 다년간 민중을 위해 소문없이 큰일을 해온 공적에 따르는 민중의 뜨거운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이 사실을 본인은 이북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북의 현실에서 확인하였다.

1982년 4월에 있은 김일성주석 탄생 70주년 경축행사는 내가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김비서의 풍모를 재인식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 나는 세계 각 지역에서 온 내빈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여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들끼리 주고 받는 말을 곁에서 듣기도 하였다. 그런데 많은 외국사람들이 김정일비서의 영도력에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그런 훌륭한 정치가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모신 이북민중의 앞날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카운다대통령이 김일성주석을 예방(禮訪)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그 기사와 함께 김주석의 탄생 70주년을 축하해서 카운다대통령이 주석에게 드린 헌시(獻詩)가 소개되어 있기에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았더니 시의 마지막에 김일성주석의 대를 이을 김정일비서를 축복하는 구절이 있었다.

무엇으로 해서 외국사람들이 더우기 국가원수직에 있는 인물들이 그토록 김비서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찬사를 올리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날로 변모되고 전진하는 이북의 현실을 목격하고 거기에 깃든 김비서의 공적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이 내린 판단은 이러하였다.

나에게는 김비서의 접견을 받거나 하다못해 가까이에서 그분의 인품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불길같이 일었다. 하지만 나의 이 희망만은 성취되지 못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비서는 공식적인 석상에 거의 나타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982년 5월 3일 나는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기회에 김주석에게 김정일비서와 같이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젊은 지도자가 조국북반부에 계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배달민족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다.

김정일비서에게 직접 경의를 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만큼 주석에게 그 뜻을 전하고저 하는 나의 심정이었다. 그랬더니 김주석은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답변하셨다.

그때 주석앞에서 내가 한 발언은 결코 예절을 차리기 위한 인사말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몇차례의 이북방문에서 받은 감동과 스스로의 내린 결론적인 판단에 기초한 자기의 진심을 피력한 말이었다고 지금도 확언할 수 있다.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김정일비서께서 정계에 진출하신 사실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이북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니면 더욱 강력해질 이북의 미래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에 의해서 개척된 민족자주의 길은 김정일비서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배달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판단이다.

제 6 장

나 의 소 신

나는 위에서 이북을 방문하는 과정에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여러 모로 적어보았다.

물론 이것으로써 이북실정을 다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기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애당초 그런 유의 글을 시도한 것도 아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나는 인생말년에 이르러서나마 새로운 민족의 길을 찾아 이북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또 그런 염원에서 이북을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적어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사람이 이북에서 우리 배달민족의 참다운 민족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며 민족의 통일과 중흥의 훌륭한 기틀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방황하던 나의 인생행로에서 늦게나마 뚜렷한 지향과 신심을 갖고 민족과 조국을 위한 길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글을 마무리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다시한번 밝히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저 한다.

민족우위만이 통일의 길이다

오늘 우리 겨레에 있어서 통일문제는 민족사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일제식민지통치 기간을 넘어선 근 40년에 가까운 민족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족의 길, 애국의 길은 다름아닌 통일의 길로 집약된다고 본다. 이북방문에서 내가 찾은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여기서 우선 말해야 할 것은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 같지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 주변에 통일불가능론과 통일비관론이 너무도 집요하게 사람들의 통일지향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불가능론이나 통일비관론은 남과 북에 각각 이질적인 체제가 대치하고 있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북은 이미 굳어진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남 역시 자본주의체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이룩하자면 남북이 한바탕 전쟁을 해서 체제의 차이를 해소해 버려야 한다는 극단한 주장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북진통일」을 위한 6.25동란의 쓰라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남당국자들 가운데서는 상금도 「승공통일」, 「멸공통일」이 추구되고 있으며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설로써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론의 부수물이라 할까 동족상잔의 참화를 피하자면 어차피 남과 북이 현상태로 갈라져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야 한다고 한 7.4남북공동성명은 하나의 공허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통일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사상과 체제 문제를 절대화하고 있는데 있다.

이 사람 역시 이남에 있을 때는 더 말할 것 없고 해외에 망명하여 민족통일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한 것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사상, 체제 문제였다. 때마침 남과 북의 현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를 창설하자는 내용의 이북의 새 통일방안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방안이 이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남북 양측이 제의한 통일방안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안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북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방안이 저멀리 지평선위에 가물거리는 반딧불마냥 까마득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물론 이 방안을 두고 이북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불과하다는 악의에 찬 힐난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아뭏든 문제로 되는 것은 이 방안의 진의(眞意),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북당국자들, 이북사람들의 근본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두차례에 걸친 이북방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신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

었다.

나는 물론 개인자격으로 이북을 방문했지만 각계 인사들, 고위관계 당국자들과 여러번에 걸쳐 상면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눌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이북공산주의자들의 민족과 통일관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철성에 감복하였다.

그들은 통일을 진심으로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말 그대로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통일문제를 첫째로 치고 공산주의는 둘째로 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민족이 없는데 「지상천국」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지만 계급이나 공산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키자는 것이다.

이북사람들의 이러한 민족우위론이 그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드팀없는 신조로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쉽게 납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네들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민족을 위한 민족주체적인 사회주의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민족우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통일문제해결의 기초적 원리가 있으며 기본열쇠가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통일실현을 위해 민족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남북간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대결을 지양하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나라를 통일하는 민족문제는 민족주의자이건 공산주의자이건 또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거족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주의자이기전에 또는 공산주의자이기전에 배달사람이며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천도교인이건 "코리언"이라는 것이다.

체제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우위론은 체제의 차이, 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민족공동의 과제인 통일의 요구에 복종시키며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우위론은 민족이 체제보다 더 기초적이고 근원적이라

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위성이 중시된다. 기실 민족은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가장 공고한 운명공동체라면 체제는 개별적 인간들, 계층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역사를 보아도 한 민족의 역사에서 각이한 성격의 사회체제가 교체되였지만 그것으로 해서 민족이 달라진 적은 없었다.

민족은 영원한 존재이고 체제는 인류사의 흐름속에 부침(浮沈)하는 존재인 것이다.

모든 상황은 체제가 결코 민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민족을 바탕으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자본주의체제하의 이남이나 사회주의체제하의 이북이나 민족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우위에 놓고 두 체제가 각각 독자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북의 새 통일방안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지지 찬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체제적 차이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일찌기 역사에 전례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 전례없는 일은 하지 않고 전례있는 일만 한다면 도대체 창조와 역사의 전진이 있을 수 없으며 또 민족을 모든 것의 우위에 놓고 통일을 절대적인 과제로 내세운다면 전례가 문제로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진대 우리는 오히려 전례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민족통일의 대업을 성취한다는 자랑 안고 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창설되는 통일국가의 좌표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으며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변에서는 대국들의 각축전이 우심하다.

이런 여건에서 만일 통일국가가 어느 한 열강의 그늘밑에 기어들어 위성국으로 되거나 어느 동맹에 가담한다면 불가피하게 열강들의 각축전에서 희생물로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민족적 재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비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국가가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밖에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되지 않음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고 균형잡힌 친선관계를 맺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비동맹중립국가로 되는 것이다.

이북의 새 통일방안에는 바로 이 문제점도 명시되어 있다.

이 사람이 이북의 새 통일방안을 쉽게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데는 이밖에도 내 나름의 사연이 개재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박정권때 "국토통일원"고문의 한 사람으로 있은 일이 있었는데 이남에서는 통일원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통일문제를 협의연구한다면서 서독에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분단된 독일만 보지 말고 그 이웃에 있는 통일된 오지리까지 돌아보고 오라고 권유하였다.

거기에는 두가지 의도가 있었다.

그 하나는 독일사정이 우리 나라와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우리 나라와 달리 패전국이며 남의 나라를 늘 침략한 역사를 가졌는데다가 동서 양독일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독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나라의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통일하지 않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오지리사정이 우리 나라와 흡사한데다가 외군점령하 10년만에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구라파에서 나치스독일이 제2차대전을 오지리 병합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아시아에서 만주를 먹고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 줄기를 따지면 한국병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독일은 전범국이고 우리 나라와 오지리는 전쟁피해국이다.

또 오지리는 1945년에 나치스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된 후 미, 영, 불, 소 4개국 분할점령하에 있었다면 일제항복후 우리 나라의 남북에는 미, 소 군이 각각 진주하였다.

그런데 해방된 오지리에서는 나치스 강점시기 친독(親獨)한 분자들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참정권을 일체 박탈하는 여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자유당, 인민당, 사회당, 공산당 등 각당, 각파가 오직 통일을 목표로 대동 단결하여 연합정권을 세운 후 1955년 5월에 통일국면을 이루고 같은해 10월에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국회에서 영세중립을 선포하였다.

오지리국민의 이러한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장거를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해온 나는 그것이 우리 나라에 교훈으로 된다고 보고 오지리를 따라 배울 것을 그토록 권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남에서는 친미친일사대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그들에게 통할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소신을 바꿀 수 없어서 그후 해외에 나와서도 계속 주장하고 해외동포학자들의 민족통일심포지움 같은데 참가해서도 그것을 피력한바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북이 새롭게 제의한 남북연방국가 창립방안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오늘 해외민주통일운동자들 속에서 이 방안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연방국가 창립방안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남북의 연합으로 형성될 연방국가의 조직양식과 정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방안의 실현을 희원(希願)하는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몇가지 원칙적 요구를 이미 1981년 7월 16일에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부주석과 회담하면서 천명한 바를 여기서 다시 확인해 두려 한다.

첫째로 연방국가의 창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의 각당, 각파, 해내외의 각계 인사들로 통일민족대회(가칭)를 소집할 것이다.

아직은 남측에서 여기에 참가하기 어렵다면 우선 북과 해외의 각계 인사들만으로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민주인사들, 특히 북미주와 구라파에 거주하는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남출신인만큼 이남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대회는 제3국에서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민중을 참살한 전두환일당을 제외한 이남의 모든 민주인사, 청년학생, 지성인, 노동자, 농민의 대표들이 통일민족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구속중의 민주인사들을 석방하고 복권시켜야 한다.

현 이남정권은 이남민중을 대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일문제를 함께 논의할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셋째로 미군은 우리 국토에서 철수해야 하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앞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창립되면 "한일조약"을 무효화할 뿐 아니라 "한일합병조약"과 "을사보호조약" 등도 근원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늦게나마 민족의 길, 통일의 길을 찾게 된 이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이 한길에 바칠 것이다. 이 길만이 나의 과거를 속죄하고 선친의 뜻을 받드는 길이며 민족과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어마지않는다.

이남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사를 바로 잡는 길도 통일이며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길도 통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래도록 통일의 그날을 피타게 기다렸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우기도 하였다.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이 우국(憂國)의 원(怨)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는가.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형세는 더 한층 험악해지고 있다. 이 모양, 이대로 가다가는 통일의 날은 기약할 수 없는 일로 될 수 있다. 몸서리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여 분기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주제넘은 일로 될지 모르나 통일구국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할 이남동포들에게 몇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통일저애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데는 그 요인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요인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그것을 배제하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같이 심각한 반성과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남에서 이때까지는 민주화를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디딤돌로 인식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러나 과연 민주화만으로 곧 통일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만큼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문제가 아니라 현실문제이다.

민주운동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남동포들은 세계에 그 영용성을 떨쳤다고 생각한다. 저 4.19로부터 광주봉기에 이르는 피의 항쟁사는 실로 금문자로 새겨지는 자랑으로 자부해서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앞에 시현(示顯)된 현실은 민주화가 아니라 군사독재의 가일층의 강화에로만 결과지어졌으니 말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피의 교훈은 민주화 일변도로서는 민주화도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그것이다.

광주사태 이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줄로 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독재정권을 갈아치우면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을 서구식개념, 말하자면 독자성을 가진 독립국의 경우의 민주화개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밖에 두었다는 것이다.

「한국적 특수여건」이라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외세의 지배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세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미국을 「해방의 은인」으로 「원조자」로 「벗」으로 섬겨왔으며 「대한민국」을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로 여겨왔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측의 호의와 지원까지 기대해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재정권만 꺼꾸러뜨리면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고 통일도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비극의 근원은 우리가 미국을 알지 못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데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남에 있을 때 민족의 길과는 어긋나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광주사태의 거대한 의의는 베일에 가리워져 있던 미국의 바로 그

대한정책의 본색을 처절한 유혈로써 고발한데 있었다.

4.19도 그랬지만 광주사태가 보여준 것은 이남땅의 실제적 지배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이다. 독재정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한국지배를 위한 도구이며 미국의 본체(本体)를 가리우기 위한 꼭둑각시에 비유해서 마땅할 것이다. 만일 이남땅에 미군이 없고 미국의 지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적어도 4.19 같은 때에 이미 내밀기 시작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의 문을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역사의 교훈과 오늘의 현실은 이남땅에 미군이 그대로 남아있고 미국의 지배가 배제되지 않는 한, 민주화도 조국의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구국운동이 민주화 일변도로부터 반미민족자주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실 부산의 미문화원에서 타오른 불길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길잡이의 횃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현장, 문부식을 비롯한 청년애국자들의 거사는 지난날의 애국이 반일이었다면 오늘의 애국은 반미로 되지 않을 수 없고 반미를 떠난 민주구국이란 공허하다는 것을 청춘의 생명을 걸고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주화운동을 그만두거나 경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방향전환이란 우리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인 외세를 보지 못하고 그 하수인인 독재정권만을 대상하는 민주화 일변도로써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주운동이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운동과 결합되고 민족자주의 깃발밑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의연히 중대과제로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현군사정권이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집행하는 매국반역집단인 것만큼 이 정권에 대한 타격은 곧 미국의 한국지배에 대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요점은 구국운동의 방향과 방략을 올바로 세우고 굴함없이 억세게 싸워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전환의 길은 아직도 그 시초에 불과하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길을 큰 걸음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들 속

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미국에 대한 사대와 공포, 자학과 체념의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있는 우리 민족은 결코 못난 민족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배달민족의 민족혼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광주의 영웅들과 부산의 청년애국자들처럼 모두가 애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업은 결코 몇몇 엘리트만의 일이 아니다. 청년학생, 공무원, 학자, 언론인, 노동자, 농민, 한마디로 그 누구도 우리의 민족대업의 방관자로 될 수 없다. 이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로 떨쳐나설 때에만 우리의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군출신의 한 노병으로서 국군장병들에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미 여러번 발표한 바 있었다. 이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첨부코저 한다.

첫째 국군이라면 나라의 군대라는 말이다. 즉 나라의 독립주권을 수호하고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역대정권은 우리 국군을 자기들의 정권유지의 도구로써 이용한 것이고 부산, 마산, 광주 등의 대학살사건에서 애국적인 민중운동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어오며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직접 총칼로 탄압한 것이다. 이는 상부층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죄악과 수치는 이 노병을 포함한 전국군장병에게 씌워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국군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전민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국군이 되기를 다같이 분발하여야 하겠다.

둘째 지휘권을 상실한 군은 자주독립국의 군대라고 볼 수 없다. 군의 지휘권을 가진 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우리 군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6.25사변때에 이 귀중한 지휘권을 미군장성에게 넘겨준지도 33년이 되었다. 우리 반도에서 휴전상태에 들어간 것도 이미 30년이나 된다. 아직 우리 군의 지휘권을 외국인에게 준채로 그대로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 즉 외교교섭으로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교섭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그는 우리 민중의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 이익만을 위하여 희생하는 군인이 될 수 없다. 이 귀중한 국군의 지휘권을 되찾아와야만 국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탄두 1,000개가 우리 땅에 와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전쟁이 우리 반도에서 재발된다면 첫 포격의 목표는 바로 이 핵탄

두가 쌓여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단 장병 여러분이 첫 희생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반도 전민중과 우리 아름다운 강산이 모두 6.25동란 3년간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강토의 통일을 이루고저 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 소위 핵우산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대소련의 전략무기라면 미국땅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넷째 최근 일본수상이 서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한 후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설이 떠돌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군이 우리 땅에 다시 상륙하는데 구실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사코 저지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국군이 금일처럼 된 것은 해방직후부터 70년대 말까지 군을 지배한 자들이 과거 친일민족반역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그네들도 이미 별세하거나 연로하여 퇴역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남긴 여독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그 여독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병이 되었으나 나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 진정한 국군의 면모를 되찾는 노력에 헌신하고저 한다.

다음으로 민족적 숙원인 통일대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공의식에서 해탈하고 이북민중들과의 민족적 대단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남동포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어떤 사상을 놓고 그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에 속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남에서 「반공」이란 개별적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상이나 이념상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엄격한 법적 계율로 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남당국자들이 「반공」을 「국시」로 강제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반공」을 내걸어 북의 동포들에 대한 대결의식,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분단을 고착시키자는 것이 첫째 노리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남의 반체제민주세력을 탄압봉쇄하고 독재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또하나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 「반공」은 곧 반북의 대명사로, 민족을 양분하는 악귀적 존재로, 민중탄압의 몽둥이로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반공의 허구가 얼마나 가공할 작용

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의식에서 해탈하고「반공」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으로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조작된 허구란 엄정한 사실앞에서는 물거품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지금「반공」놀음에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철벽처럼 안겨질 수 있지만 눈을 크게 뜨면 사실상 그것은 종잇장속의 귀신딱지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일찌기 백범 김구선생이「마음속의 38선을 지워야 지상의 38선도 지울 수 있다」고 한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해야 한다면서도 대담하게 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은연히 도사리고 있는 「38선」탓이 아니겠는가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통일의 길을 뚫고 나가자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마음속의 38선」에서 뛰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 수 있고 통일의 장애물을 초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북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을 최우위에 놓고 있다. 한가지 단적인 예만 들어도 이북에서는 거리에 나붙은 표어에 미국을 규탄하는 것은 있어도 남쪽의 동포들을 적대시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미군과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이지만 이남동포들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적대감도 없고 모두가 한결같이 동정과 우의로 대하고 있음을 나는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북민중이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화해단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남침위협설」에 대한 문제이다.
군사로 늙은 이 사람이 이북에 가서 고적 명승지뿐만 아니라 산업시설들도 적지 않게 돌아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은 것은 이북이 절대로 먼저 유혈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전쟁을 하나의 고립된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일찌기 근대군사학의 시조라고 하는 크라우제빗즈는 전쟁은 특별한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갈파하였다.

전쟁이란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오늘 이북에서는 이때까지 많은 것을 건설해 놓았으며 지금도 대규모의 건설을 벌이고 있다. 80년대에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목표라 한다.

그들이 휴전후 이제껏 잿더미속에서 이루어놓은 그 거대한 재부를 또다시 전화에 휘날려버릴 그런 우둔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나에게는 확신되었다.

이북을 방문한 미국기자 제임스 프링글도 1981년 2월 9일자 "뉴스위크"지에 「김주석이 그의 일생의 사업과 그 나라의 재차의 파괴위험을 무릅쓰고 이남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새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쓰고 있다.

이북이 남침할 생각을 가졌다면 4.19봉기나 10.26사태 같은 기회를 왜 놓치겠는가, 또 반대로 미국이나 이남정권이 정말 이북의 남침위협을 느꼈다면 어떻게 국군을 빼내어 월남에서 청부전쟁을 벌이며 박정희가 죽고 이남사회가 온통 술렁거릴 때 전방병력을 이동시켜 12.12숙군쿠데타 같은 것을 꾸밀 수 있었겠는가.

이북이 남침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성명을 하고 또 사실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북의 남침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이북에 대한 반공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앞으로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북의 남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의 북침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조(前兆)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이북의 거듭되는 제의도 매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군사전략의 당면목표를 수행하는데서 한반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성명하면서 이남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의 살육무기들을 계속 들이밀고 있다. 그리고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체제를 형성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이북을 가상적으로 하는 「팀 스피리트」연합훈련을 해마다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려는 행동으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6.25동란도 이북에 의해서 도발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미국에 있던 나도 처음에는 그대로 믿었다. 그러다가 후에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씨가 6.25전야에 이남에 와서 국회에서 한 연설을 접

하게 되고 또 이승만대통령과 미국사이에 오고간 비밀서한 내용도 알게 되면서 미국과 이남측에서 먼저 불을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6.25전날밤 국군장병들에게 휴가를 주고 서울에 있는 장교클럽에서 대연회가 있었던 사실을 들어 남측에서 선제공격이 있을 수 없고 분명 북이 먼저 쳐들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미국에 의해서 꾸며진 전쟁전야의 위장된 평화드라머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

사실 군사적 시각에서 좀 냉철하게 투시한다면 1950년 이 시기는 미국이 제2차대전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으로 우세해져서 세계 최강의 초대강국으로, 서방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하던 시기였다.

이에 비해서 이북은 정규군을 창건한지 겨우 2년밖에 안되며 지휘관들도 유격전만 해보았지 현대전의 경험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소련은 2차대전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고 중공은 건국을 선포한지 1년도 못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남침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서도 양심있는 사람들은 이북이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고는 믿지 않고 있다.

아뭏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강토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6.25비극을 재연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동족끼리 싸우겠는가. 더우기 앞으로 전쟁이 재발되게 되면 기필코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남의 반역분자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하늘처럼 믿고 있는 모양인데 어리석은 망상일 뿐이다. 나는 이북의 군사시설을 알 길 없으나 만일 전쟁이 일면 북이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이북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이남의 핵기지가 이북의 반격의 첫 대상으로 될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두환이쯤은 월남이나 이란에서처럼 혹 빼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외의 사람들은 괴멸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이북의 겨레와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 여기에 삶의 길이 있고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미국에 권고한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아주 오랜 국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1882년 5월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그사이 한 세기에 이르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한미관계의 100년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882년부터 1910년까지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간,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단계때에는 뒤늦게 해외진출의 길에 나선 미국이 당시 조선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관계로 보아 봉건조선을 직접 점령하고 지배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일본을 이용하여 노서아제국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이권분배에 참가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05년의 「가쯔라 타프트」협정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협정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특수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한일합방을 사전 승인하고 장차 일제지배하의 한반도에서 경제적 이권을 얻을 것을 미리 약정한 것이었다.

두번째단계에서는 일제의 조선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한일합방 이전에 획득한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제1차대전후 미국이 민족자결권을 고창하면서도 3.1운동으로 터져오른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백안시한 사실이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번째단계에서 미국은 일본이 패전후 미군을 한반도 이남지역에 주류시키고 3년간의 군정을 실시하다가 1948년에 친일반역자와 친미파들로 남한단독정부를 세워 국토를 분단통치케 하면서 한국지배를 통한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여 왔다.

미국의 대한전략이라 할 때 제2차대전후 자기의 세계전략에 따라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는다는 이름밑에 이남 절반땅을 군사전초기지로 이용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미관계 100년이란 미국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관하게 자기의 국익을 추구해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이 들씌워진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당한 희생이 얼마나 가혹했는가 하는 것은 지나간 100년이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 침략과 민족분단으로 이어진 재난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이 재난이 모두 미국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뭏든 미국의 관여와 개입,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과실은 미국을 잘못 본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눈뜬 소경은 아니었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이남민중은 광주사태를 통해서 늦게나마 미국의 대한정책의 본색을 깨닫게 되고「미국이 과연 우리의 벗인가」하는 의혹을 품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양키는 물러가라」고 외치게 된 것이다.

워싱턴당국자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로 될지 모르나 그것은 의당한 사태발전이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흑인지도자 마르콤엑스는「노예가 자기를 노예인 것을 자각했을 때 그는 벌써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민중이 언제나 양과 같이 순하고「들쥐」처럼 채찍이 내모는대로만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한국민중이 각성한 이상 미국이 아무리 군사폭압배들을 시켜 공포정치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남땅에서 문부식, 김현장, 최기식, 박관현 같은 애국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이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종래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항력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남민중의 살길은 오직 반미의 길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미관계는 100년이래 비정상적이였으며, 그것은 이제 한

계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발전을 똑바로 보고 월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나는 바라마지않는다.

이것은 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 개인으로 말하면야 제2차대전시기 버마전선에서 연합군과 함께 항일하였고 6.25동란도 미군과 함께 겪었으며 오늘은 미국에 망명처를 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세인들에게 친미파로 불리울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한미간의 바람직한 친선과 우의를 위해서 미국이 대한정책을 대담하게 시정할 것을 진심으로 권유하는 바이다.

국가간의 친선과 우의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즉 한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람직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를 양분하여 이남을 자기의 지배하에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손을 떼야 하며 또 그럴 때는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미국에 있어서도 영예롭고 이로운 일로 될 것이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로 될 것이다. 한때 민족자결권을 고창한바 있는 미국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더욱 그런 것이다.

나는 또한 1776년 영국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한 역사와 링컨대통령시대의 남북전쟁의 교훈을 상기시키고저 한다.

역사는 흐르고 시대도 변하였다. 오늘의 시대는 민족자주의 시대이다.

지난날 큰 나라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민족이 각성해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자주적인 삶을 영위해가려 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기상도는 크게 달라졌으며 더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부 서방나라들에서조차 미국의 지휘봉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길로 나가려는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물결이 자주의 깃발을 따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이라고 왜 이런 세기적 흐름에 합류해 나가지 못하겠는가.

우리 민족은 자고로 외래침범자들을 반대해서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도 민족적 존엄과 자주독립을 위해서 혈로를 헤쳐 왔다. 4.19와 광주민

중봉기는 우리 민족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일 미당국자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자주정신을 보지 못하고 민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전두환따위를 붙잡고 앉아있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국국민이 자랑하는「아메리카 독립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솔직히 말해서 군사전략적으로 보아도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하고 중공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는 군사전략적으로 가치가 없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자그마한 반도를 둘로 쪼개서 그 절반을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는 의도를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룩되면 그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평화애호적인 중립국으로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이북을 방문하여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고저 한다.

나는 이북의 고위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려 하지 않으며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이남에 공산주의를 강요할 의사가 없으며 전두환파쇼정권대신에 민족적 양심이 있는 인사가 집권하고 이에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문제, 통일문제 등을 가지고 미국과도 남측과도 상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이 통일되면 절대로 다른 나라의 위성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되어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밖에 그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좋게 가질 것이라면서 이것은 큰 나라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서 바람직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본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무분별한 사람들」,「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현실주의적이며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대신 자기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하는 불같은 사람들이였다.

나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북이 제의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연구하며 긍정적으로 나가기를 재삼 바라는 바이다.

100년래의 한미관계는 궤도수정을 해야 하며 또 그럴 때가 왔다고 나는 믿는다.

흔히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벗도 없거니와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한다.

나는 한미수교 101년을 내디디는 오늘 미국이 얼룩진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조속한 통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여 「명예로운 철군」을 연구해 볼 때가 왔다고 직언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군국주의의 팽창을 추진하고 일본을 전두환과 군사정치적으로 유착시키는 일을 뒤에서 조종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지배층은 역사적으로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큰 나라를 등에 업고 힘을 키우다가 힘이 강대해지면 도리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드는 강도의 버릇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일본군국주의를 두둔하다가 「제2의 진주만」의 봉변을 겪는 일이 없게 되기를 나는 충심으로 바라마지않는다.

케네디씨는 집권하면서 「시간은 미국에게 날로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문한바 있다.

기실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선 오늘의 미국의 처지가 그의 판단을 긍정해 주고 있다.

미국은 벌써 「세계최강의 초대강국」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저 「열강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은 격동하는 이 세류속에서 미국이 처한 현실과 높아가는 이남 민중의 자주의식을 직시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지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우리의 민주통일운동에 호의를 표시해온 미국의 양식있는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들, 그리고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미국 자체의 영예를 위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진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일본에 경고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마디 경고하고 싶다.

요즘 한일유착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긴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항일한 노병의 한사람이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터져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와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인접국이다.

생각하면 오랜 군인이었고 외교관출신인 이 사람에게는 일본이라 하면 우리는 한번도 침공한 일이 없는데 그는 수백년전부터 우리를 침해하고 노략질해 왔다는 생각부터 든다.

크게는 풍신수길(豐臣秀吉)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임진란이 있었고 작게는 해적선을 시켜 우리 나라 남해연안에 번번이 침범하고 약탈행위를 한바 있다.

특히 1910년에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것은 일본이 감행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후진자본주의국가로서 우리 나라 땅을 탐내어 오다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1905년에는 이등박문(伊藤博文)으로 하여금 구한국정부내 친일대신들을 매수하고 매국집단인 일진회(一進會)를 움직여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조작해내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주권은 일제의 통감정치의 부속물로 화했으며 독립은 박탈되고 마침내는 한일합방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일본이 대외팽창을 위해서 언제나 큰 나라를 업고 나서는데 습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1895년에 미국의 비호밑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국의 요동반도(후에 반환)와 대만을 식민지로 강탈하였고 1904년에는 영국의 지지밑에서 노일전쟁을 일으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빼앗아내었을 뿐 아니라 그 이듬해 미국의 양해밑에 을사보호조약을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제1차대전때에도 영일동맹을 구실로 참전하여 전후에 독일의 세력범위였던 중국의 산동성 교주만을 강탈하였다.

제2차대전때에도 마지막에는 패전했지만 처음에는 나치스독일과 파

쇼 이태리를 끼고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어 아시아에서 맹주로 나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보다 얄미운 것은 오늘까지도 일본이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미국을 업고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지지밑에 「원조」니 「공동개발」이니 「경제기술적 협력」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면서 이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까지 짜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를 재침하기 위해서 이남땅에 검은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에만도 나까소네수상은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종용도 있었지만 서울을 방문하고 「한일친선우호관계의 구축」이라는 이름밑에 전두환정권에 40억달러의 차관을 줌으로써 군사동맹색채를 더욱 짙게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국력에 상응하게 경제면에서 뿐 아니라 군사적 역할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체하면서 내실(內實)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상한 군국주의부활의 공개적 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일본도 옛날의 그 일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외정책이란 그 나라의 사회정치적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그 생리 역시 변하지 않는 법이다.

일본에서는 전후 한때 죽은듯 했던 독점재벌들이 소생했을 뿐 아니라 더욱 비대해지고 군벌잔당들이 다시 활개치면서 심지어 과거와 같은 천황제복구까지 꿈꾸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서 그 생리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일본은 지난날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아직껏 공식적으로 한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우리는 일청, 일로의 뒤를 이어 세번 일어나서 38도선을 압록강밖으로 밀어버리지 않으면 조상에 면목이 없다」고 한 사와다(澤田) 망언이라든가 「대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합방하고 만주에다 오족협화의 꿈을 실었던 것이 일본제국주의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제국주의이다」라고 한 시이나(椎名)망언 같은데서 노출된 것처럼 의연히 한국재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까지 항의소동을 일으킨바 있는 일본역사교과서 왜

곡사건도 그 어떤 우발적인 발상에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침략적인 한국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번에 서울을 방문한 나까소네수상이 한일정상회담을 끝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태극기와 일장기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해준 광경을 일본국민이 봤다면 감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나는 본다.

지난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날 밤 이등박문은 흥에 겨워 「만일 소서(小西)가 금세에 살아 있다면 오늘밤의 저 달을 어이 볼 것인고」라고 읊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조선총독부」건물이었던 중앙청에 37년 4개월만에 일장기를 다시 띄우게 하고 서울장안을 부감한 그가 단순히 「한일친선」만을 그리며 말했을리 없다.

나에게는 그의 말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세의 간섭과 예속을 반대해 싸우는 우리 한국민을 공공연하게 모독하고 도전한 것으로밖에 달리는 느껴지지 않는다.

허나 일본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동란때 만일 일본군이 상륙해 오면 이북에 대한 싸움을 중지하고 이북과 함께 손잡고 총부리를 돌려 일본에 항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당시 맥아더사령부에서 일본자위대무력을 한국전선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 청년장교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바람에 이박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어 한 말이다.

나도 그때 그 청년장교들 중의 한사람으로 끼어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선하다.

일본지배층은 이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황군」잔당들에 대한 우리 한국민중의 증오감은 오늘도 의연하다.

물론 우리 한국민이 일본의 군벌세력과 그를 반대하는 새세대를 포함한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세력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에 칼을 물고 덤벼드는 일본군벌잔당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고 감행한 천인공노할 죄악적 만행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또 잊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비록 어려운 수난을 겪고 있으나 지난날의 열등

민족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진정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바란다면 이남민중에게 버림받고 전민족의 저주를 받고 있는 전두환과 같은 자를 더는 비호지원하지 말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남북대결을 부채질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큰 나라를 업고 횡재해온 나라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큰 나라를 업고 횡재해 보려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오늘 일본은 아시아침략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국과 결탁하고 그것으로 한몫 보려 하고 있으나 그것이 망국의 길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친미예속의 길이 아니라 자주와 민주주의의 길로, 군사동맹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중립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일본에게 경고하면서도 일본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잔당도 얼마 멀지 않아 사라질 것이고 그 잔당들이 남긴 여독도 시일은 다소 요할 것이나 종국에는 그것도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1977년 11월에 동경에서 반박선언을 하면서 젊은 지성인과 유력한 언론인들하고 장시간 환담할 수 있는 기회에 일본의 앞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 민족을 지배한 사실이 있다는 교만성을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 배달민족은 일본압제하에 있었다는데서 생기는 비열감을 가지지 말 것이라고 한바 있다. 이리하여야만이 우리 배달민족과 일본은 항구적인 평등하고 호혜적인 우호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네들은 이에 동감하였다.

글을 마치려 하며

생의 절반 이상을 군인으로 보낸 노병은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돌아보면서 자격지심과 회오의 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

인간에겐 각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겠으나 사람이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이란 공동운명체속의 역사적 현실을 어찌 벗어날 수 있으며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나에게는 걸어온 걸음보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짧다. 때문에 아주 황망한 심정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통일의 한길에서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을 뿐(따름)이다.

조국의 남반부에서 오도된 역사의 탁류속에 동참했던 내가 이제 늦게나마 통일의 한길에 합류하게 됨을 다행으로 여기며 어린 시절 망국의 한을 안고, 선친의 손을 잡고 떠나왔던 그 길을 이제 겨레가 얼싸안고 춤추는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돌아가고 싶다.

필시 그날은 오리라.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상 나는 졸필단문을 무릅쓰고 내 자신의 반성과 새로운 각성을 기록하여 나의 부모님과 선배 선각자들에게 속죄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새로운 세대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저자의 약력

1914년 9월 17일생

1921년 8살때에 독립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망명가는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감.

* 부친 최동오선생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참가 2년의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석방된 후 중국에 망명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김구, 김규식 등 선생과 함께 참석. 1936년 중국 남경에서 육군중앙군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항일전에 참가.

1945년 인면(印緬)북부에서 중국 제38사단의 참모와 대대장직을 담당하면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중국 남부 광동성에 개선하여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행하면서 일본군에 강제입대시킨 동포 3천여명을 해방시켰으며 그 다음해 5월에 인솔귀국하였음.

1947—1956년 한국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제3,8,11 사단장,

판문점 휴전회담에 한국군대표로 참가. 1953년 5월 25일에 미국대표와 의견충돌로 그 회담에서 퇴장. 제1군단장 1956년 5월에 육군중장으로 예편함.

1956—1961년 월남공화국(남월남) 주재 대사로서 주태국 사절도 겸임한바 있음.

1961—1963년 외무부장관. UN 제16차와 17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

1963—1967년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주재 특명전권대사.

1967—1976년 천도교 교령직을 담당하면서 국토통일원 고문,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한일종교가협의회 한국측 회장.

1976년 2월부터 미국내에서 거주.

1977년 11월 18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독재정권타도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

198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

1982년 4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의 70돌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평양을 다시 방문.

저서 인면(印緬)항일혈전기

내가 겪은 판문점, 제2의 판문점(그 당시 파리에서 열리고 있은 남북월남의 정전협상을 말함)은 어디로. 한, 중, 영 3국어로 출판.

민 족 과 나

통일의 한길에서

1984年 6月 20日 印刷
1984年 6月 25日 發行
著 者 최 덕 신
發行所 三 學 社

電話 962—4256
登錄 1951. 9. 19 № 217